

브루스 W. 베넷, 최강, 고명현, 브루스 E. 벡톨, 박지영, 브루스 클링너, 차두현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브루스 W. 베넷, 최강, 고명현, 브루스 E. 빅톨,
박지영, 브루스 클링너, 차두현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머리말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공동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력 위협의 현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한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표지에 나와 있는 저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저자들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재정 지원과 동 연구원 설립자인 정몽준 명예이사장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체계적 감수를 맡은 RAND 연구소의 짐 퀴리반(Jim Quinlivan) 선임연구원, 민주주의 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예비역 대령, 그리고 수 김(Soo Kim) RAND 연구소 연구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외에도 좋은 의견을 제시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 김영호 국방대 교수, 류제승 예비역 육군 중장, 박창권 前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성호 서울대 교수, 이종섭 예비역 육군 중장, 장혁 예비역 육군 소장, 최진욱 前통일연구원장,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미 국가정보국 선임 북한정보분석관, 브래드 로버츠(Brad Roberts)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국제안보센터장, 이현승(Lee Hyun-seung) 탈북민, 개럿 클로즈(Garrett Close) 미 육군 중령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지원하고 RAND 국가안보연구부의 국제안보-국방정책 센터 주도로 진행되었다.

목차

머리말	iii
그림 및 도표	vii
요약문	ix
약어	xv
1. 서론	1
김씨 일가의 유산과 북한 현실의 뒷	2
이 보고서의 구성	4
2. 북한의 국가전략: 핵능력을 넘어서	5
북한의 국가전략	6
북한이 바라는 승리의 길	15
어떻게 북한의 국가전략을 저지할 것인가	21
3.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현재 그리고 2027년	23
북한의 핵무기: 배경과 능력	23
핵무기 운반: 증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량	27
핵물질 보유량: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31
핵무기 보유량 추산	34
핵무기 보유량 추산에 관한 유의사항	36
4. 북한의 핵무기 전략: 지역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	39
북한 핵능력 향상에 따른 핵 독트린 진화	39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범위	43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운용 가능성 요약	53
핵무기 사용의 촉발 요소	56
결론	57

5. 한미의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전략	59
한미 핵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결론	59
2027년 한미 전략 제안 개요	60
한미 핵심 전략: 대북 억제, 격퇴, 방어 및 좌절	61
한미 양국은 어떤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70
한미 전략에 대한 기타 권고 사항	76
중국과의 협력	81
참고문헌	85
저자 소개	105

그림 및 도표

그림

그림 3.1.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량	36
그림 5.1. 억제 체계	62

도표

표 2.1.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북한 국가 목표의 변화	17
표 3.1. 북한의 탄도미사일	29
표 3.2. 2018·2019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 추정치	32
표 3.3.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정치	34
표 4.1. 북한 핵무기의 관념적 배분	55

요약문

한국전쟁(1950~1953)을 통해 한국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데 실패한 이후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수단과 재래 군사력이 부족했다.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이를 대신해 북한 정권에 힘을 실어 주고 한반도 지배력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 북한이 가진 수십 개의 핵무기 중 단 몇 개 만이라도 한국이나 미국의 도시에서 폭발할 경우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¹ 점점 더 증가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완화하려는 한미의 주요 전략은 비핵화 협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² 방위력과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한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이를 격퇴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역량 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핵억제 역량은 단기간에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본 보고서는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전쟁에서 활용성이 높은 북한의 위력적인 무기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준비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한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목표와 핵무력 증대를 분석하고, 한반도 지배를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1. 간결함을 위해 대부분의 세부 각주는 해당 이슈가 논의되는 장에서 제공된다.

2. 대북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추가 양보를 하면 북한의 핵무기 수를 10~20개 내외로 제한하는 “적절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서론 참조)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시드니 사일러(Sidney Seiler) 미 국가정보국 선임 북한정보분석관은 “북한 외교의 관여 시도는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Volodzko, D. North Korea Dangerous But Not Unpredictable, Says US Intelligence Official. NK News. January 22, 2021. <https://www.nknews.org/2021/01/north-korea-dangerous-but-not-unpredictable-says-us-intelligence-official/>).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 강압과 억제를 위해 핵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핵을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2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핵보유를 바탕으로 강압과 억제를 행사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정권에 대한 위협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내부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호하고 무자비하다. 우리는 북한이 내부 문제 해결용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여 제한적이거나 또는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한반도 지배를 가능하게 할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0개 혹은 그 이상의 핵무기로 한국에 가하고 있는 위협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다. 현재의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방어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는 2027년경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효율적인 방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김정은에게 핵무기 위협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비핵화의 가능성을 시험해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목표와 핵무기의 잠재적 역할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제한된 전쟁이나 냉전 전략으로 전환하여 국가를 제한적 전쟁 상태로 유지하고 북한의 '적'인 한미에 맞서도록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재래 군사력으로는 한미와 경쟁할 수 없는 약하고 가난한 나라도 핵무기가 있다면 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현재까지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했고 수백여 개의 핵무기 생산을 염두에 두고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와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했는데, 그중 일부는 핵무기 운반이 목적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수십 년 동안의 일본 점령과 미국의 지배 구도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지역 국가이다. 자신들의 '굴욕의 세기'를 극복하고 과거 고구려와 같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여 성공한 정권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모범적 대안으로 비춰질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정권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정권 생존 보장과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유지
2. 한반도 지배, 즉 북한 정권 통제하의 통일
3. 1과 2를 달성하고,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 강국으로의 부상

김정일은 사망하기 전 유훈으로 김정은에게 “조국통일은 우리 일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

했다.³ 한반도가 통일되면 김씨 정권은 한국이라는 위험한 모범사례가 주는 여러 면모를 없앨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 또한 두려워한다. 완전한 통일이 될 경우 이러한 정보 유입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는 일종의 연방제 장치를 모색할 것인데, 이를 통해 그는 북한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도 북한의 핵심 지지층에 도달하는 외부 정보를 차단할 장벽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세 가지 목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통일을 이루고 강성대국이 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탈북 외교관 태영호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존속을 위협하는 주된 위협은 북한 정권의 실패와 잔학성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나 만약 북한 주도로 통일해 한반도를 통제할 경우, 북한은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자축하면서 어느 정도 내부 위협에 맞서 정권 생존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강국이 됨으로써 북한은 한국을 지배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의존 탈피를 기대할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외부의 영향에 맞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게 된다.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이러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이다. 북한의 재래 전력은 한국의 전력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재래식 군대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질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정권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⁴ 북한이 2013년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명칭의 법령은 핵무기의 역할을 ‘적의 침략과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과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 타격을 가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70여 년 동안 모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북한이 이곳에서 2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다면 미국이 철수하고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미국 본토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폭사시킬 수 있는 대규모 ICBM 전력을 추구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 위협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시사한다. 중국이

3. JoongAng Daily, Kim Jong-il's final orders: Build more weapons, January 29, 2013.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3/01/29/politics/Kim-Jongils-final-orders-Build-more-weapons/2966344.html>.

4. 2020년 12월 17일 태영호 의원은 한미문제연구소 발표에서 김정은이 2012년 집권 초기 북한 군부대를 시찰했고 2012년 3월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5. North Korean Economy Watch, 2013 Plenary Meeting of WPK Central Committee and 7th Session of Supreme People's Assembly, April 1, 2013. <https://www.nkeconwatch.com/2013/04/01/2013-plenary-meeting-of-wpk-central-committee-and-supreme-peoples-assembly/>.

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7). North Korean Missile Proliferation, hearing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Proliferation, and Federal Services, October 21, 1997.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HRG-105shrg44649/pdf/CHRG-105shrg44649.pdf>.

2049년까지 세계적인 패권국이 되고 한반도 너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규모 핵무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도 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일관되게 핵무기를 ‘보검(treasured sword)’이라고 칭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가 증가하면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협박과 강압, 억제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ICBM 역량의 상당 부분을 활용해 미군이 북한의 제한된 핵공격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가 북한 경제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은 김정은이 대규모 ICBM 전력을 활용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산시키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내부 불안정으로 인해 절박해진다면 한미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제한적 핵공격이나 전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북한의 강압에 저항하는 한국에 대한 대비로 7일 내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전쟁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한미 양국의 재래 전력의 질적 우위와 미국의 신속한 군사력 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격 초기부터 한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핵 공격을 요구한다.⁷

2027년경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선택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주력해왔다.⁸ 또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모색해 왔는데 이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비록 북한이 제한적 혹은 대규모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해 왔지만, 핵무기를 통한 북한의 강압과 북한의 핵 확산은 억제되지 않았다. 북한 정권이 심각한 내부 위협을 느끼고 내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한미를 상대로 전쟁을 모색할 경우 미국의 억제 위협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이 미국의 핵보복을 막기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억제가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27년경까지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핵무기 위협을 전망할 때, 한미

7. Chung, K. (2016). Realities and Strategies in Managing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2, No. 4, pp. 465-484. JoongAng Daily. Kim Jong-un Ordered a Plan for a 7-Day Asymmetric War: Officials, January 7, 2015.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5/01/07/politics/Kim-Jongun-ordered-a-plan-for-a-7day-asymmetric-warofficials/2999392.html>.

8.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February). *Nuclear Posture Review*, p. 33.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86/-1/-1/2018-NUCLEAR-POSTURE-REVIEW-FINAL-REPORT.PDF>.

양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북한이 그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든 이를 격퇴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범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전력 획득 소요를 파악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확실히 궤멸할 수 있다는 의지와 역량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한국형 MAD). 한미 양국이 그렇게 한다면 북한은 핵무기가 부담(liability)이며 최소한 어느 정도로는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격퇴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수년이 걸리며 한미 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더 큰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북한이 전쟁을 원한다면 응전해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절박한 내부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정권을 대상으로 억제와 지역 안정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미 양국의 대응 또한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갖고 있다. 양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북한이 주요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 정권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제한된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공식화하여 선포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단 한 개의 핵탄두라도 캠프 험프리스나 동북아시아의 다른 주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가 아니라 북한 정권 제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비공개로라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한미 양국 사회와 군대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질적, 양적으로 증강된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 핵공격으로부터 공군 전력과 기지 및 한미 양국군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산개 능력, 핵공격 여파로부터의 방호 및 안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무력과 지도부에 대한 고급 정보 수집, 원격 공격 능력, 증가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 등을 포함하여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한미 간 공격작전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법은 더 큰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한미 양국도 북한을 위협해 압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일정 규모(대략 80~100개)를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선제적 대응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 혹은 둘 다의 보유량이 임계치를 넘길 경우 미국이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후 숨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8~10개의 전술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한국에 배치시킬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ICBM 보유 수량이 과다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에 핵무기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해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가능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강력한 행동을 취하면 북한의 적대감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도발을 감행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정보전 및 심각한 상태의 물리적 교전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는 창의적 생각이 필요할 뿐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특히 외부 세계의 비판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다. 한미 양국이 이러한 취약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주요 정보전을 통하여 도발에서부터 핵공격을 아우르는 북한의 행동에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정보전은 북한 인권 침해, 부패, 정권 수뇌부의 사치 생활, 북한 정권의 실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다양한 북한의 도발과 제한된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한미 양국은 석탄 등을 수출하고 석유를 수입하는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와 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한 진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아주 조금이라도 위협이 감소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핵 공격을 격퇴할 능력이 있고, 물리칠 것이라고 확신하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허용 한도를 협상할 용의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안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비핵화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려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 대한 걸림돌로는 중국의 반대 가 있다. 한미 양국은 중국 또한 핵확산을 포함해 북한의 주요 핵무기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득하기 위해 정보전을 대폭 활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중국에 핵무기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핵 위협 감소를 위한 대안을 제공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국의 지원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할 때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약어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군사령부(연합사)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HEU	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우라늄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KT	Kiloton, 킬로톤
MIRV	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MWe	Megawatt-electric, 메가와트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OPC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한국)
TEL	Transporter-erector-launcher, 이동식 발사대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UN	United Nations, 유엔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1. 서론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 문헌은 상당히 많다.¹ 대부분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가정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억제력을 달성하기 위해 20~60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핵무기 숫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²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종식할 경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³ 따라서 대다수 관련 연구들은 북한

1.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Carlin, R., & Jervis, R. (2015, October) *Nuclear North Korea: How Will It Behave?*. US-Korea Institute at SAIS. https://www.38north.org/wp-content/uploads/2016/06/2015-10-CarlinJervis_Nuclear-NK.pdf; Stephan Haggard, Cheung, T.M. (2020, Jul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UC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https://www.crisisgroup.org/asia/north-east-asia/korean-peninsula/north-korea-s-nuclear-and-missile-programs>; Hecker, S. S., & Carlin, R. L. (2019, August 5). *We Are Teetering on the Edge of a Hinge Point With North Korea - The World Post*. Berggruen Institute. <https://www.berggruen.org/the-worldpost/articles/we-are-teetering-on-the-edge-of-a-hinge-point-with-north-korea/>; Mount, A. (2019). *Conventional Deterrence of North Korea*.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ttps://fas.org/wp-content/uploads/2019/12/FAS-CDNK.pdf>; Mullen, M., Nunn, S., & Mount, A. (2016).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report/sharper-choice-north-korea>; Smith, S. (2015, November). *Implications for US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in East Asia*. US-Korea Institute at SAIS. <https://www.38north.org/wp-content/uploads/2015/11/NKNF-Smith-Extended-Deterrence-Assurance.pdf>.
2. 예를 들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2019 연감은 북한이 2019년에 20~3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2020년에는 30~4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9). *SIPRI Yearbook 2019: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핵 비축 규모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것이라도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Albert, E. (2020, November).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ackgrounder/north-koreas-military-capabilities>.] 이외 조선일보. 北 핵탄두 내년이면 30~40개 보유할 것. 2019년 9월 17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72.html.

비핵화 과정의 전단계로 미국에게 북한과 평화 협정 또는 종전 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타협안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제거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 위협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핵무기 증강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다른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미사일 방어 체계 이외에는 한국을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왔다.

한미 양국은 현재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27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대 중 후반에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 왜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로 핵무력을 구축했다는 점을 인정하고⁵ 있으며, 2027년까지 북한이 약 200개의 핵무기와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지배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핵무력이라고 평가되는 수량이며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물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북한과의 핵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핵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전쟁에 대비하는 것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다.⁶ 한미 양국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격퇴하고,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씨 일가의 유산과 북한 현실의 덧

북한은 김씨 일가의 유산과 북한 내 상황으로 인해 핵무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덧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여전히 신격화되어 존경받고 있으며, 김씨 일가의 정

3. 북한은 미국에 대해 더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거나 내려놓지 않는다.

4.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를 포함해 이런 취지의 성명을 많이 냈다. 예를 들어 Yonhap News Agency, Kim Calls U.S. 'Principal Enemy,' Vows to Continue Nuclear Development, January 9, 2021. <https://en.yna.co.kr/view/AEN20210109000454325>.

5. 예를 들어, Hecker, S. S., & Carlin, R. L. (2019, August 5).

6. David, J. (2014, March 8). Address: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U.S. Military Pre-Eminence and Why it Matters. Hudson Institute. <https://www.hudson.org/research/10155-address-if-you-want-peace-prepare-for-war-u-s-military-pre-eminence-and-why-it-matters>.

책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김정일은 아들 김정은에게 44개 조항을 담은 유서를 남겼으며, 그중 특히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 것.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가문의 중국적 목표이다. 정은이 대에 안 되면 그 후대에 가서라도 무조건 통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미국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하며 중국의 정치, 경제적 간섭을 이겨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이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될 수 있는 나라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⁷

북한의 빈곤, 부패, 비효율성은 김정은이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0년 유엔(UN)과 미국의 제재,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및 그에 따른 무역 단절, 자연재해가 결합되어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 정책 실패와 기아가 일상화되었다.⁸ 이러한 상황은 외부 정보 유입과 결합되어 김정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은 2049년까지 글로벌 패권국이 되길 원하는데⁹ 이 또한 김씨 정권의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에 익숙한 많은 미국인들은 한미 양국의 우월한 군사력 때문에 김씨 일가가 한반도를 무력 통일할 수 없다고 믿는다.¹⁰ 김일성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김일성은 한미 동맹을 이간(decouple)해¹¹ 한국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러한 완전한 통일로 인해 외부 정보가 북한에 일거에 몰려들게 되면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대신 김정은은 핵무기를 이용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일종의 연방제 형태로

7. 유코리아뉴스. 김정일 유서 전문. 2012년 11월 23일.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 이 유서는 한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영어로는 예를 들어 JoongAng Daily, Kim Jong-il's Final Orders: Build More Weapons, January 29, 2013.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3/01/29/politics/Kim-Jongils-final-orders-Build-more-weapons/2966344.html>.

8. Rimjin-Gang. Residents of N. Korea's Embattled Cities Face Starvation amid Continuing Coronavirus Blockade, December 16, 2020. <https://www.asiapress.org/rimjin-gang/2020/12/society-economy/starvation/>.

9. Japan Times. What Does China Really Want? To Dominate the World, May 22, 2020. <https://www.japantimes.co.jp/opinion/2020/05/22/commentary/world-commentary/china-really-want-dominate-world/>.

10.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및 한국 전문가 커뮤니티 인사들과 나는 수십 건의 대화를 토대로 한 것이다.

11. Oberdorfer, D., & Carlin, R. (2013).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vised ed.). Basic Books, p. 94.

한국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북한은 이 방법으로 한국의 경제적 부를 활용하되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정보 흐름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다.¹²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여전히 김정은에게 매우 위협하다.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은 그의 유일한 성과이자 통일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것처럼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협상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거나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증산하고, 핵무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¹³ 김정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00개의 핵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분석하고 한미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네 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¹⁴ 제2장에서는 북한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잠재적 규모와 특성에 대해 고찰한다. 제4장은 북한이 평화시에 강압적인 혹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제한적 전쟁이나 전면전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중국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한다.

12. '통일'에 대한 이 접근법의 논리는 제2장과 4장에 서술했다.

13. NBC News, North Korea Has Increased Nuclear Production at Secret Sites, Say U.S. Officials, June 30, 2018. <https://www.nbcnews.com/news/north-korea/north-korea-has-increased-nuclear-production-secret-sites-say-u-n887926>.

14. 보고서 제2장은 고명현이 작성하고 브루스 클링너가 기여하였다. 제3장은 브루스 E. 벡톨과 박지영, 제4장은 브루스 클링너와 차두현, 그리고 제5장은 브루스 W. 베넷과 최강이 공동 작성했다.

2. 북한의 국가전략: 핵능력을 넘어서

북한 국가전략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 핵·미사일 능력이라는 사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2년간의 활발한 외교활동이 끝나고 북한 지도부는 대화 대신 긴장을 조장하고 한미동맹에 위협을 가하는 기존의 입장으로 되돌아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여전히 존재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무실화 위협, 그리고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재확인한 김정은의 행보는 북한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전 세계에 공언했던 완전한 비핵화의 길 근처에도 가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¹ 북한은 계속해서 ‘핵보유국’이라고 자칭하고, 해당 용어를 헌법에 명시하며²,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³에서 규정하는 5대 핵보유국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NPT는 해당 5개 국가에 한하여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 북한을 포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은 핵무장국으로 불린다.⁴

이러한 상황이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핵무장국 지위를 활용해왔다. 여타 영역에서도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을 통해 국가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북한 국가전략의 성공은 정치·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능력의 개발과 과시, 그리고 외교 영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

-
1.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김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판문점, 한국, 2018년 4월 27일) 그중 하나는 1992년 비핵화 선언으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정원식·연형묵,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1월 20일).
 2. Ha, M. Amended North Korean Constitution Reaffirms Kim Jong Un’s Steadfast Faith in His Nuclear Arsenal.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July 15, 2019. <https://www.fdd.org/analysis/2019/07/15/amended-north-korean-constitution-reaffirms-kim-jong-uns-steadfast-faith-in-his-nuclear-arsenal/>.
 3. NPT에서 인정하는 5대 핵보유국은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이다.
 4. Nuclear weapon state는 핵보유국으로, nuclear-armed state는 핵무장국으로 표기하였다.

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르면 핵기술 개발은 북한의 최우선 과제이자 정권이 선호하는 전략적 경로가 된다. 북한이 보다 빨리 완성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능력을 선보일수록 북한 정권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외교가 속임수라는 뜻은 아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방해하는 분명한 장애물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정당성을 미국이 인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재 북한 정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 대통령에게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를 거의 이를 뻔했지만, 트럼프로 하여금 북한의 추가 요구를 수용하도록 회유하는 데는 실패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외교전략의 핵심 행보는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개발 야심을 정당화한 후, 국제사회가 북한이라는 비인간적이고 낡은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역내 경제 강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강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역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작기 때문에 핵능력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가 부여하는 영향력과 지렛대를 통해 부유한 이웃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⁵ 이를 인정받는 순간은 북한이 지역 강국으로 등극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은 한국과 한반도 관련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북한에게 유리한 통일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여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북한에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어야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이 보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북한은 핵과 경제적 번영이 결합된 지역 강국, 즉 '강성대국'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전략

국가 목표: '강성대국'

북한은 핵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외교 협상에서의 양보는 경멸한다. 북한의 국가전략 형태가

5. 백성원,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하노이 회담 앞서 군부에 핵개발 지침. Voice of America, 2019년 6월 18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4961300>.

6.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20년 3월 19일.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2&menuId=NK_KNWLDG_DICARY.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미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무장국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핵무력을 금전으로 보상받으려는⁷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할리우드식 비디오’⁸를 보여주며 김정은이 ‘비전과 리더십’을 통해 북한을 핵무장이 아닌 경제 번영을 향한 길로 이끌도록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위와 같은 잘못된 믿음의 또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

북한 국가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국력과 영향력이 아닌, 핵 협박을 통한 경제적 및 외교적 보상이라고 보는 관점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⁹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의도를 위장하고 우방뿐만 아니라 적국으로부터도 도움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북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기도 했다.¹⁰

2010년 이후 북한 정권의 공식 성명은 핵 보유에 대한 몰입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최근의 정보 분석과 북한 정권의 성명은 북한 정권이 절대 핵무기나 관련 시설을 전면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정보 기관들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요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¹¹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바보들만이 우리가 사소한 경제원조를 위해 핵억제력을 맞바꾸리라는 망상을 품을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¹²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의 핵무기가 “미 딸라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¹³라고 단언하였다.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와 공격을 모두 지원하는 “믿음직한 방패”¹⁴와 “보검”¹⁵

-
7. Allison, G.T. North Korea's Lesson: Nukes for Sale. *New York Times*, February 12, 2013. <https://www.nytimes.com/2013/02/12/opinion/north-koreas-lesson-nukes-for-sale.html>.
 8. Hamedy, S. President Trump Showed Kim Jong Un This Hollywood-Style Video to Pitch Him on Peace. *CNN*, June 12, 2018. <https://edition.cnn.com/2018/06/12/politics/white-house-singapore-summit-video/index.html>.
 9. Smith, S. (2015a).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10. Nye, J.S. North Korea's Powerful Weakness. *Project Syndicate*, July 11, 2013.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north-korea-s-influence-over-china-by-joseph-s--nye?barrier=accesspaylog>.
 11. Coats, D.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Statement presented before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n January 29, 2019, Washington D.C.: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p. 27.
 12. AsiaOne. North Korea Pledges Not to Abandon Nukes. February 21, 2020. <https://www.asiaone.com/News/Latest%2BNews/Asia/Story/A1Story20100221-199951.html>.
 13. North Korea Economy Watch. 2013 Plenary Meeting of WPK Central Committee and 7th Session of Supreme People's Assembly. April 1, 2013. <https://www.nkeconwatch.com/2013/04/01/2013-plenary-meeting-of-wpk-central-committee-and-supreme-peoples-assembly/>.

의 역할을 한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는 국내, 외교 정책 및 군사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인 것이다.

통치 정당성 제공

전임자들과 달리 혁명 업적과 국정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개인적 위상과 정통성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계승하는 것,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완성시키는 것과 연계해왔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가시성을 고취하고, 최근 몇 년간의 핵능력 발전을 국가 방위에 대한 김정은만의 독점적인 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공식 매체는 미사일 발사를 시찰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북한의 혁신과 성공을 이끄는 선지자이자 원동력이라고 칭송한다.

김정은 정권과 국가의 보전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군사공격 및 정권 교체와 같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핵무력을 정당화한다. 김정은은 핵무력이 "미국이 모험적인 불안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된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한다"¹⁶고 큰소리쳤다. 김정은의 이러한 주장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950개에 달하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려 했던 미국의 정책¹⁷과 유사하다. 해당 시기 미국의 핵무기 위협은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였는데, 이는 북한에게는 불편한 상황이었으나 동시에 유용한 반면교사이기도 했다. 북한은 핵무장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개입을 예시로 활용한다.

14. Yonhap News Agency, N. Korea Says No Plans to Give Up Nuclear Capabilities. May 28, 2013. <https://en.yna.co.kr/view/AEN20130528008400315>.

15. Smith, J. 'Treasured Sword': North Korea Seen as Reliant as Ever on Nuclear Arsenal as Talks Stall. Reuters. November 13,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s-nuclear-analysis-idUSKCN1N1132>.

16. Keating, J. Kim and Trump Don't Mean the Same Thing When They Talk About 'Denuclearization.' Slate. March 28, 2018. <https://slate.com/news-and-politics/2018/03/kim-and-trump-dont-mean-the-same-thing-when-they-talk-about-denuclearization.html>.

17. Kristensen, H.M., & Norris, R.S. (2017).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3, No. 6.

사실 북한 정권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은 북한 내부에서 오는 것으로, 이는 북한 정권의 실패와 잔학성에서 기인한다.¹⁸ 핵무기는 김정은이 성공적이고 강력하며, 따라서 북한 인민들에 걸맞은 지도자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러한 내부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북한의 통제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더욱 강력하고 성공적인 지도자로 비춰질 것이다.

북한의 지역 강국 등극

대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김정은은 북한이 그를 고귀한 지도자로 앞세운 지역 강국으로 비춰지기를 희망한다. 김정은은 다음을 추구한다.

1. 정권 생존 보장 및 절대적인 내부 통제 유지
2. 한반도 지배, 즉 북한 정권 통제하의 통일
3. 1과 2를 달성하고,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 강국으로 부상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스스로를 미국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선언하고자 했다. 이는 김정은이 어떻게 북한을 일제 강점기와 미국의 지배로 점철된 수십 년 역사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지역 국가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¹⁹ 김정은은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이자 미국과 동급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정권이라는 인상을 주고 북한의 ‘굴욕의 세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려 한다. 핵탄두를 장착한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열망이 실현될 경우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응하고 미국에 핵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핵우위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2021년 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²⁰ 미국 본토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미국

18. 한미연구소, 국회의원 태영호 발표, 2020년 12월 17일.

19. 미국의 2018 국방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였으나, 북한은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은 핵, 생물학, 화학, 재래식 그리고 비전통적 무기의 조합 및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가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을 획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권의 생존과 레버리지 증가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a),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Washington, D.C., p. 2] 북한이 추구하는 레버리지 증가의 규모는 북한이 불량 정권이자 수정주의 세력임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의 핵우산은 물론 한미동맹마저 와해시키고, 한국에 대한 지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향후 수십 년 내에 세계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의 계획을 인지하고,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큰 힘을 필요로 한다. 김정은은 북한이 고구려와 같은 과거 왕조가 경험했던 지역 강국의 지위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북한의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이 월등히 나은 삶을 구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한국의 정보를 차단하려 해왔다.²¹ 북한은 항상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북한의 억압적이고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에 비해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로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한국이 “언덕 위 빛나는 도시(Shining City on the Hill)”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통일을 통해 한국을 완전한 통제하에 두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²²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가 북한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립은 생존의 조건이다.”²³ 실제로 북한은 협상과 협력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1)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헌법에 의문이 야기될 수 있고, (2) 북한 내 다수가 한국을 보다 나은 대안으로 여기고, 북한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와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 방어 능력과 의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는 가중되었다. 북한은 미국 본토가 핵위협하에 놓였을 때 과연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려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킴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20. Choe, S.H. Kim Jong-un Vows to Boos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s Leverage with Biden, New York Times. Last updated January 15, 2021. <https://www.nytimes.com/2021/01/08/world/asia/kim-nuclear-north-korea.html>.

21. 북한의 보안 기관은 한국 드라마나 기타 매체를 포함한 DVD 혹은 USB 소지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안 기관의 부패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안원에게 감옥행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뇌물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기사 참조. Baek, J. Why Foreign Information in North Korea Is Such a Big Deal. NK News. October 19, 2016. <https://www.nknews.org/pro/why-foreign-information-in-north-korea-is-such-a-big-deal/>.

22. 최강.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려한다. 중앙일보. 2021년 1월 19일.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1/19/YRRGBFG4WJEYFIZHOTOAZGOLPY/.

23. Lankov, A., & Wang, S. Is the Dream of Korean Reunification Dead? NK News Podcast EP. 162, December 24, 2020.

북한은 한미동맹과 ‘핵전쟁 연습’을 개전 사유(casus belli)로 묘사하여 한미 간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 시 한국의 중립을 유도하려 한다.²⁴ 2017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리종혁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폭제의 핵을 제압하는 정의의 보검이며 우리에게 대한 침략과 도발에 가담하지 않는 한 아시아와 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의 위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²⁵고 언급한 바 있다.

강압외교 강화

북한은 확고한 핵·ICBM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더욱 호전적으로 행동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북한의 요구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협박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국에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연합훈련 철폐를 강요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핵공격 위협으로 일본을 압박하여, 한반도 분쟁 시 미군이 일본의 기지와 항구, 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전쟁수행능력 증강

적대적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상황을 가리키는 한국의 유명한 속담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이다. 핵무기는 ‘새우’로 하여금 훨씬 큰 ‘고래’를 막는 것을 가능케 한다. 핵무기 앞에서 모든 국가들은 평등하다.

핵무기는 연합군의 선제타격 또는 참수공격을 억제하고, 군사대응을 막으며, 침략 계획을 저지하고,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며, 잠재적으로 북한이 자기 방식대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또한 핵무기는 ‘신들의 황혼(Götterdämmerung, 세계의 종말)’, 혹은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죽은 삼손처럼, 궁극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 1993년 김일성은 장군들을 소집하여 미국이 공격하고, 북한이 전쟁에서 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장군들이 망설이자, 김정일이 일어나 “지구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북한이 없는 지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외치며 패배 가능성을 일축했다.²⁶

북한 핵무기의 종류와 양은 북한 정권이 자신의 체급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핵능력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의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개발 초기 북

24. Korea Times. N. Korean FM Claims U.S. Nuclear Threats Result in Pyongyang's Nuclear Development, April 21, 2016.

25. 장용훈. 北리종혁 “美와는 오직 핵으로 힘의 균형 이뤄야”. 연합뉴스. 2017년 11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6033500014>.

26. Kim, H.S. The Secret History of Kim Jong Il. Foreign Policy. October 6, 2009. <https://foreignpolicy.com/2009/10/06/the-secret-history-of-kim-jong-il/>.

핵은 큰 위협이 아니며 협상 카드일 뿐이라고 추정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전략적 지렛대로서 핵 보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전략이 곧 국가전략이라고 가정하는 정반대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의 핵 전략이 국가전략의 중심축이기는 하지만, 핵 전략은 여전히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결과는 '강성대국'이 되는 것이다.

'강성대국' 개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투쟁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마침내 경제강국에 이르러 승리한다는 북한의 비전을 가리킨다.²⁷ 이 개념은 김정운에 의해 국가전략 비전으로 승화된 김정일의 유산이기도 하다.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능력을 활용할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은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비전 중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두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문제는 북한이 경제적 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핵심 동인: 북한의 핵무기

이 절에서는 핵무기가 북한의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논의할 것이다. 북한의 국가전략에는 핵개발, 다수의 핵무기 생산, 생산량의 확대와 다종화, 미 본토 도달이 가능한 사정거리를 지닌 다양한 운반체계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핵무기 대량생산은 북한에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이 아직 공식적인 핵 교리를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미래 핵 태세가 북한이 배치할 핵탄두 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최강과 김기범은 북한의 핵 교리가 핵능력과 함께 진화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보복 태세에서 출발하여 핵무력이 더욱 강력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비대칭성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⁸

실제로 북한이 현재 핵무력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가 있다. 북한이 2018년과 2019년 도발을 자제한 것은 외교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기 보다는 핵무기의 대량생산으로 기존의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²⁹ 당시 북한은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³⁰ 또한 북한은 ICBM과 이동식 발사대(Transporter-erector-launcher, TEL)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화성-15형 ICBM 수용이 가능한 '신리 탄도미사일 생산시설에 관한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³¹

27. 통일부 (2016).

28. Choi, K., & Kim, G. (2017). A Thought on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9, No. 4.

29. Smith, A. North Korea Launched No Missiles in 2018. But That Isn't Necessarily Due to Trump. NBC News. Last updated December 31, 2018. <https://www.nbcnews.com/news/world/north-korea-launched-no-missiles-2018-isn-t-necessarily-due-n949971>.

북한이 핵무력의 양적, 질적 역량을 강화한다면 어쩌면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이후 적들이 확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핵 선제타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³²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이 개발되면서, 북한은 신포급 잠수함이 해상 공격에는 취약하지만 신뢰할 만한 2차타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9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³³에서 새로운 대형 ICBM으로 보이는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공언했고, 이는 2020년 10월 10일의 열병식에서 확인되었다.³⁴

경제 제재와 같은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핵무기가 북한 정권의 전략에서 결정적인 변수임을 증명한다. 북한이 충분한 핵무기를 축적하고 이에 부합하는 운반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 적대국이 북한의 야심 찬 목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역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변수인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하였으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욱 발전하였다. 핵 개발은 북한의 국가전략 추구에 있어 약한 연결고리가 아니다. 반대로, 북한 국가전략의 기반인 것이다.

결정적인 영역: 외교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에는 중대한 위험이 따른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제 조치를 시행하면 북한은 핵무장국 지위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정밀타격무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모두 북한의 핵 우위를 제약하는 대응이다.

핵무기로 인해 동북아의 변방으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서 나오는 영향력과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기존 패턴의 반복으로, 북

30. Gentile, G., YCrane, Y.K., Madden, D., Bonds, T.M., Bennett, B.W., Mazarr, M.J., & Scobell, A. (2019). *Four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Capabilities Drive a Complex Set of Problem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TL-271-A, 2019.

31. Bermudez, J.S. "Sil-li Ballistic Missile Support Facility," *Beyond Parallel*,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y 5, 2020. <https://beyondparallel.csis.org/sil-li-ballistic-missile-support-facility/>.

32. Smith (2015b, pp. 20-21).

33. julesyi@yna.co.kr. "New Satellite Images Show N. Korea's Hidden Submarine Capable of Firing Ballistic Missiles." *Yonhap News Agency*. January 6, 2020. <https://en.yna.co.kr/view/AEN20200106002600325>.

34. NK News. "North Korea Military Parade 2020 -- Livestream & Analysis." *YouTube*. October 10, 2020. 2:08:00 부분 참고.

한의 외교는 항상 핵·미사일 개발 로드맵에 종속되어 있고, 도발 사이클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는 외교가 출구로 활용되어 왔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이은 핵 확장이라는 사이클을 끊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무력시위를 한 다음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발하면 우리는 약간 관심을 가지다가, 어떤 일이 또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³⁵

북한은 외교를 통해 상대방을 끝없는 ‘도발-핵 확장 사이클’이라는 함정에 빠뜨려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해왔다. 이것은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회색지대 전략은 갈등이 전면전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여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가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가리킨다.³⁶ 북한의 핵무력 확장 사이클이 발전속도와 수준면에서 중대한 단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북한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핵능력 보유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지금까지 발생한 이익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보유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단순히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야심을 지지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의 동기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모든 강대국들로부터 완전한 전략적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역사적으로 북한은 자신보다 강한 동맹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³⁷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맹 및 우호 관계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외교가 북한의 국가전략 실현에 있어서 핵심이자 취약점이라는 사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기회이다. 미국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나 외교를 통해 핵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렛대이다. 미국은 관계 정상화가 북한과의 협상을 촉진하는 데에만 유용한 일회용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35. Kerry, J.F. Breaking the Cy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2011년 3월 1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기조 연설.

36. Morris, L.J., Mazarr, M.J., Hornung, J.W., Pezard, S., Binnendijk, A., & Kepe, M. (2019).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RR-2942-OSD.

37. Cheng, X. (2010). The Evolution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1960s. *Asian Perspective*, Vol. 34, No. 2.

북한이 바라는 승리의 길

북한 전략의 세 가지 구성요소, 즉 목표, 핵심 동인, 주요 영역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전략을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북한의 전략은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사·외교 전략 및 목표가 정치·경제 목표보다 우위에 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목표는 정권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군사·외교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 정권은 주요한 목표를 달성하면, 정치·경제적 목표가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표 2.1을 상하로 양분하는 점선은 군사·외교 영역과 정치·경제 영역의 위계적 관계를 나타낸다.

표 2.1에는 북한이 지역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목표와 전략적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능력이 개선되고 중간 외교 목표가 충족됨에 따라(표의 좌에서 우로 이동),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정책옵션 중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핵 강압이라는 선택지를 갖게 된다.

북한 국가전략의 주요 단계는 숫자 1, 2, 3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북한의 전략 이행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겨진다. 4단계는 최종 단계로 북한이 ‘강성대국’이 되는 ‘승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외교 영역에 해당하는 2단계(붉은색)이다.

상단의 회색 화살표는 북한 국가전략의 핵심 동인이자 여기에 신뢰성을 더하는 핵능력의 발전을 가리킨다. 핵개발 로드맵은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북한 국가전략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핵개발 로드맵은 북한이 보유할 핵탄두 수라는 변수에 따라 표기하였다. 2020년 현재 북한 핵능력의 최대 추정치는 핵탄두 50~100개 사이이다.

북한이 수순대로 더 많은 핵탄두를 확보하면 핵능력 보존과 2차 타격능력을 위해 핵탄두를 분산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결합되면 북한의 야망과 목표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2027년이 되어 북한의 탄두 수가 200개에 이르게 되면 (3장 참조),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북한이 한국과 여타 주변국에 대해 자신의 정치·경제적 구상을 강요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현 상황과 전환점(tipping point)

표 2.1에서 현 상황은 1번 “핵 벼랑끝 외교(1단계)”에 설명되어 있다. 이는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린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서 교착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과 부합한다. 북한은 ICBM 실험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암묵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지만³⁸

38. Bennett, B.W.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 Korean ‘Christmas Present,’” RAND Blog. December 24, 2019. <https://www.rand.org/blog/2019/12/stability-in-northeast-asia-and-the-north-korean-christmas.html>.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019년에 25발, 2020년에는 9발을 추가로 발사하였는데³⁹ 이는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운반 수단 개발에 매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난제에 직면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⁴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 생산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⁴¹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차원의 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관련, 그가 김정은과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⁴²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만약 미국 정부가 압박이 아닌 대화를 선택한다면, 북한은 현 단계(1번)에서 외교정책의 두 번째 단계(2번)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 수준의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제안했던 것처럼 미국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다수의 낙후된 핵시설 해체를 제안할 수도 있다.

협상 진전이 부진한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욱 점진적인 접근법을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다.⁴³ 보다 유화적이고 점진적인 대북 접근법을 옹호하는 이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평양에서 외교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⁴⁴ 이 지점이 바로 케리 상원의원이 북한 도발 사이클의 함정이라고 묘사한 부분이다.

39. Nuclear Threat Initiativ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 October 16, 2020; and UN Security Council. (2020, March 2).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64*, New York, S/2020/151, pp. 69–71.

40. 2018년 초, 미국은 사실상 동결 협정을 받아들였다. 김정은은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대신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략을 취소하고 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8). *The Korean Peninsula Crisis (II): From Fire and Fury to Freeze-for-Freeze*. Brussels, Belgium, Asia Report No. 294.

41. Shin, K. North Korea Scoffs at Another Summit with Trump. JoongAng Daily, July 5, 2020.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7/05/national/northKorea/north-korea-choe-sonhui-refusal/20200705171100439.html>.

42. Sanger, D.E., & Choe, S.H. Two Years After Trump-Kim Meeting, Little to Show for Personal Diplomacy. New York Times, June 12, 2020. <https://www.nytimes.com/2020/06/12/world/asia/korea-nuclear-trump-kim.html>.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기 전 북한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려 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측은 미국 측 협상 담당자들이 북한 측 핵 전문가들과 만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43. Baik, S. Experts: Step-by-Step Approach Needed in Denuclearization Deal with North Korea. Voice of America, June 25, 2019b. <https://www.voanews.com/usa/experts-step-step-approach-needed-denuclearization-deal-north-korea>.

표 2.1.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북한 국가 목표의 변화

분야별	핵·미사일 체제 발전		국가 목표
핵무장 상태	핵탄두 수: 50 < X < 100 ^a 운반 체계: MRBMs, IRBMs, SLBMs		핵탄두 수: 200 ^b 운반 체계: MIRV 탑재 ICBMs 및 TBMs
군사	“확증보복에 의한 억제” • ICBM 능력 개발 • SLBM 탑재한 탄도미사일잠수함을 갖춘 2차 타격 능력 확보 “하이브리드전” •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및 재래 무기 감축 • 정보전 능력 강화		“핵무장국” • 수십 개의 MIRV 탑재 ICBM 전면 배치 • 확장 억제 및 한미동맹 와해 • 한반도 주변의 미국 개입에 대한 A2/AD 전략실행
외교	“핵 베풀기 외교(1단계)” •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비핵화’ 외교를 방해 • 더 이상 실패한 국가가 아닌 북한에 대한 국제적 존중	“핵 베풀기 외교(2단계)” • 미국에 ‘점진적 비핵화’ 수용 강요 • 미북 평화회담 착수 •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 미국의 제재 완화 유도를 위한 일부 낙후된 시설 해체	“지역 강국” • 미북평화협정 •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최소화 • 미북 간 군축 협정 • 북한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다는 미국의 확약 획득 •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전략적 자율성 • 제재의 완전한 해제
경제	“새로운 길(1단계)” • 중국의 지원과 전략적 지지에 대한 의존 수용 • 경제 압박을 견디기 위한 구조조정	“새로운 길(2단계)” • 부분적 제재 완화 • 남북 경제협력 재개 • 중국과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 대북지원	“기생적 착취(parasitic exploitation)” • 한중일에 북한과의 특혜무역 및 특혜 투자협정 체결 강요 • 배급제 및 중앙계획경제 재건
정치	“국가적 품격고취와 선전(1단계)” • 김정은의 정통성 및 지배력 강화 • 더 이상 실패한 국가가 아닌 북한에 대한 국제적 존중 획득 (예: 미북정상회담)	“국가적 품격고취와 선전(2단계)” • 미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한 완전한 국제적 존중 공고화 • 부분적 제재 완화 및 남북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지지 강화	“1국가 2체제” • 한국에 공산당 합법화 강요 • 괴뢰 정당을 통한 한국의 내정 및 대외정책 간섭 • 한국의 북한 보호령화 ^c

3

1

2

4

참고: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反)접근·지역거부; 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탄도미사일;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MRBM(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준중거리탄도유도탄;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TBM(theatre ballistic missile): 전역 탄도 미사일. 두 번째 열의 회색 화살표는 핵능력을 나타낸다. 1, 2, 3으로 표시된 영역은 북한 국가전략의 핵심 단계들로, 북한의 전략적 이행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긴 것이다. 붉은 색 영역은 외교 영역의 2단계로,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나타낸다. 4번으로 표시된 영역은 마지막 단계로, 북한의 ‘승리’를 나타낸다. 회색 영역은 북한이 원하는 최종 상태를 나타내며, 위에 위치한 항목과 좌측 항목이 달성된 결과에 해당한다.

a 북한은 2020년 기준 최소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 2027년 예상 핵탄두 보유.

c 실제 통일은 지나치게 위험.

일정기간 갈등이 고조된 후 북한이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되면, 양측은 협상에 돌입하는데 이 점에서 북한은 긴장 완화의 대가로 핵능력 강화를 통해 확보한 이득을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이 핵무장국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북핵에 대한 인정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재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해제를 수반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국가전략의 상승 전환점, 즉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핵능력을 억제력 강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티핑포인트에 이어지는 단계는 표의 4번 영역에 해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무장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실상 지역 강국이 되고 북한의 전략적, 정치적 구상을 주변국, 특히 한국에 강요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핵보유국 인정은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잠시 거쳐가는 단계이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

북한에게 ‘비핵화’ 개념은 CVID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⁴⁵ 실제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 감축을 대가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전체의 비핵화’에는 일본으로부터 미국의 핵무산을 제거하는 것 또한 포함될 수 있다.⁴⁶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미국 역내 영향력의 전반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미국에 먼저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방위공약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⁴⁷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조차도 지속가능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은 더 크

44. Clapper, J. Ending the Dead End in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y 19, 2018. <https://www.nytimes.com/2018/05/19/opinion/sunday/clapper-north-korea.html>.

45. 조상진. 미 전문가들 “북한의 군축협상 시도 일축해야”. Voice of America. 2019년 10월 5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5109659>.

46. Fifield, A. North Korea'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rump's. Washington Post. April 9,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orth-koreas-definition-of-denuclearization-is-very-different-from-trumps/2018/04/09/55bf9c06-3bc8-11e8-912d-16c9e9b37800_story.html.

47. Chun, I. B. The Future of the UN Command. 38 North. September 12, 2017. <https://www.38north.org/2017/09/ibchun091217/>.

고 강력한 상대, 즉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며 도발과 거친 수사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강압외교를 구사할 것이다.⁴⁸ 이 전략은 북한의 외교 도구 상자에 포함된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비타협성과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접근으로 인해 북한의 CVID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간 상호 군축협정이 지지를 받고 있다.⁴⁹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ICBM과 관련 설비 및 기술을 제거하지 않은 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역내 미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⁵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퇴보할 것이라는 인식은 예상보다 더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미 육군 대학원(U.S. Army War College)이 발표한 보고서는 당시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추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임무(mission profile)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⁵¹ 이러한 조정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⁵²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김씨 일가의 오래된 목표이다.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은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일성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적인 수단이든 폭력적인 수단이든 김일성 주도하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다.⁵³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약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로 인한 주의력 분산, 그리고 꺾끄러운 상대(북한)와 조기에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 등은 북한을 '단순한' 핵무장국에서 지역 강국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다음 북한은 핵억제력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북한은 심지어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국의 불간섭을 골자로 하는 북한판 “먼로 독트린”을 선포할 수도 있다.

48. Kim, Y. (2002). North Korea's Use of Terror and Coercive Diplomacy: Looking for Their Circumstantial Variant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4, No. 1.

49. Baik (2019b).

50. Smith, S. Renewing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gainst North Korea. 38 North, May 13, 2020. <https://www.38north.org/2020/05/ssmith051320/>.

51. Freier, N., Schaus, J., & Braun, W. (2020).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US Army Theater Design*,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nd US Army War College Press.

52. 김동현. 미 전문가들, 주한미군 관련 육군대학원 보고서에 엇갈린 반응. *Voice of America*. 2020년 7월 31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fk-review>.

53. Oberdorfer (1997, p. 94).

북한의 목표와 한국의 최악 시나리오: '강성대국'

북한은 미국과의 군축협정 및 관계 정상화를 거쳐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자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이다. 수사적으로 이미 북한 정권은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가 한국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⁵⁴ 그러나 북한 정권이 경제발전이라는 수수께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하는 한 핵무장은 북한에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 위협이 어느 정도 해소되더라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경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핵보유를 인정받고 역내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한국을 겨냥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월성을 활용해야만 만성적인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와 관련하여 한국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과도하게 유화적인 한국의 대북 태도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경제적 착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착취적 경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지만, 한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퍼주기'에 열성적이다. 이미 충분한 전례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식량, 비료 및 기타 자재를 포함한 14억 달러 상당⁵⁵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약 9억 3천만 달러의 금전적 지원⁵⁶을 제공했다. 한국은 평화체제가 수립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북한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교역 조건 및 투자로 위장한 현금 투입 등을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는 '평화 배당(peace dividend)'으로 합리화될 것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분단 체제라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북측에 돈을 지불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⁵⁸

북한은 기생적인 경제 관계를 또 다른 이웃국가인 일본과의 사이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미국의 암

54. 문관현. 北통신 “핵무력, 동족 겨냥 아니다...철저히 미국 겨냥”. 연합뉴스. 2018년 2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4054300014>.

55. 2020년 환율 기준.

56. 김당. [단독] 대북 차관 1조617억원...北, 한푼도 안갠다. UPI뉴스. 2020년 6월 19일.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6190071>.

57. Grover, J.D. Engagement First: Why Some Koreans See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as the Solution to North Korea. National Interest. May 11, 2020.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engagement-first-why-some-koreans-see-peacemaking-and-peacebuilding-solution-north>.

58. 이정은. 통일비용, 천문학적이라고? 전문가들 “분단비용 고려해야”. 한국일보. 2018년 5월 2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021274628429>.

목적 인정은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토록 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일본 역시 곧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북한에 일제강점기의 폭정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2년 북일 간의 협상이 있었을 때 일본은 북한에 대해 50억~100억불 상당의 '경제 지원 패키지' 제공을 고려했었다.⁵⁹ 인플레이션과 북한의 핵능력을 감안했을 때, 오늘날의 경제 지원 패키지는 2002년보다 몇 배 더 커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유리한 한국 및 일본과의 무역 및 경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북한은 한국 및 일본의 양보를 지렛대로 중국으로부터 더욱 유리한 경제 혜택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천연자원 수입뿐만 아니라 원유 및 정제유 제공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것이다. 북한은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지향하는 지점이다.

전략적 입지 강화로 북한은 한국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약화 혹은 완전한 해체를 요구할 것인데 그 시점에서 동맹은 이미 북한의 핵무장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인정으로 인해 해체 위협에 처해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한국이 법적, 정치적 구조를 바꾸어 기존의 친미 성향의 글로벌 국가로부터 고립적 민족주의 국가로 전환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한국 내 공산당의 합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의 탈북자 단체에 대한 조치⁶⁰가 보여주듯, 한국이 남북관계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이 북한에 더욱 저자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어떻게 북한의 국가전략을 저지할 것인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무력을 갖추도록 내버려 둘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북한의 계획에는 중대한 약점이 하나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되는 것과 지역 강국으로 승격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이 핵무장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⁶¹가 있지만, 북한이 지역 강국이 되려면 미국의 명시적 인정이 필요하다.

59. Manyin, M. E. (2002).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e Normalization Talks and the Compensation/Reparations Issue*,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RS20526.

60. Kim, J., & Ksulis, K. South Korea Revokes Corporate License for Two Defector-Led Activist Groups. NK News, July 17, 2020. <https://www.nknews.org/2020/07/south-korea-revokes-corporate-license-for-two-defector-led-activist-groups/>.

61.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군사적 압박에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맹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주로 북한과 상호 합의가 가능한 비핵화 일정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촉매제로 외교적 양보(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를 활용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북핵 해결책과는 정반대된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마중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⁶²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가 장기적 상응조치로 이어진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현직 미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과 한 차례 회동이라는 일방적인 외교적 양보를⁶³ 허용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 및 핵무력 감축을 통한 CVID 로드맵 이행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완화 또는 관계정상화를 통한 외교적 인정 같은 외교적 양보를 허용해선 안된다.

북한의 국가전략은 핵능력이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완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미국의 인정 없이는 북한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적 영향력은 감소되고 제한된 수준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선 순위는 외교적 양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상황이 허락할 때 효과적이고 강압적인 사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해왔다. 핵무기는 북한의 장기 전략에서 부차적인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 기반이다. 따라서 북한의 장기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은 ‘그림의 떡’ 같은 비핵화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 조치로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함으로써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한국, 미국, 그리고 동맹의 대북정책은 이미 입증된 이 명제를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1) 전시작전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전환을 유예하고, (2) 탄도미사일 방어 및 기타 형태의 방어 체제(제5장 참조)를 구축함으로써 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 대응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면 한국은 자체 핵무기 능력 개발과 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엄중한 억제력 조치와 핵무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북한 지도부는 결국 핵무기가 북한을 강국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도리어 동북아의 한 빈곤한 변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가 시작될 수 있다.

62. Hankyoreh, S. Korea-US Joint Exercises Need to Be Delayed to Enable Bold Change in Inter-Korean Dialogue. July 22, 2020.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nglish_editorials/954774.html.

63. 다수의 북한을 다룬 경험이 있는 숙련된 협상가들이 단순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거저 주어져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선물이며, 북한의 비핵화 관련 의미 있는 양보를 확보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에 반대했다.

3.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현재, 그리고 2027년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에게 지난 수십 년간 주요한 정책적 도전 과제로 자리매김해왔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은 역내에 끼치는 위협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 입증된 북한의 ICBM 능력으로 인하여 북한의 주변국과 미국에게 명백하고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미국 동맹국들에게는 확산의 위협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본 장은 2020년대 후반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위협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구체적 시점은 2027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장은 2027년경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다룬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 활동을 근거로 북한의 실제 핵무기 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그간의 북한 핵실험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기반하여 핵무기의 폭발 위력(yield)을 파악해본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사일 탑재부(payload)에 핵탄두를 결합하였는지에 관하여 명백한 물증은 없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근거에 기반하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통해 투발할 수 있는 핵탄두를 생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증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통해 투발할 수 있는 핵탄두는 고농축우라늄탄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종류에는 스킵드-B/C/D/ER,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화성-12/14/15 미사일 등이 있다. 열거된 미사일은 핵탄두의 크기와 중량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사일의 성능에 대하여는 본 장의 미사일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현 핵무기 보유량과 향후 전망을 다룬다.

북한의 핵무기: 배경과 능력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추정 보유량과 성능에서 진일보한 발전을 이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래 전력 또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보듯이 발전하였다. 북한의 핵능력은 지난 1992년 미국의 정보당국에 의해 핵무기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래 계속 발

전되어 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북한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또한 2006년부터 북한이 실시해온 핵실험 내용을 토대로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며, 일부는 미국 본토까지를 사정거리에 둔 핵탄두를 개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살펴본다.

북한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1986년 구소련이 영변(평양 기준 북쪽)에 5MWe급 원자로를 완공한 시점부터 본격화됐다. 연구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구소련은 북한에 영변 원자로에서 생산된 핵분열 물질의 무기화 기술을 전수하지는 않았으며 북한은 무기화 관련 기술의 대부분을 독자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¹ 1992년에 이르러 북한이 영변 시설에서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촉발된 제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로 봉합되었다.² 그러나 제네바 합의가 서명되고 있는 순간에도 북한은 파키스탄과 노동미사일의 제공을 대가로 우라늄 농축 기술과 기타 기술을 전수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다.³ 이러한 거래는 1994년 무렵 시작되어 2002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는 ‘미사일과 핵무기의 거래(nukes for missiles)’라고 명명되었으며, 실제 내용이 그러했다.⁴ 2002년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농축우라늄 핵무장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였으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영변 시설을 재가동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행기간 동안 파키스탄과 핵협력을 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지만, 2002년 시점부터 ‘동결(frozen)’ 상태가 명실상부한 ‘비동결(unfrozen)’ 상태가 되었다.⁵

-
1. Katherine Malus 및 Hilary Huaici 참조: Malus, K. & Huaici, H. How North Korea Got a Seat at the Nuclear Table. Center for Nuclear Studies. July 13, 2018. 이와 관련하여 익명의 고위급 탈북자는 북한이 1990년 초 수십여 명의 러시아 핵무기 공학자의 조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제네바 기본합의와 합의서의 타결을 이끌어 낸 활동들에 관해서는 Lewis, J. Revisiting the Agreed Framework. 38 North. May 15, 2015b 참조. <https://www.38north.org/2015/05/jlewis051415/>.
 3. 자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폭발에 필요한 동위원소인 uranium-235의 존재비가 불과 0.7%에 불과하다. 상업원자로 용도를 위해서는 uranium-235의 함량을 3~5%로 높여야 (농축) 하며, 핵무기 용도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여야 한다.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ranium Enrichment. Last updated December 2, 2020 참조. <https://www.nrc.gov/materials/fuel-cycle-fac/ur-enrichment.html>.
 4. Ramani, S. The Long History of the Pakistan-North Korea Nexus. The Diplomat, August 30, 2016. <https://thediplomat.com/2016/08/the-long-history-of-the-pakistan-north-korea-nexus/>.
 5. 북한의 합의 위반에 따른 제네바 합의의 파기에 관해서는 Pritchard, C.L. A Guarantee to Bring Kim into Lin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10, 2003. 참조.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0.5KT에서 1KT 사이에 불과하였다. 불과 3년 후인 2009년에는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는데 당시 폭발 위력은 4KT 가량이었다.⁶ 2013년 2월 실시한 제3차 지하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6KT에서 7KT 사이로 추정된다.⁷ 제3차 핵실험은 당시까지 감행한 실험들 중 가장 높은 위력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출처에 따르면 이란 정부관계자가 현장을 참관하였다.⁸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최소한 2006년 이후로는 미사일을 통해 투발이 가능한 500kg 중량의 고농축우라늄탄의 설계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당시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으로 가장 유력한 종류는 노동미사일로, 탑재 탄두는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설계된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1990년 중반부터 2002년 무렵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북한으로부터 노동미사일을 획득하였다.⁹ 이란은 파키스탄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 기술을, 북한으로부터는 노동미사일을 수입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이란 관리들이 2009년과 2013년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에 참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핵실험 규모는 제3차 핵실험과 유사하였음에도 북한은 이것이 '수소폭탄(hydrogen weapon)'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실험이 핵능력의 획기적인 진전이라 할 만한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했다.¹¹ 북한은 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국 내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인, 전 로스앨러모스 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소장을 역임했던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5차 핵실험의 위력이 15KT에서 25KT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¹² 이는 서울에 투하될 경우 45만명에서 63만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는 규모

-
6. 북한의 첫 2회 핵실험에 관해서는 Fitzpatrick, M. (2012). North Korean Proliferation Challenges: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Stockholm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Non-Proliferation Paper No. 18. 참조.
 7. "N.Korea Resumes Tests for Smaller Missile Warheads," Chosun Ilbo, February 26, 2015.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6/2015022601825.html.
 8. Times of Israel. Iranian Nuke Chief Was in N. Korea for Atomic Test. February 17, 2013. <https://www.timesofisrael.com/iranian-nuke-chief-was-in-n-korea-for-atomic-test/>.
 9. Gertz, B. Report: N. Korea Has Nuclear Warheads for Missiles. Washington Free Beacon, May 5, 2014. <https://freebeacon.com/national-security/report-n-korea-has-nuclear-warheads-for-missiles/>; Lewis J.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Great Miniaturization Debate. 38 North, February 5, 2015a. <https://www.38north.org/2015/02/jlewis020515/>; Wolf, J. N. Korea Closer to Nuclear-Tipped Missile - U.S. Expert. Reuters. December 27, 2011. <https://www.reuters.com/article/korea-north-nuclear/n-korea-closer-to-nuclear-tipped-missile-u-s-expert-idINDEE7BR00M20111228?edition-redirect=in>.
 10. Niksch, L.A. (2010).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3590.

이다.¹³ 이는 북한이 당시 시점까지 실시한 핵실험의 위력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다시 한번 북한이 핵무기 위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¹⁴

2017년 9월 북한은 지금까지 있어온 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을 단행하였다. 당시 실험의 지진파 규모에 대한 초기 측정값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향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50KT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⁵ 북한은 시험 하루 전 김정은이 2단계 열핵폭탄 장치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사진을 배포했는데 북한은 이를 통해 세계에 6차 핵실험의 의미를 알리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시 사진 속 배경에 화성-14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식별하였다. 북한은 해당 시험이 “열핵폭탄 장치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열핵폭탄 장치는 미국과 한국을 표적으로 하여 ICBM 또는 전구미사일에 탑재되어 발사될 경우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250KT급 핵탄두 미사일이 뉴욕과 서울에서 폭발할 경우 각 2,900만여 명 및 3,200만여 명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¹⁶ 각종 증거와 자료에 따르면 향

-
11. Hansen, N., Kelley, R., & Puccioni, A. North Korean Nuclear Programme Advances. Janes. March 30, 2016; Mugford, W., & Liu, J.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Facility: New Activity at the Plutonium Production Complex. 38 North. September 8, 2015. <https://www.38north.org/2015/09/yongbyon090815/>; Yonhap News Agency. N. Korea Digging New Tunnel at Its Nuke Test Site: Official. October 30, 2015. <https://en.yna.co.kr/view/AEN20151030002800315>; BBC.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How Advanced Is It? Last updated August 10, 2017. <https://www.bbc.com/news/world-asia-pacific-11813699>; Pearson, J. North Korea Nuclear Blast Shows 'Uncanny Resemblance' to Last Test - Analyst. Reuters. January 8, 2016. <https://www.reuters.com/article/northkorea-nuclear-seismic/north-korea-nuclear-blast-shows-uncanny-resemblance-to-last-test-analyst-idUKKBN0UM0KY20160108>; Shalal, A., Brunnstrom, D., & Landay, J. North Korea Nuclear Test Did Not Increase Technical Capability: U.S. Reuters. January 19, 2016.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nuclear-usa-idUSKCN0UY042>.
 12. Vartabedian, R. North Korea Has Made a Nuclear Weapon Small Enough to Fit on a Missile. How Worried Should the World Be? Los Angeles Times. August 9, 2017. <https://www.latimes.com/world/la-fg-north-korea-nuclear-bomb-20170809-story.html>.
 13. 인명피해 추산은 NUKEMAP 2 온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되었다. 프로그램은 각 15KT급 무기와 25KT급 무기가 지정된 서울 도심의 장소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공중 '폭발(optimal airburst)'된 상황을 가정하였다. Wellerstein, W. NUKEMAP 2.7 tool, last updated 2020.
 14. Kang, J., & Kang C.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Strongest Yet. JoongAng Daily, September 9, 2016.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6/09/09/politics/North-Koreas-fifth-nuclear-test-strongest-yet/3023659.html>; Foster Klug F., & Kim, T. Rhetoric or Real? N. Korea Nuclear Test May Be a Bit of Both. Associated Press. September 10, 2016. <https://apnews.com/article/f9234cbd0efa4d3caafcbebc88e16576>.
 15. Pabian, F.V., Bermudez, J.S., & Liu, J. North Korea'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Satellite Imagery Shows Post-Test Effects and New Activity in Alternate Tunnel Portal Areas. 38 North. September 12, 2017. <https://www.38north.org/2017/09/punggye091217/>.

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2006년 이후와 같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2020년에 비해 규모와 위력면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핵무기 운반: 증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량

한 국가의 핵무장은 핵무기 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위협을 가하려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어야만 한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북한은 1990년 초부터 핵무장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주된 쟁점은 과연 북한이 어떤 수단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 일본, 미국에 투사할 것인가였다. 북한의 선택은 탄도미사일이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을 다루기로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탄도미사일을 투발수단으로 하여 미국 또는 미국의 우방국을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다른 수단의 핵공격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논의는 학술문헌과 정부자료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례로 북한은 조잡한 핵장치를 외관상 의심스럽지 않은 저인망 어선 또는 녹슨 화물선에 적재하여 한국 부산항, 일본 도쿄만,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또는 버지니아 노퍽 등으로 이동시켜 항구에 진입한 후 핵장치를 폭발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핵공격은 한번의 폭발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 여길 수 있으나 북한이 교묘한 방식의 선박 국적 변경 행위를 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규모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연간 수백 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수십여 번에 걸쳐 자국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고 있다. 북한은 선박의 국적 변경을 금지시킨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불법무기와 불법물품을 확산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¹⁷ 북한이 이같은 범죄수법을 활용할 경우 지금까지 별다른 의심없이 불법화물을 적재한 북한 선박의 기항에 이용된 항구에도 핵무기를 적재한 선박을 입항시킬 수 있다. 이

16. 본 사상자 추산치는 NUKEMAP 2 온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집계되었다. 프로그램은 250KT급 무기가 지정된 뉴욕과 서울 도심의 장소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공중 폭발(optimal airburst)' 된 상황을 가정하였다. Wellerstein (2020) 참조.

17.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Advisory on North Korea's Us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FIN-2017-A00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ovember 2, 2017; Hulina, J. Nothing If Not Persistent: North Korean Exploitation of Fijian and Cambodian Flags at Sea. Arms Control Wonk Blog, August 11, 2020. <https://www.armscontrolwonk.com/archive/1209892/nothing-if-not-persistent-north-korean-exploitation-of-fijian-and-cambodian-flags-at-sea/>; Perlangeli S. Flagging Down North Korea on the High Seas.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March 29, 2018. <https://rusi.org/commentary/flagging-down-north-korea-high-seas>.

경우 해당 선박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북한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표 3.1과 같이 다양한 종류와 충분한 수량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로 북한은 1970년 후반부터 이집트의 원조를 바탕으로 구소련 설계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해 왔다.¹⁸ 과거 북한은 스커드-B 미사일을 수입해왔으나 1970년 후반부터 스커드-C/D/ER(extended range, 사거리 확장)을 제조, 시험, 배치, 확산하고 있다. 스커드형 미사일은 한국 영토의 거의 모든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¹⁹ 1993년 북한은 일본 도쿄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최소 1,500km의 노동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하였다. 북한은 이 미사일 또한 제조, 배치, 확산하였다.²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4년에는 무수단 미사일(당시에는 ‘대포동 X’로 명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000km로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란에 수출되기도 했다.²¹ 2019년부터 북한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Iskander)’ 계열로 보이는, ‘KN-23’로 명명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고체연료 기반의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700km이다.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보유한 대다수의 미사일에 비해 더욱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핵탄두도 탑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조악한 스커드 미사일에 비해 KN-23 미사일은 미사일방어 체계의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²² 열거한 미사일 모두가 이동형 미사일로,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발사가 가능함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이들 미사일 중 다수가 하단의 표 3.1에서 보듯이 핵탄두 투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언급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역내 국가들에게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화성-12’로 명명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500km로 수차례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거쳤다. 화성-12는 북한이 ‘화성-14’로 명명한 2단 분리형 미사일 중 1단 추진 로켓에 해당된다. 화성-14의 사정거리는 6,700km에 달하여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화성-12를 1단 추진 로켓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미사일은 화성-15로 사

18. Nuclear Threat Initiative, Module 4: Case Study: North Korea's Scud Story.

19. Posto, T.A. (2018.)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nd US Missile Defense. *Physics & Society*, 47 (2).

20. Vick C. Nodong.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October 20, 2016. <https://fas.org/nuke/guide/dprk/missile/nd-1.htm>.

21. Wertz, D. (2017).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2. Brumfiel, G. North Korea's Newest Missile Appears Similar to Advanced Russian Design. NPR, May 8, 2019. <https://www.npr.org/2019/05/08/721135496/north-koreas-newest-missile-appears-similar-to-advanced-russian-design>; Military-Today.com, Iskander, <http://www.military-today.com/missiles/iskander.htm>.

표 3.1. 북한의 탄도미사일

서구식 명칭	북한 내 명칭	연료 종류 (액체·고체)	사정거리(km) ^a	핵탄두 탑재 가능여부
KN-02	화성-11	고체	120-170	X
KN-09	?	고체	200	X
스커드-B	화성-5	액체	300	O
스커드-C	화성-6	액체	500	O
KN-18 (MaRV)	?	액체	450+	알 수 없음
KN-24	?	고체	450	X (추정)
KN-25	?	고체	400	X (추정)
KN-23	?	고체	700	O
스커드-ER	화성-9	액체	1,000	O
KN-11	북극성-1	고체	1,200	O
노동	화성-7	액체	1,500	O
KN-15	북극성-2	고체	1,200-2,000	O
KN-26	북극성-3	고체	1,900	O
무수단	화성-10	액체	2,500-4,000	O
KN-17	화성-12	액체	4,500	O
KN-08	화성-13	액체	9,000	O
KN-14	?	액체	6,700	O
KN-20	화성-14	액체	10,000+	O
KN-22	화성-15	액체	12,000	O
KN-26	화성-15a?	액체	13,000?	O

출처: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North Korea, March 2019;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issiles of North Korea. Last updated November 30, 2020.

참고: MaRV = 기동성 재진입체(maneuvering reentry vehicle).

a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미사일에 실린 탑재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거리가 12,000km에 달하여 미국 본토 서부의 어느 곳이라도 손쉽게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화성-15보다 더 발전한 형태의 미사일의 공개 하였는데, 이는 길이가 더 길고, MIRV 기술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의 제 원과 MIRV 기술은 지금껏 명백히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이 새로운 형태의 ICBM은 그 규모로 볼 때 화성-15 미사일의 개량형일 수 있다.²³ 앞서 설명한 미사일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

며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몇몇 형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²⁴

이외에도 북한은 4종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극성-1’과 ‘북극성-3’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로서 한국 전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공개하였는데,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고체연료 미사일 3종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²⁵

일부 학자들은 북한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있었으나 어느 쪽도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한 전문가는 대기권에 진입한 화성-14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미사일이 하강하는 도중에 분해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장의 근거는 불확실하였으나 이 내용은 우려를 자아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북한이 이미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적으로 완성에 근접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²⁷ 이러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태평양의 빈 공간을 표적으로 시험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발사는 실행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규모의, 성능이 개량된 신형 화성-15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관찰되었다. 비록 북한이 지금까지 MIRV 기술을 대외에 시현한 적은 없지만, 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2단 로켓은 필요시 MIRV 기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기존 화성-15에 비해 조금 더 긴 사정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을 작성하는 시점에 해당 미사일의 제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다.²⁸ 북한은 2027년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ICBM의 사정거리와 정확도 그리고

23. Choe, S. North Korea Unveils What Appears To Be New ICBM During Military Parade. *New York Times*. Last updated January 13, 2021. <https://www.nytimes.com/2020/10/10/world/asia/north-korea-icbm.html>.

24. 화성-12형/14형/15형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평가는 Elleman, M. The New Hwasong-15 ICBM: A Significant Improvement That May Be Ready as Early as 2018. 38 North, November 30, 2017 참조. <https://www.38north.org/2017/11/melleman113017/>.

25. Barrie D., & Dempsey, J. (2020). What North Korea's Latest Missile Parade Tells Us, and What It Does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Kim, H. North Korea Says Underwater-Launched Missile Test Succeeded. Associated Press. October 3, 2019. <https://apnews.com/article/d6a459d8c4774153ad71de95e9effea0>.

26. Johnson, J. NHK Video Casts Doubt on North Korean ICBM Re-Entry Capabilities and Effectiveness. *Japan Times*. August 1, 2017.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7/08/01/asia-pacific/nhk-video-casts-doubt-north-korean-icbms-re-entry-capabilities/>.

27. Acton, J, Lewis, J., & Wright, D. (2018). Video Analysis of the Reentry of North Korea's July 28, 2017 Missile Tes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위력을 크게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국과 우방국에게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이란, 시리아, 이집트 등의 국가를 비롯하여, 심지어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 등의 세력에게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²⁹ 이외에 북한은 이란에 화성-12를 비롯해 이를 화성-14 및 화성-15와 유사한 2단 분리형 ICBM으로 개량하는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³⁰

핵물질 보유량: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북한의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추정은 핵능력과 위협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플루토늄은 폐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고농축우라늄은 농축을 통해 생산된다. 2017년 중순경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해당 핵물질 보유량의 기준치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30개에서 60개 사이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³¹ 한미 양국이 이러한 규모의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미 국가정보국 선임 북한정보분석관은 “북한 외교의 관여 시도는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평가하였다.³² 이 절에서는 미국이 대응해야 할 위협의 대상인 2027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추정하였다.

플루토늄

플루토늄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설계 제원, 핵연료 특성, 원자로 가동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영변 5MWe급 원자로의 설계 제원과 핵연료 등 일부 특성은 과거 핵사찰을 통해 알려졌다. 원자로 가동기간은 위성 감시를 통해 추정되었다. 원자로 냉각탑으로부터 분출되는 증기는 원자로의 가동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재처리 시설의 가동은 열징후(thermal signature)와 위성사진상의 시설 주변 활동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해커 박사는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kg에서 39.6kg 사이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재처리 과정에서의 플루토늄의 일부 손실량과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한 플루토늄 제조·소모량

28. Barrie and Dempsey (2020).

29. Bechtol, B.E. (2018.) *North Korean Military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Enabling Violence and Instability*.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pp. 80-137. 참조.

30. Bechtol, B.E. (2020). North Korea, China, and Iran: The Axis of Missiles? National Interest.

31. Albert (2017).

32. Volodzko (2021).

을 가정한 수치였다.³³ 올브라이트(Albright)는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3.2kg에서 37.3kg 사이로 추산한 바 있다.³⁴

최근 한국에서 출판된 한 보고서의 모의 원자로 연소도를 바탕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계산해보면 2018~2019년 북한의 핵무기급 플루토늄의 누적량은 표 3.2와 같이 9.12kg에서 23.65kg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³⁵ 이 추산치는 북한이 해당 기간 동안 영변의 5MWe 원자로에서 생성된 폐연료 전량을 재처리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해커 박사의 계산대로 북한이 2016년 시점까지 보유한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kg으로 볼 경우, 2019년 말 북한의 총 플루토늄 보유량은 30~63kg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원자로 가동 기간, 원자로의 출력수준, 재처리 공정의 효율 등과 관련된 여러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북한이 2019년에 폐연료 재처리를 했을 경우, 앞서 언급한 2017년 핵무기 추정 보유량에서 1~2개를 더해야 할 것이다.

표 3.2. 2018·2019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 추정치

원자로 가동기간	재처리 기간	플루토늄 생산량
2015~2018	2018	5.3~13.8kg
2018~2019	2019	3.8~9.9kg

고농축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량을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데, 북한의 연간 고농축우라늄 생산·보유량은 원심분리기의 개수와 효율성에 기반한 농축 능력을 통해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시설은 건설과 운영 시 물리적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을 뿐더러 쉽게 은닉될 수 있다. 또한 탄소섬유(carbon fiber) 개발 등 핵물질 관련 기술을 통해 고농축우라늄의 보유량을 대폭 증대할 수 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주요 핵무기 생산 물질은 고농축우라늄으로서,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산이 플루토늄에 비해 훨씬 더 중요

33. Hecker, S.S., Braun, C., & Lawrence C. (2016), North Korea's Stockpiles of Fissile Material, *Korea Observer* 47 (4).

34. Albright, D. (2017).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PowerPoint Slide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35. 황주호 (2019). 핵비확산·핵안보 측면의 주변국 핵 위협 위기관리 대응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하다.³⁶ 지난 2010년 11월, 북한 과학자들은 해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였고, 해당 시설에 2천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구비하였다고 언급하였다.³⁷ 북한의 과학자들은 또 영변의 농축 시설이 완공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경수로 사용 용도로 3.5%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³⁸ 북한은 또한 해당 시설의 연간 농축능력은 8,000kg-SWU라고 언급하였다.³⁹ 만일 북한이 해당 시설을 개조하여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경우,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통하여 연간 40kg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⁰ 해당시설의 농축능력에 대한 계산 값은 2010년 관측된 사항과 해당 시설이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로 개조될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었다. 2012년 올브라이트(Albright)는 북한이 1천개 원심분리기당 4.17kg에서 17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계산 값의 하한선은 매우 낮은 원심분리기 효율을 가정한 것이었다.⁴¹

그러나 북한이 다수의 농축 시설을 은닉하였는지, 실제로 이를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북한은 영변 시설 외에 추가적인 농축시설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해커 박사는 최소 1곳의 추가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² 또한 북한이 영변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많은 징후가 포착되었다.⁴³ 2013년 말 영변 시설의 폭은 100m 이상 늘어나 용량이 2배 가량 증설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36.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에 이용하던 핵원자로는 지금껏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Smith, J. N. Korea Nuclear Reactor Site Threatened by Recent Flooding, U.S. Think-Tank Says, Reuters, August 12, 2020 참조.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nuclear-floods-idUSKCN25908S>.

37. Hecker, S.S. (2010).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NAPSNet Special Reports.

38. Hecker (2010).

39. Hecker (2010).

40. Hecker, Braun, and Lawrence (2016, p. 735).

41. Albright, D. & Walrond, C. (2010).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p. 23.

42. 해커 박사는, 북한의 주장대로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을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8개월만에 착공하여 가동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해커 박사는 오히려 북한이 모종의 장소에 340개의 원심분리기를 이은 캐스케이드(cascade)를 가동 중에 있었으며 이를 새롭게 증설한 영변 내 핵연료 제조시설로 이전하고 2010년 이를 대외에 공개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Hecker, S.S. (2012). *Ca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 Resolved?*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p. 8.]

43. Albright, D. & Avagyan, R. (2013). *Recent Doubling of Floor Space at North Korean Gas Centrifuge Plant: Is North Korea Doubling Its Enrichment Capacity at Yongbyon?* [Imagery Brief],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magery Brief.

44. Albright and Avagyan (2013).

북한이 2016년까지 생산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농축우라늄의 추산치는 표 3.3과 같다. 올브라이트(Albright)는 2016년 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이 175kg에서 645kg 사이 일 것으로 추산하였다.⁴⁵ 비스트라인(Bistline)의 계산법에 근거한 해커 박사의 추산치는 300kg에서 450kg이었다.⁴⁶ 비스트라인과 연구진은 원심분리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물질의 공급 제약으로 인한 고농축우라늄 생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⁴⁷

표 3.3.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정치

참고문헌	고농축우라늄 보유량(2016)	연간 생산량
Albright	175~645kg	38~186kg/year
Hecker (Bistline et al., 2015)	300~450kg	150kg/year

핵무기 보유량 추산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량 추산을 위해서⁴⁸ 연구진은 앞선 절에서 언급된 2017년 미국 정보 기관들의 30~60개 추정치를 2017년 중반 실정에 맞게 보정하였다. 2017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플루토늄 재처리 공정을 통해 31개에서 62개 사이로 증가했을 것이다.⁴⁹ 연구진은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증가율을 평균, 상한, 하한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균치는 안킷 판다(Ankit Panda)의 논문을 기초로 한 것으로 연 12개이다.⁵⁰ 상한은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종료 이후 북한 내 5개의 핵심 핵무기 제조 시설이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기초했다.⁵¹ 당시 언론은 북한 내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45. Albright (2017, p. 31).

46. Hecker, Braun, and Lawrence (2016).

47. Bistline, J.E. et al. (2015). A Bayesian Model to Assess the Size of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Program. *Science & Global Security* 23 (2).

48. 북한이 핵물질을 투입하여 생산한 핵무기의 숫자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공정 가운데 핵물질을 투입하여 실제 핵무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보다 손쉽게 은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물질을 전량 핵무기 생산에 투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북한이 생산한 핵물질 전량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한다.

49. 연구진은 북한이 영변 내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며 영변 내 새로 증설한 원자로를 통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분명히 보수적인 가정이라 할 것이다.

50. Panda, A. US Intelligence: North Korea May Already Be Annually Accruing Enough Fissile Material for 12 Nuclear Weapons. *The Diplomat*, August 9, 2017. <https://thediplomat.com/2017/08/us-intelligence-north-korea-may-already-be-annually-accruing-enough-fissile-material-for-12-nuclear-weapons/>.

4곳의 장소를 식별하고, 이 중 3곳의 원심분리기 개수 추정치를 보도하였는데 이는 영변에 4천대⁵², 강선에 8천대⁵³, 분강에 1만대⁵⁴였다. 나머지 한 곳인 서위리에는 개수 미상의 원심분리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⁵ 앞서 서술하였듯이 영변 시설이 연간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⁵⁶, 고농축우라늄 생산 효율은 최대 80%에 달하고⁵⁷, 2만2천대의 원심분리기는 연간 352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1개의 핵탄두 생산에 20kg의 고농축우라늄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⁵⁸, 2017년 30~60개의 핵무기 보유 추산치에서 2020년까지 1~2개의 플루토늄 핵무기가 더해진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핵보유 개수는 연간 12개씩 증가하여 2027년까지 120개에 달하거나, 연간 18개씩 증가하여 2027년까지 180개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로 보면 2020년까지 북한은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며,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⁵⁹

51. Kim, S. Trump Tells Fox About 5 Nuclear Sites in North. JoongAng Daily, May 21, 2019.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9/05/21/politics/Trump-tells-Fox-about-5-nuclear-sites-in-North/3063347.html>.

52. Albright and Avagyan (2013).

53.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북한은 '18년 5월 본지가 처음 보도하였듯이 '강선'으로 알려진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해왔으며, 대다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시설의 규모가 영변에 비해 2배 가량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Nakashima, E. & Warrick, J. North Korea Working to Conceal Key Aspects of Its Nuclear Program, U.S. Officials Say. Washington Post, June 30,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north-korea-working-to-conceal-key-aspects-of-its-nuclear-program-us-officials-say/2018/06/30/deba64fa-7c82-11e8-93cc-6d3becdd7a3_story.html.)

54. Jeong, Y., Baek, M., & Shim, K. Secret Enrichment Plant Is Right Next to Yongbyon: Sources. JoongAng Daily, March 5, 2019.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9/03/05/politics/Secret-enrichment-plant-is-right-next-to-Yongbyon-Sources/3060178.html>.

55. Cho, S. NK Has Built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Dong-A Ilbo, February 18, 2009. <https://www.donga.com/en/Search?query=NK+Has+Built+Uranium+Enrichment+Facilities&x=0&y=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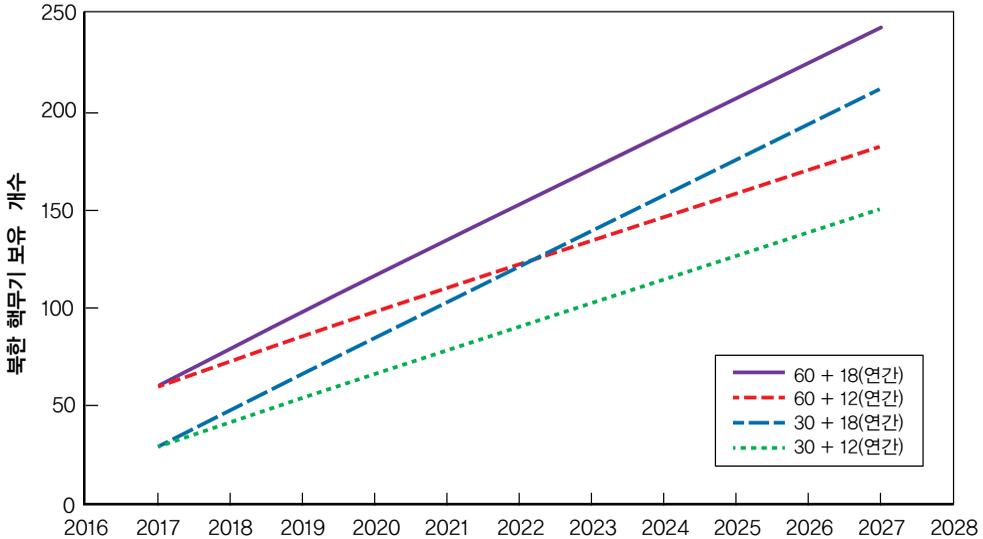
56. Hecker, Braun, and Lawrence (2016, p. 735).

57. Albright, D. (2015).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US-Korea Institute at SAIS.

58. Albright, D., & Walrond, C. (2012).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SIS.

59.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 정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정책을 계승해야만 한다. 1980년부터 1990년 초 김일성은 연간 50개, 즉 10년간 50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2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려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Yongbyon [Nyongbyon] N39 48' E125 48'. Last updated March 4, 2000 및 Hecker, Braun, and Lawrence (2016, p. 729) 참조. 현재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은 김일성의 구상만큼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감소세라기보다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량



핵무기 보유량 추산에 관한 유의사항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 전망은 물론 현 보유량 추정에 있어서는 큰 불확실성이 있다. 첫 번째 핵심적인 불확실성 요소는 이러한 추정치가 북한이 실제 생산한 핵무기 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 북한의 과거 핵분열 물질 추정 생산량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⁶⁰ 두 번째 불확실성 요소는 현재 북한 내 고농축우라늄 제조를 위해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의 실제 개수로, 보고된 수치보다 실제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 세 번째 불확실성 요소는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어서 핵무기 보유량 추산에 반영되지 못한 자료의 존재인데, 이는 현재 북한 내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의 실존 유무와 2027년까지 핵분열 물질의 실제 생산 여부이다.

상기 요소와 그 외 불확실성 요소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결론 도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은 의도한 것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최소 과거 실험한 핵무기 플러스 알파)를 생산하였고 현재 지속 생산 중이며,⁶¹ 생산능력을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⁶² 본 장 이후부터는 북한이 2027년까지 200기 가량의 핵무기

60.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성 물질 중 약 1/3 가량만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 연구진은 이를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나 물증을 찾지 못하였다.

61. Reuters. No Sign North Korea Reprocessed Plutonium in Past Year, Still Enriching Uranium, IAEA Says. September 2,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nuclear-iaea/no-sign-north-korea-reprocessed-plutonium-in-past-year-still-enriching-uranium-iaea-says-idUSKBN25T1JW/>.

62. Kube, Dilanian, and Lee (2018).

를 보유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궁극적으로 연구진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의도와 전략이다. 북한이 200기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시점이 2025년인지 2030년인지 또는 2040년인지 하는 논의는 본 연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한미가 얼마나 빨리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인가이다. 2020년 북한이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그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보유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대규모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4. 북한의 핵무기 전략: 지역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 전력은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들에게 심대한 위협이다. 정치적 목표를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는 그들의 도발과 협박의 역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신무기 개발을 이끌었고, 또한 새로운 역량이 달성되면서 한층 발전했다. 역제의 수준을 넘어선 평양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이 필요 시 전쟁을 포함하여 진정한 지역 강국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핵무력 개발은 동북아 역내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압적인 외교는 물론 더 심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미 본토를 겨냥할 능력이 증가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이간(decoupling)과 안보 방기(abandonment)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이 과연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이나 도쿄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은 한국을 북한과 협력하게 만들고, 일본으로 하여금 핵공격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서의 동맹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북한 핵능력 향상에 따른 핵 독트린 진화

북한은 핵전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된 북한의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전략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역량의 지속적 성장은 북한 정권의 핵전략을 실행시켜주는 수단이며, 북한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북한의 핵 독트린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무기를 증강하고 개선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화되어 왔다:

- 핵 프로그램 은폐 및 부인
- 표면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이 외교적 협상 카드인 것처럼 행동
- 보복 공격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핵 위협 억제
- 연합군의 우세한 재래전력에 대항, 전술 혹은 소형(battlefield)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 써 연합군의 침공을 좌절 혹은 격퇴
- 임박한 미국의 대전력타격(counterforce strike) 또는 참수 공격(decapitation strike)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 제공
- 미국의 확장억제공약(extended deterrence guarantee)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북한 중심 통일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핵전쟁 능력 배양

북한 핵 교리 관련 발언

북한은 2003년 1월 말까지도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으며 핵 활동은 전력(電力)생산에만 한정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¹ 그러나 5개월 후,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대응해 “타국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것이 아닌 핵 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마침내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² 이는 수년 동안 그들의 핵무기 개발 이유가 미국의 핵 또는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북한 정권의 상투적 발언이 되었다.

2012년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³ 김정은은 전략로켓사령부(이후 전략군으로 명칭 변경)를 지상군, 공군, 해군, 방공군과 동격의 군종으로 설립해 전략군 사령관이 김정은과 인민군 총참모부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⁴

2013년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명칭의 법령을 채택하여 핵무력의 역할을 명문화하였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핵무기 사용의 경우를 규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1. 성동기,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도 없음 발표” *동아일보*, 2003년 1월 22일. 그러나 영변 원자로는 적어도 2005년까지는 전력공급망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berstadt, N. A Skeptical View,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1, 2005. p. 26. <https://www.wsj.com/articles/SB112726787273846999>).

2. Roy, E. Bush Administration Unmoved by North Korea’s Nuclear Statements, ABC, June 10, 2003. <https://www.abc.net.au/worldtoday/content/2003/s876359.htm>.

3. 이충원,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연합뉴스*, 2012년 5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20530112851073>.

4. Choi, H., & Grisafi, J.G. North Korea’s Nuclear Force Reshuffles Its Politics, Economy NK News, February 11, 2016. <https://www.nknews.org/2016/02/north-koreas-nuclear-force-reshuffles-its-politics-econom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 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⁵

이 정책은 미국에 감내할 수 없는 손실을 부과하는 핵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동맹 차원의 공격을 억제하는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에 입각한 확증 보복 전략(assured-retaliation strategy)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보복 전략은 군사 목표물과 민간 목표물을 구별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감 표출에 앞서, 대북 적대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에만 핵대응을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미, 미일 동맹을 이간하려 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핵전력(a small nuclear force) 정도면 충분한데, 적국의 핵 혹은 재래식 공격으로부터 하나만 제대로 살아남아도 보복공격을 가해서 막대한 사상자를 만들거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공격을 막으려는 북한의 노력은 핵무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거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무기는 약화된 북한의 재래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preemption) 위협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되면서 핵 선제공격의 위협도 커졌다. 북한 당국자들은 1994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전에도 “한반도 인근의 군대를 모아 북한을 공격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공격이 임박한다면 우리 또한 공격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⁶

2013년 북한 외무성은 북한이 “침략자의 거점을 파괴하기 위해 핵 선제공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⁷ 2016년 외무성은 “결정적인 선제 공격은 북한이 미국의 갑작

5. 2013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 기록.

6.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The Secretary's Morning Intelligence Summary,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29, 1994, p. 11.; Jackson, V. Preventing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What to Do After the Test, Foreign Affairs, September 11, 2016 참조.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6-09-11/preventing-nuclear-war-north-korea>.

7. Bennett, D. North Korea Is Now Threatening a Preemptive Nuclear Attack, The Atlantic, March 7, 2013,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3/03/north-korea-preemptive-nuclear-attack/317649/>.

스러운 기습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자기방어권의 자연스러운 행사다”라고 천명하였다.⁸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작전 혹은 참수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⁹

핵능력 강화가 가능케 한 새로운 북한의 전략

북한의 진화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은 북한 정권의 기습 선제타격, 보복성 2차타격, 전장 차원에서의 반격(battlefield counterforce)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보다 정확하고, 이동 가능하며, 고체연료를 탑재한 차세대 첨단 미사일을 생산하여 미사일의 생존성을 높이고 한미의 표적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를 회피할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또한 고체연료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은 방호능력이 강화되거나 전장 수준에서 존재하는 군사적 표적을 정확히 맞추기에 충분한 빠른 발사를 가능하게 한다.

북한은 한국, 일본,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 미국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상된 미사일의 정확도는 2019년과 2020년 시험에서 확인되었고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잠재적 능력은 북한이 적은 미사일로도 한국 영토에 효과적인 반격을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무기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우월한 재래 전력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거나 격퇴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을 채택했다.¹⁰ 북한 정권은 전략적 억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보유할 것이다.

2012년 김정은은 한미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상당 부분 무력화하고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전쟁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¹¹ 이 계획의 주요 요소는 전쟁 초반부의 핵무기 사용이었다. 이 계획은 이번 장의 핵 사용을 상정한 전쟁에 관한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8.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National Defense Commission, Foreign Ministry Issues Statements on Foal Eagle, Key Resolve, March 6, 2016,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6/03/06/national-defense-commission-foreign-ministry-issues-statements-on-foal-eagle-key-resolve/>.

9.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2016).

10. Narang, V. (2014),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9-20.

11. 2020년 10월 10일 북한군 퍼레이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곧 북한군 전체에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군의 현대화 역량을 전파할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주변국에 대해 자신들의 재래 군사력이 과거 보여준 것보다 현재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범위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섯 가지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협박, 강압, 억제를 위한 핵무기

북한은 2009년까지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표적을 제대로 타격하는 핵무기를 투발할 능력이 없었고,¹² 그러므로 한국전쟁 이후 “북한 핵무기의 가치는 실제 사용이 아니라 사용 위협에 있는 듯 보였다.”¹³ 북한은 억제와 다른 많은 목적을 위해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해왔다. 본 보고서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충돌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확실한 억제수단이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를 이용하여 ‘핵 그림자(nuclear shadow)’를 드리움으로써 평시의 여타 도발에서도 한미 양국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두려워해 북한의 그릇된 행동과 협박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북한에 호의적인 현 한국 정부와 단체들을 움직여 한국전쟁 이후 서해남북경계선으로 유엔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을 한국이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압박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NLL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서해상의 경계선을 제시하며, NLL을 가로지르는 수역(水域)이나 자신들이 북한 영토로 주장하는 섬들에 포격을 가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재래 전력을 이용해 한국의 서북도서¹⁴ 중 하나를 점령하되, 한국이 점령된 섬을 다시 탈환하려는 시도를 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위협할 수도 있다. 북한은 무력충돌의 확대를 두려워한 한국이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북한의 경계선 조정이나 도서 점령을 수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에게 대단한 승리, 그 이전 많은 실패를 겪었을 경우 그가 필요로 할 그런 종류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실제 핵무기 사용은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12.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은 아직 북한의 핵무기 설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9년 2차 핵실험이 되어서야 북한은 탄도 미사일에 장착 가능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였다. Jeong, Y., & Ser, M. North Shrank Its Nukes Pre-2014. Joong-Ang Daily. August 11, 2017 참조.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7/08/11/politics/North-shrank-its-nukes-pre2014/3037>.

13. Fifiield, A. North Korea's Making a Lot of Threats These Days. How Worried Should We Be? Washington Post. March 10, 2016b.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6/03/11/north-koreas-making-a-lot-of-threats-these-days-how-worried-should-we-be/>.

14. 북한은 이러한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수륙양용의 호버크라프트(hovercraft) 기지를 개발했다. Bermudez, J.S. (2011). New Hovercraft Base at Sasŭlp'o. *KPA Journal*, Vol. 2, No. 2. 참조.

작전 전에 핵무기 실험으로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은 1~2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것이지만, 성능이 매우 떨어져서 목표물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치였을 가능성이 크다.¹⁵ 2장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1993년 미국과의 첫 핵 위기에 직면했고, 미국과의 잠재적 전쟁에서 패배할까봐 걱정했다. 당시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 정권이 위태로워질 경우 김정일은 “지구를 깨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⁶ 김정일이 핵과 생물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구를 파괴할 능력은 없었지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고위급 탈북자는 당시 북한 정권이 공공연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국제적 행동을 막거나, 미국을 협박하여 북한에 유리한 핵협정을 맺기를 바란 것이었다고 밝혔다.¹⁷

북한이 전면전을 벌여 패색이 짙어지는 경우, 김정일은 이런 종류의 궁극적인 도전 행위(act of defiance)를 시행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게 조기 전쟁 종식을 강요하고, 만약 강압 전략에도 불구하고 패색이 짙다면 정권 파괴에 대해 보복하려 할 지 모른다. 북한 정권의 최우선적 목표는 정권 생존이기 때문에 북한은 패전 위기에 처했을 때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이 전략에 따라 전쟁 초반부터 한국, 일본, 중국의 도시들을 핵무기의 목표로 설정해 놓을 것이다. 강압에 실패한다면 남아있는 무기를 북한 정권 붕괴를 보복하기 위한 용도로 발사할지도 모른다.

이와 함께, 북한은 도발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해왔다. 북한은 제대로 된 핵무기를 설계했는지를 확인하고, 핵무기 생산 능력을 달성했다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핵 실험을 단행해왔다. 북한은 2006년 첫 실험을 진행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총 6건의 핵무기 실험을 완료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주변국들은 북한 핵무기의 제거를 위해 북한과 협상하도록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지만, 이들 국가들은 북한 핵무기의 제거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일부 양보해야 함을 알고 있다. 북한은 평시 이러한 강압적 핵무기 활용 유형을 확립함으로써, 자신들은 비핵화를 하지 않은 가운데 주변국들에게 양보를 강요해왔다.¹⁸

제한적 핵무기 사용

북한은 핵무기 개발 초기에, 강압적 위협이라는 최소한의 활용에 더하여 제한적인 핵 대응공격으로까지 핵무기 운용전략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94년 남북회담에서 북한 대

15. CIA estimate for Congres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November 19, 2002.

16. Kim (2009).

17. 북한 고위급 탈북자와의 인터뷰. 서울, 2012년 12월.

18. 북한에게 핵무기 실험에서 불리한 점은 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었다.

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¹⁹ 그 이후 북한이 비슷한 위협들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당시 북한 대표가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불바다’란 말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 ‘참수 공격’을 준비하는 ‘작은 징후’만 보여도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드는 등 한국 지도부에 대한 2단계 핵 선제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²⁰ 3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종류의 공격은 수십만 명의 한국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서울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한국이 북한에게 항복하게 만들거나, 북한 핵전력에 대한 반격을 중지시키거나, 북한 지역으로의 공격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북한은 동맹국들이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 즉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을 계속 준비한다면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핵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¹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긴장 고조를 제한적 핵무기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서울을 인질로 잡고 한국의 다른 도시 또한 겨냥할 수 있다. 2016년 김정은은 미군이 한국에서 사용할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모의하여 실시된 몇 차례의 스킵드와 이동식 노동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지도했다.²² 북한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미사일 사거리는 미군이 상륙할 부산항을 포함한 한국 전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이러한 공격은 상당한 군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항에 핵 공격을 가해 미

19. Chung, M. (1994). Seoul Will Become a Sea of Fir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 26, No. 1-2.

20. 윤상호, “北 “청와대도 불바다” 도발 위협... 軍, 지휘부 포함 100곳 타격훈련,” *동아일보*, 2013년 11월 23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123/59085114/1N.](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123/59085114/1N;); Choe, S.H. North Korea Threatens to Attack U.S. with ‘Lighter and Smaller Nukes.’ *New York Times*, March 5, 2013a 참조. <https://www.nytimes.com/2013/03/06/world/asia/north-korea-threatens-to-attack-us-with-lighter-and-smaller-nukes.html>.

21.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KPA Supreme Command Issues Statement, February 23, 2016.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6/02/23/kpa-supreme-command-issues-statement-2/>

22. Kim, J. North Korea Says Missile Test Simulated Attack on South’s Airfields, *Reuters*, July 19, 2016.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s-idUSKCN0ZZ2WO>;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Kim Jong Un Observes and Guides Ballistic Missile Drill, July 19, 2016.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6/07/19/kim-jong-un-observes-and-guides-ballistic-missile-drill/>;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Kim Jong Un Observes and Guides Mobile Ballistic Missile Drill and Watches KPA Tank Competition, March 10, 2016.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6/03/10/kim-jong-un-observes-and-guides-mobile-ballistic-drill-and-watches-kpa-tank-competition/>; and Shin, H. NK Says Missile Test Aimed at Ports, Airfields in South Korea, *Korea Herald*, July 20, 2016.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720000876>.

23.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의 사진, *연합뉴스* (2016).

군 증원 전력의 전개를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갈등을 종결하거나 더 많은 한국 도시가 핵 공격을 받기 전에 항복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북한이 제한적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주요 핵 보복을 저지할 것을 바라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대부분을 남겨놓을 것이다.²⁴

또한 북한은 제한적 핵무기 공격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공격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양측이 재래식 공격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이 확대됨으로써 발생할 것이다. 한국의 재래 전력에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군을 DMZ 넘어 북한 지역으로 밀어내기 위해 재래 전력에 의한 반격작전을 개시할 것이다. 북한은 북한 영토에 대한 반격을 막기 위해 수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폭발은 북한 영토 내에서 진행된 핵무기 실험일 뿐이며 미국의 보복공격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진출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미군과 한국군에 대해 추가적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미국이 핵보복을 감행할 경우 북한도 한국 도시에 대한 핵공격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군과 한국군의 진군을 막기 위한 북한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다면 북한은 중국에게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협박할 지도 모른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 지역을 넘어서 확대되어 왔다. 북한은 한반도를 향한 군대와 군수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일본을 겨냥한 위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북한은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해 미국과 유엔군사령부(UNC)의 작전을 위한 일본의 항구, 비행장, 기지 사용을 거부하도록 협박할 수 있다. 김정은은 협박이 실패할 경우 이러한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은 “일본을 ‘핵전쟁의 불바다(nuclear sea of flames)’로 만들겠다”고 위협해왔다.²⁵ 북한은 또한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며 “일본 군도의 4개 섬은 핵폭탄으로 바다에 가라앉아야 한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했다.²⁶ 또한 북한은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를 표적으로 삼았는데,²⁷ 이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군사령부(UNC)의 작전을 위해 자국 항구, 비행장,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거부는 미군의 한국 전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

24.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안했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에게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도록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미국의 핵보복을 약속한다.

25. Yonhap News Agency, N. Korea Threatens to Turn Japan into ‘Nuclear Sea of Flames,’ September 29, 2004.

26. Sharp, A. North Korea Threatens to Use Nuclear Weapon to ‘Sink’ Japan. NDTV. Last updated September 14, 2017. 당시 방송은 북한이 아직 이 정도의 공격을 시행할 핵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오폭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시킨 바 있다. <https://www.ndtv.com/world-news/north-korea-threatens-to-use-nuclear-weapon-to-sink-japan-1750144>.

27.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4). “Korean Peninsula” in *Defense of Japan 2014*. Tokyo, Japan, p. 16.

문이다. 2017년 김정은은 ‘일본에 있는 미제 침략자들의 기지를 타격’하는 전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였다.²⁸ 당시의 활동을 보도한 내용에는 북한 미사일이 이와쿠니(岩国) 미 해병대 항공기지를 사거리로 하여 발사되었다는 지도가 첨부되었다. 또한 중국이 분쟁에 개입할 준비를 한다면, 북한은 베이징이나 다른 중국 도시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통해 중국이 북한 영토를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중단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²⁹

북한은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핵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미국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해군 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기지 모두 북한의 정밀타격 수단의 타격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³⁰ 북한 외무성은 “괌을 포함한 태평양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는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³¹ 북한은 2017년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에 있는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견제하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로 괌 미군기지를 포위사격하는 작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³² 이 계획은 괌으로부터 30~40km 떨어진 어느 한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³³ 리홍호 외무상은 이후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³⁴

북한이 제한적 핵무기 사용으로 미국의 보복 위협을 감수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은 다른 유형의 공격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한국과 미

28.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Kim Jong Un Supervises Missile Drill. March 6, 2017. <http://www.nkleadershipwatch.org/2017/03/06/kim-jong-un-supervises-missile-drill/>.

29. 한 소식통에 따르면베이징 또한 북한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북부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식통에 의하면 먼저 중국의 특수부대와 공수부대가 핵 시설 확보를 위해 선제 진입하고, 이어 공군의 엄호를 받는 기계화보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진입하는 등 단순히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작전이 필요하다. (Page, J. China Prepares for a Crisis Along North Korea Border. Wall Street Journal. July 24, 2017. <https://www.wsj.com/articles/china-prepares-for-a-crisis-along-north-korea-border-1500928838>)

30. CBS News. N. Korea Warns of ‘Precision Strike’ on U.S. Bases. April 5, 2013. <https://www.cbsnews.com/news/n-korea-warns-of-precision-strike-on-u.s-bases/>.

31. Ridgell, C. North Korea Threatened Guam Numerous Times in the Past. Pacific News Center. August 9, 2017. <https://www.pncguam.com/north-korea-threatened-guam-numerous-times-in-the-past/>.

32. Kim, C., & Kim, S. North Korea Says Seriously Considering Plan to Strike Guam: KCNA. Yahoo News. August 8, 2017. <https://www.yahoo.com/news/north-korea-says-seriously-considering-plan-strike-guam-222757124.html>.

33. 정인환 “북, 한반도 긴장 최고조 끌어올려 미국과 담판 노리나?” *한겨레*, 2017년 8월 10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6398.html#csidxb9da603914950a986ab2c7054da7955>.

34. The Guardian. North Korea Ramps Up Threat to Test Hydrogen Bomb over Pacific. October 25, 201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north-korea-threat-test-hydrogen-bomb-pacific>.

국의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는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부산항으로 가는 외국상선을 통해 핵무기를 운송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발뺎할 수 있도록 핵을 사용할 지도 모른다. 북한은 2010년 어뢰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공격 위협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복 가능성을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목표했던 내부 이익을 다수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한 핵공격 가능성을 평가절하해 왔는데, 그동안 북한이 그런 공격을 강압적 목적으로만 활용하여 왔으며, 미국의 핵공격을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거하에서였다. 그러나 1997년 미국 의회 증언에서 대부분의 북한군 출신 고위급 탈북자들은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

일부 미국인들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정일은 북한이 만약 2만명 이상의 미국인 사상자를 발생시킬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고 북한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³⁵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군 출신 고위급 탈북자들은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이 더이상 막대한 소모가 초래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는 유사한 발언을 해왔다.³⁶ 북한은 전쟁 초반부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일거에 발생시키는 제한적 핵무기 사용이 미군의 한국 철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³⁷ 오늘날 이러한 정도의 피해는 북한이 ‘우리 군의 최우선 타격 대상’으로 지정한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본부에 핵무기를 발사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

35. *North Korean Missile Proliferation*. (1997, October 21). Hearing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Proliferation, and Federal Servic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5.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이러한 관점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014년 관련 기사를 인용해보자.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과 1994년에 소말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자 빈 라덴은 더욱 신랄하게 미국을 비판했다. “미군 10명이 사소한 전투에서 사망했고 한 명의 미국 조종사가 미군이 떠난 모가디슈의 거리로 끌려 갔다. 미국은 실망과 굴욕, 패배, 죽음을 안고 소말리아를 떠났다. 클린턴 대통령은 전 세계 앞에서 복수를 약속했지만 이 위협은 단지 철수를 위한 준비에 불과했다.” (Samuels, D. How Osama Bin Laden Outsmarted the U.S. and Got What He Wanted. *Tablet*. January 22, 2014. <https://www.tabletmag.com/sections/israel-middle-east/articles/how-bin-laden-won>).

36. 북한 인민군 출신 고위급 탈북자와의 인터뷰, 2017년 3월, 서울. 이 탈북자는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게 된 1983년 레바논의 미 해병대 기지 폭탄 테러를 예로 들었다.

37. 북한은 이러한 공격이 미국의 불관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서 입증된 것처럼 수천 명의 미국인을 살해하는 적은 단합되고 분노한 미국의 분노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을 파괴하지 못한 대통령은 탄핵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다.³⁸ 대구에 있는 미 육군기지, 오산과 군산의 미 공군기지, 부산항 미군 기지 등 다른 주한미군 기지 또한 북한 핵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³⁹ 이 같은 북한의 시각은 5장에서 설명될 것과 같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북한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오판이다.⁴⁰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한미 양국은 대대적인 파괴와 인명 손실을 우려해 북한과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한미 양국은 전면전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전을 회피해 왔다. 북한 역시 한미 양국과 대규모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는 전쟁이 북한 정권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심각한 내부 위협을 느끼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한미 양국에 대한 전쟁을 모색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억제를 위한 위협이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⁴¹ 한미 양국은 병력을 훈련시키고,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전면전에 대한 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쟁 계획의 세부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각의 개별적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조치로 인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계획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의 전쟁계획을 국가목표와 조율해가면서 적화통일을 위한 한국 침공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북한의 재래 전력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재래 전력보다 수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2012년 북한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직후 자국의 재래 전력을 조사했으며, 한미 양국과의 재래 전력을 통한 전면전은 북한과 북한정권 생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⁴² 그래서 김정은은 인민군에 3일 이내에 서울을 침공하고 7일 이내에 한국 전역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을 연구했고, 미국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승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핵무기와 기타 비대칭 전력을 상당히 조기에 사용해야 한다.⁴³

38. 박원근,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갖는 전략적 함의, 서울평양뉴스, 2017년 10월 20일,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

39. Mount (2019).

40. 본 절에서 다루지는 것과 같은 북한의 공격은 베이루트 해병대 기지 테러와 진주만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보였던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반향을 이끌어낼 것이다.

41. 이와 관련해서는 Levy, J.S.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Midlarsky, M.I.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Mass.: Unwin Hyman (1989). 참조.

42. 한미연구소 주관 세미나에서의 국회의원 태영호 발표, 2020년 12월 17일.

43. Jeong and Ser (2015). 이 전략은 미국의 심각한 핵 보복을 막을 수만 있다면 김정은에게 유일한 논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지도자는 소득 없이 자신의 군대를 훈련시키지 않는다.

이 계획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핵 미사일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면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비대칭 전력을 통한 총공격이다. 네 번째 단계는 후방 특수 작전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한반도 정복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북한의 핵전략은 통일전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개발됐다.⁴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방해하기 위한 통합된 조치로서 한국의 군사 및 정치적 목표물에 대한 40~60개의 핵무기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한미 공군과 해군의 군사력과 지휘통제를 무력화 하며, 한국에 대한 침공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에 있어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바란다.⁴⁵ 북한은 또한 본격적 군사적 공격에 앞서 사이버, 전자전, 특수작전부대공격으로 한미의 지휘, 통제, 통신, 정보체계의 장애를 주고, 무력화하며, 지연시키거나 혹은 대응을 오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무장 지대 일대와 더 깊숙한 남측 지역에 대한 북한의 재래 및 화학탄두 포격은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

한미 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반격작전을 감행할 경우 북한은 선제공격을 위협할 것이다.

[공격은] 서울을 포함하여 제1야전군 그리고 제3야전군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모든 것을 연소시킬 것이다…또한, [한반도] 남부의 중심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과 함께, 미국의 발사기지와 태평양 지역전구의 미군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면적 타격이 이어질 것이다.⁴⁶

북한은 또한 “한반도에서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all-out war)과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북한은 공격을 위해 미 본토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날려버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⁴⁷ 이러한 정도의 핵공격 목표 설정을 감안하면, 북한이 200개 이상의

44. Chung (2016, p. 468).

45. 전구 차원의 미사일(Theater missiles)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다. KN-23은 이런 종류의 공격에 선호되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각 KN-23 TEL은 두 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 따라서 북한은 동시 공격을 위해서는 20~30개의 KN-23용 이동식 발사대가 필요할 것이다.

46. Haggard, S. Nuclear Doctrine: What the North Koreans Are Actually Sayin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ugust 16, 2017. <https://www.piie.com/blogs/north-korea-witness-transformation/nuclear-doctrine-what-north-koreans-are-actually-saying>. 한국 제1, 제3야전군은 한국 비무장지대의 주요 군 사령부다. 한미 양국은 이런 유형의 북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충분히 파괴되기 이전까지는 반격을 실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동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이간

앞서 소개한 북한의 한미동맹 이간책 중 일부는 제한 핵공격으로 미국이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사용될 ICBM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⁴⁸ 북한 정권은 충분한 핵무기와 30~50개의 ICBM을 보유하면⁴⁹ 미국을 ICBM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공격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서로에게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치킨 게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정은은 미국이 본토에 대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 위협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한두 번의 공방이 이루어진 후 양측의 군사적 갈등 확대를 중단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⁵⁰ 이런 ‘치킨 게임’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위협에 처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시도를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이 대미 핵공격 능력을 갖추는 경우 실제 핵무기 발사 없이도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보복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억제하기를 바랄 것이다.

북한이 열핵무기(수소폭탄)로 미국 도시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핵우산 실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의지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샤를 드 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47. Fisher, M. Here's North Korea's Official Declaration of 'War.' Washington Post, March 29, 2013.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3/03/30/heres-north-koreas-official-declaration-of-war/>; and pbr@yna.co.kr. N. Korea Threatens Ultra-Harsh Action on U.S. Soil over Hacking Allegation. Yonhap News Agency, December 21, 2014. <https://en.yna.co.kr/view/AEN20141221003700315>.

48. 북한은 “미 본토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해왔다(Harris, B. North Korea Threatens Nuclear Destruction of Japan, Financial Times, September, 14, 2017). 2013년 김정은은 ‘미 본토 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은 지도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지도에서 미사일들의 궤적은 워싱턴,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미 태평양 함대의 주기항지), 루이지애나 박스데일(Bakesdale) 공군기지(미 공군의 지구권 타격 사령부 본부) 등을 표적으로 향하고 있었다(Lewis, J. North Korean Targeting, Arms Control Wonk, Blog, April 8, 2013.).

49.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44개의 지상기반요격기는 현재 미국 본토의 방어를 맡고 있다. 북한의 ICBM 보유량(재고, arsenal)이 적기 때문에 요격기가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몇개의 북한 ICBM이 위 방어시스템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30~50개의 ICBM을 배치한다면 미국의 방위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충분할 것이며 제재 없이 몇 개의 ICBM을 제재없이 미 본토에 도달시킬 것이다.

50. 한 소식통의 인용을 보자. “북한과 미국 중 어떤 국가가 핵공방에 더 준비되어있는가? …북한의 경우를 보자. 북한인들은 미국의 인구밀집 지역을 초토화하여 미국으로부터의 핵 보복공격에 전 국토가 폭발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매우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예비 순교자들이다.” (Kim, M.C. Farewell to 1994 Agreed Framework!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Policy Forum Online, November 24, 1998.).

에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한일 양국은 이미 미국이 한일 양국을 위해 자국 도시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⁵¹ 미국 핵우산 제공(확장억제)의 명백한 종식은 북한의 핵심목표인 한미동맹 이간과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ICBM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을 파괴하기 위한 반격을 감행하고도 일부 북한군을 남겨놓았을 경우 북한이 직접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연 미국 대통령이 수많은 미국 도시들이 수소 폭탄 공격을 받을 위협을 감수할 것인가?⁵² 북한은 아마도 워싱턴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주저할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핵무기 확산

북한의 핵무기 수가 100여 개에 달하게 되면, 북한 지도자들은 이들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과 미국의 주요 제재대상이 되어 외환 보유고가 고갈될 경우 이 가정은 사실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⁵³ 그러나 김정은은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은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온다.

종합 정리

김정은이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핵무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앞서 논의한 북한 헌법 개정 내용에서 지칭된 것처럼 북한은 ‘강성대국’이 될 것이다. 세계적 관점에서 북한은 핵무력만 없다면 여전히 가난한 제3세계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위는 분명 북한 정권에게는 매력적이다. 강대국이 되려면 북한이 강력한 경제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유엔과 미국이 부과한 제재가 종료될 때만 가능하다.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⁵⁴ 따라서 북한의 핵무

51. 이와 관련해서 Tertrais, B. *Destruction Assuré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French Nuclear Strategy, 1945-81*. In Henry D. Sokolski, H.D. (Ed.), *Getting MAD: Nuclear Mutual Assured Destruction, Its Origins and Practic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4). p. 58.

52. 영화 속 가상의 인물이자 핵 전략가인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는 “전쟁 억제력이란 적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는 예술(Deterrence is the art of producing in the mind of the enemy, the fear to attack)”이라고 말했다. (Dr. Strangelove, dir. Kubrick, S., Columbia Pictures, 1964). 북한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53. ‘2019년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신년연설’,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북한 전국위원회.

54. 최현정, 김정일 “2012년 핵보유국 지위 획득. 동아일보, 2009년 5월 11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90511/8730463/9>.

기에 대한 관심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가 설명한 여러 전략 중 하나로서 한국에 대해 통일을 임의대로 강요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김정은은 북한의 행동으로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폐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한미동맹이 와해에 직면할 경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이전에 다수의 핵무기를 생산할 핵개발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 김정은은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만약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전에 북한은 강압적 또는 군사적인 통일을 위해 핵무기 사용을 원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 2049년까지 세계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⁵⁵ 중국은 수세기 동안 한반도에 지배력을 행사해 왔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미래에는 한반도에 대해 더 큰 지배력을 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미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연수(研修) 강좌 내용은 북한 정권의 명백한 목표를 보여준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핵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게 만들 것이며, 세계가 미국이 아닌 주체 조선에 의해 재편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선언할 것입니다.⁵⁶

이것이 단지 북한의 희망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실제 열망을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북한 안팎의 적대세력에 대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운용 가능성 요약

북한은 핵무기 사용 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보여준 핵무기 위협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1970년대에 對군사(counter-military) 및 對핵심시설(counter-value) 핵무기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

55. Brands (2020).

56. Baik, S. Leaked N. Korean Document Shows Internal Policy Against Denuclearization, Voice of America, June 17, 2019a, <https://www.voanews.com/east-asia/leaked-n-korean-document-shows-internal-policy-against-denuclearization>.

고, 이후에도 계속 이를 실행해 오고 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북한의 성명서들은 다른 국가를 강압하고 억제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북한이 핵무기 운용에 대한 구상을 반영하는 듯하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이 외부 공격에 의해서든 아니면 북한의 침략 실패로 인한 것이든 정권의 패배를 예방한다고 말해 왔다.

2013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2013 Law on Consolidating the Position of Nuclear Weapons State)’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엿볼 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⁵⁷

또한 북한은 정기적으로 핵 선제 사용을 말하고 있다.⁵⁸ 북한은 미국과 미국 영토, 한국, 일본에 있는 작전 및 전략적 목적을 위한 일련의 잠재 표적을 거론하기도 했다.⁵⁹ 또한 북한이 핵무기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5장에서 논의할 것과 같이, 중국은 때에 따라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북한은 미국에 보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격이나 위협에 대해 확실하게 보복할 것이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표 4.1은 북한이 특정 시점에 보유한 핵무기의 수에 따라 표적 국가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⁶⁰ 있는 핵무기 수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배분은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총 핵무기 개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래 표에서 전략적 운용은 주변 세력에 대한 북한의 억제, 강요, 정확한 보복과 관련이 있으며, 핵심시설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작전적 운용은 전쟁 자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군사 관련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의 지휘통제시설, 비행

57. KCNA Watch, Law on Consolidating Position of Nuclear Weapons State Adopted, January 4, 2013.

58. Neely, B. North Korea Warns It Would Use Nuclear Weapons First If Threatened, October 16, 2016. 참조.

59. Allard, L., Mathieu Duchâtel, M., & Godement, F. (2017). Pre-Emptying Defeat: In Search of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London, United Kingdom: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CFR/237.

60. 표 4.1의 “기타” 범주에는 러시아, 호주 및 유럽 국가를 포함한다.

장, 항구에 대해 약 25개 가량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 대부분은 아마 앞서 설명한 ‘7일 전쟁 계획’에 따라, 전쟁 초반에 사용할 것이다.

표 4.1. 북한 핵무기의 관념적 배분

운용형식과 핵 공격 표적국	북한 핵무기 수		
	총 50	총 100	총 200
전략적 운용			
한국	5	6	8
일본	5	8	12
미국	5	12	24
중국	5	10	20
기타	0	4	8
해외로 확산	0	2	12
작전적 운용			
한국	25	44	78
일본	2	7	16
미국	0	0	4
중국	3	7	18

한국에는 20개의 주요 한미연합사(CFC) 군사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⁶¹ 다른 지역에도 몇 개가 더 있다.⁶² 표 4.1은 북한이 전면전에서 총 50개의 핵무기 중 25개의 무기를 작전운용에 사용할 경우 얻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것임을 분명히 시사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신뢰성은 70%를 넘지 못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많은 표적이 미사일 방어에 의해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초기 25개의 핵무기 공격에 의해 한국의 주요 지휘 통제 기지, 공군 기지 및 주요 항구 중 5~10개 정도만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총 100~200개의 핵무기가 사용되고, 2019년과 2020년 북한이 실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이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초기 북한의 핵 공격은 주요 한미연합사 군사시설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투능력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61. CFC는 북한을 억제하고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이를 물리치기 위한 한미 연합사령부이다.

62. 한국은 약 12개의 주요 군사 비행장, 여러 주요 지휘 통제 시설, 그리고 5개 정도의 주요 군용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사용의 촉발 요소

한반도 분쟁에서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핵 위협은 소위 ‘핵 그림자’ 개념을 적용하여 협박과 강압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⁶³ 또는 핵무기 사용은 핵무기의 실제 발사를 포함할 수 있다. 핵무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북한은 소규모 군사 행동의 조건이 유리하다 생각하고, 핵 위협을 통해 서울이 북한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여도록 강요하고, 미국의 대응을 저지할 수도 있다.

북한은 1950년 6월에 그랬던 것처럼 ‘7일 전쟁 계획’과 일치하는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대규모 포병, 미사일, 핵무기, 재래식 무력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후방의 보급로, 보강 및 공격 작전을 저지시킬 ‘지속성 화학작용제’와 전선 돌파를 용이하게 하는 ‘비지속 화학작용제’ 등의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한미 주요 지휘통제, 비행장, 항만,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생물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미국이 1994년과 2017년에 고려했듯이 북한에 대한 선제 또는 예방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군사 작전은 원격 공격(standoff attack)으로 제한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전면 침공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즉각적인 북한의 핵보복이나 연합군이 북한에 진입한 직후의 핵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평양은 이러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평가하고, 핵 선제공격을 먼저 감행할 수도 있다.

우발적으로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발생하는 북한의 도발이나 기술적 차원의 충돌이 우연히 전면적인 전략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은 연합군의 군사 훈련을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침략의 징후로 자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선언이 단지 선전목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임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 인지는 미지수다. 열악한 정보와 정찰 능력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은 동맹국의 군사 훈련이나 경고성(signaling) 행동을 공격의 전조로 오해하고, 한국과 미국의 핵 선제공격이라고 인식해, 핵 선제공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양측은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확대를 위한 필요성을 심화시키고, 특히 핵 선제공격을 통해 오판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이 몇 가지 목표물에 대한 제

63. 북한과 한미 간의 제한된 재래식 충돌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핵무기는 ‘핵 그림자’를 드리울 것인데, 이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핵사용을 불러올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공격을 촉진할 것이다. 이 현상은 ‘안정-불안정 역설’(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에 의한 것이다. Krepon, M., & Gagne, C. (Eds.),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Nuclear Weapons and Brinkmanship in South Asia*. Washington, D.C.: Stimson, No. 38. (2001). 참조.

한적 공격을 시작한다면 북한은 이를 주요 공격과 침략의 첫 번째 단계로 인식할 것인가? 북한은 적대 행위 초기에 연합군에 패배할까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조기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독립적인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했다.⁶⁴ 한국은 3축체제로 구성된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은 첫째, 발사 전 북한 미사일을 목표로 하는 선제공격 시스템과 킬 체인 탐지(kill chain detection), 둘째, 한국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KAMD), 셋째 북한의 공격 직후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 감지에 따라 북한 지도부와 북한 핵무기, 미사일에 대해 시행되는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으로 구성된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지도부를 암살하는 데 특수부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⁶⁵

북한의 핵능력 증대는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미국에 심각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가 핵 선제공격 전략에 더 의존해야 할 지도 모른다. 북한과 미국 동맹국의 핵 선제 공격에 대한 선호는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양측 모두가 오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아마도 자신의 핵능력을 강화하고, 시위하며, 핵 사용을 위협할수록 한국과 미국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결론

북한은 정권의 힘과 생존의 주요 원천이라는 전제하에 핵무기를 추구해왔다. 북한의 핵무기는 확실히 북한 정권에 상당한 강압 능력을 부여하고 한반도와 주변국을 파괴할 다양한 분쟁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북한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핵무기는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같은 나라의 핵확산이 지역을 안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은이 내부 불안을 두려워할 경우 그의 공격성은 정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⁶⁶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추구해야 한다.

64. Fifiield, A. In Drills, U.S., South Korea Practice Striking North's Nuclear Plants, Leaders, Washington Post, March 7, 2016a.

65. Akulov, A. South Korea Forms Special Unit to Kill North Korean Leader, Strategic Culture Foundation, January 18, 2017.

66. Waltz, K. (1981).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tter*. London,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delphi Papers. No. 171.

5. 한미의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전략

앞선 세 개의 장은 북한의 목표와 핵무기 위협,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는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을 격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러한 역량은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며 북한이 일정 수준의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새로운 협상 접근법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한미 핵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결론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증가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책을 수립하는 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제시했다.

- 북한 정권의 핵심 목표(제2장)는
 -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유지하는 것
 - 한반도 지배를 달성하는 것, 즉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권 통제하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
 - 앞선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 강국이 되는 것
- 북한은 잠재적으로 2027년까지 대규모 핵무기 전력(약 200개의 핵무기)을 작전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¹ 또한 북한의 핵무기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 수단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특히 미국까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ICBM의 상당한 수적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1. 북한이 2030년 혹은 2040년까지 200개의 핵무기를 축적하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은 거의 동일한 위협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핵무기 수량은 제4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북한의 위협을 증가시킬 것인데, 이는 한미의 목표와 안보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
 -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전 초반에 한국 영토의 상당 부분, 그리고 한국의 주요 항구 및 지휘 통제 시설에 배치된 한미 공군의 주요 전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한국을 북한의 열등한 재래 전력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 한국에 대한 제한된 핵무기 공격의 경우,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수준의 핵무기 하나만으로도 약 5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수준의 핵무기 하나로는 서울이나 뉴욕에서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다량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한발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압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을 협박하는 데 이용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화시켜 한미동맹을 이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 북한이 자신의 주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핵무기나 시설을 포기할 수 없다. 심지어 북한은 핵무기 생산 동결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게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 핵무기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7년 한미 전략 제안 개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한미 양국을 큰 곤경에 처하게 한다. 한미는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북한 위협의 증강을 막고 가능한 한 많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를 실패할 시 이러한 공격을 격퇴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대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Vegetius)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였다.²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확실히 궤멸시켰다는 미국의 현 정책을 이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한국형 MAD). 비록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전쟁, 특히 핵전쟁을 치르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위협을 기꺼이 감수하려 한다면, 그러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게 억제와 방어에 초점을 둔 주된 노력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27년 북한의 잠재적 핵 위협, 즉 200여 개의 핵무기와 이를 투발하는 미

2. David (2014).

사일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한미 양국의 노력은 북한의 위협 증강에 비해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2030년이나 2040년까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 가지 전략은 아래와 같다.

대북 억제, 격퇴, 방어 및 좌절을 위한 한미의 예방 노력에 기초한 정책과 전략

이 정책의 개념을 더욱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자문단(Team of Strategic Advisors) 설립을 제안한다.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재래 전력을 이용한 작전에 상당 부분 의존할 것이지만, 이는 보고서 범위 밖의 주제이므로 핵무기 환경에서의 재래 전력 생존을 보장하는 맥락에서만 다루어 지고 있다.

역량 확보

역량 확보에는 북한 위협에 대한 더 나은 정보 수집과 방어 능력, 대전력(counterforce) 및 대지도부(counter-leadership) 타격 능력을 포함한다.

기타 권고 사항

다른 권고 사항으로는 균형된 거래를 보장하는 구조화된 대북 협상,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조건의 재평가,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대북 정보전을 포함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방어는 한미 양국이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조치들의 상당수에서 미국은 중국의 저항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으며 중국의 예상되는 행동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고서를 끝맺으려 한다.

한미 핵심 전략: 대북 억제, 격퇴, 방어 및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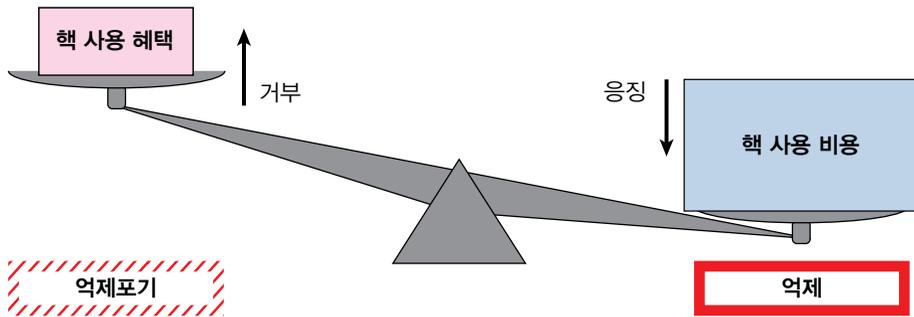
미국의 국가안보 교리는 적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 따르면 “미국의 핵 정책과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잠재적 적들의 모든 규모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³ 이를 포함한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절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 행동을 진지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억제, 격퇴, 방어, 그리고 좌절은 상호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다룸으로써 바람직한 한미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려 한다.

3.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b, p. 7).

억제 및 비용 부과

2006년 미 국방부의 “억제작전합동개념(Deterrence Operations Joint Operating Concept)”에 따르면, “억제 작전은 적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의 사회적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정적인 영향력은 혜택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믿게 만듦으로써 달성된다.”⁴ 간단히 말해서, 그림 5.1에 나타난 것처럼 적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혜택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에 비추어 낮을 때 위협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심각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혜택을 거부하여 확실하게 격퇴할 수 있다면, 북한이 억제될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어 개념은 북한이 추구하는 혜택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림 5.1. 억제 체계



본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억제를 위 그림의 응징 측면과 동일시한다. 비록 역사적으로 핵 억제는 적의 도시와 인구를 파괴하여 사회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확증파괴 전략을 통한 비용 부과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의 미국 전략은 북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우리의 대북 억제 전략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⁵

4. 이 인용문은 간소화되었다. 이는 적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 또한 중요할 수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06). *Deterrence Operations Joint Operating Concept*. Version 2.0. Washington, D.C. p. 8.

5.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b, p. 33).

북한 정권이 자신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과를 위해서는 정권 제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 방안이 성공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지휘 및 통제 체계를 제거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으로 추구하는 혜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의 능력을 ‘압도적 대응(overwhelming response)’이라고 일컫는다.⁶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권 제거 위협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 (1)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2) 이러한 미국의 위협이 대부분의 미국 국가안보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는다.⁷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 북한 정권은 방호되고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시설에 은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⁸ 전미한림원(National Academies of the United States)에 따르면, “단단하고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전략적 표적의 상당수는 재래식 지하 관통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고, 오로지 핵무기로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⁹ 미국은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는 표적에 대한 지상 핵공격(지표면에서의 핵폭발)이 일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낙진을 발생시킬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단지 지하 수 미터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것만으로도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시설을 파괴하면서도 핵폭발력은 1/25~1/15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지상 충격(ground effect)을 강화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얻으면서도 낙진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를 상당히 줄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적어도 몇 개 시설로 좁혀진 정권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며, 지상 및 얇은 지하의 잠재적 위치에는 미국의 정밀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깊은 지하의 주요 시설에는 여러 개의 지상 관통 핵무기가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을 노골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김정은에게 미국의 북한 정권 파괴 위협이 실제임을

6. 한국은 깊숙이 묻혀 있는 시설 밖에서 북한 정권을 표적으로 삼을 계획이다. 초기에는 이 역량을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압도적 대응이라고 부른다. (Noh, J. Defense Ministry Changes Terminology for ‘Three-Axis System’ of Military Response, Hankyoreh, January 13, 2019.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78208.html.)

7. 틀림없이, 이러한 “실패들”은 미국 자신 혹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미국의 “계산된 모호성”의 일부일 수 있다. 위협을 회피하는 적에 대항하여, 억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억제에 여전히 대체로 효과적이면서 미국의 유연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위협을 감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의 반란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모호성은 한국과 미국의 억제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8. 예를 들어, Moon, S. North Korea Moves Its Wartime Command Center to Nampo Taesan. Liberty Korea Post, July 7, 2018 참조. <https://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4808>.

9.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5). *Effects of Nuclear Earth-Penetrator and Other Weapon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p. 1.

인식시킬 것이고,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북한 정권에 대단한 위협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북한 정권 궤멸 위협이 북한의 대규모 핵무기 사용과 제한된 핵무기 사용에 모두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와,¹⁰ 이 위협이 상정하지 않는 북한의 제한된 핵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또한 한국에게 가능성이 높은 핵 대응 보장을 제공할 것인데, 이는 많은 한국의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북 억제의 또 다른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이다. 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피해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북한은 미국의 행동을 조종하고 미국의 보복 의도가 더욱 확실해질 경우 발을 뺄 수 있도록, 때때로 도발과 같은 형식으로 출발해 점차 핵무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의 전 세계적 핵 억제력은 약화될 것이다. 대신 미국은 위치가 식별된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 전략을 제시하고 자신이 말하는 위협을 실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북한 정권에게 김정은의 위치를 한미가 알고 있다는 점을 주기적으로 알려서 은신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목표로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공격 격퇴 준비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북한에게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억제의 논리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핵무기 사용이 억제될 것이라는 점이며, 이는 핵실험과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이 충분한 핵무기를 가지고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할 경우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높은 개발 비용과 제재를 감수할 것이다.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핵무기 발사를 막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의 억제 위협에 부합하도록 북한의 핵 지휘 통제를 타격하는 대지도부 공격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사이버 공격은 지도부 참수작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¹¹

10. 예를 들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수만 명 혹은 그 이상의 북한 주민들을 제거를 동만하는, 북한 정권 제거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미국은 종종 모호성에 의한 억제에 의존하지만, 북한은 과거에 그랬듯이 모호한 미국의 억제 위협을 계속 시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에는 그러한 모호한 억제력을 비교적 쓸모가 없게 만들 수 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의 억제 위협은 강력한 위협이지만, 그러한 위협을 이행하는 것, 특히 정권 지도부 위치의 불확실성은 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일련의 대전력 공격을 통해 대부분의 북한 핵무기를 파괴시킬 역량을 갖고 있다면, 북한은 한미에 맞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¹² 이와 같은 역량은 북한의 지휘 통제체계가 한미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더라도 핵무기의 발사를 방지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지휘체제와 핵무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격으로부터 생존한 대부분의 북한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하기에 충분한 방어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¹³ 한국은 북한의 핵전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지도부 표적확보, 대전력 표적확보, 그리고 방어 조치의 “3축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지도부 및 대전력 역량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회피해왔다. 북한과 같은 공격적인 국가를 상대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및 공세적인 행동 의지를 북한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어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많은 한국인들을 안심시킬 것이다. 더욱이, 한미 양국은 북한과 중국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한국에서의 전쟁이 제한적 분쟁이 아닌 전면전(total conflict)이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의 궤멸과 이후 한국 주도의 통일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이간된다면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이간은 북한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강압과 사용에 극히 취약해질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다. 이 경우, 한국은 단기에 핵무기를 개발할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물질과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이 공약했듯이,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피해야 한다.¹⁴

한국과 미국의 방어

북한을 격퇴시키는 한미 능력이 핵분쟁에서 적절한 양국 생존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본

11. Panda, A. (2020). *Kim Jong Un and the Bomb: Survival and Deterrence in North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0–243.

12. 비록 문재인 행정부가 이를 전략표적 타격으로 부르지만, 한국은 이 역량을 킬 체인이라고 지칭해왔다 [Noh (2019)].

13. 한국은 이 능력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 지칭해왔다.

14. Biden, J. Hope for Our Better Future. Yonhap News Agency. October 29, 2020.

쟁 초기 북한의 수십 개 핵무기 사용은 북한 핵무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에 기반을 둔 공군력과 같은 한미의 주요 군사적 이점을 상당히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수와 양이 증가할 수록 한미의 군사적 생존성이 점차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방어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방어 역량은 역제를 강화하며, 역제가 실패할 경우에도 한미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적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방어의 대부분은 방공 및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왔다. 즉, 한국 혹은 미국에 대한 공격을 위해 핵무기 운반을 시도하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의 핵무기 사용을 방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냉전 시기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에 의해 개발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분산된 기지 사용, 주요 시설의 강화, 표적에 대한 북한의 정보활동 거부, 그리고 북한의 핵 표적 확보의 효율성을 줄이는 기동성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대략 십여 개의 전투 비행장이 있다. 오늘날, 북한은 이들 비행장을 각각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1~2발로 겨냥할 수 있다. 비록 북한 미사일의 불안정성과 한미 미사일 방어의 효과가 이들 미사일 상당수를 핵무기가 비행장에서 폭발하기 전에 제거하겠지만, 적어도 일부 비행장은 핵무기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이 각각의 비행장에 3발에서 4발, 혹은 5발을 발사할 수 있을 만큼 핵무기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비행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비행장 산개계획을 개발하였는데, 이곳으로 유사시 전투기가 이동하여 적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 한국 또한 전시에 항공기 산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 한국 공군은 이들 장소로 산개된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급품과 인력에 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¹⁵

덧붙여서, 한미 양국은 한국민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지구 날리기(destroy the Earth)”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한국은 기존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도시 인구를 보호할 계획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18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분쟁 첫날에 적절한 대피 시설로 이동할 수 없으며, 2~3일 이후가 되면 650만 명(인구의 12.7%에 해당)이 중기적으로 대처하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피신처를 찾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¹⁶

15. 실제로, 수년 전에는 한국에 소산 비행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 착륙 활주로가 많았다. 한국이 이 비행장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예상하지 않았고, 그 이래 상당수가 사라졌다. 북한 핵무기의 증가는 이러한 위협을 회복시켰으며, 한국 공군이 잠재적 소산 비행장을 재평가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국은 전투기 분산에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공항들 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도시 지역으로부터의 소개(evacuation)이다. 이러한 소개의 일부는 전쟁에 대한 경고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가 약화되어 지속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동맹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대피 공간을 크게 늘리고 체계적인 도시 소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좌절

북한은 핵무기가 북한 정권에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좌절이라는 용어는 북한에게 핵무기가 그러한 효용이 없다는 점, 핵무기가 실제로는 부담이라는 점, 따라서 북한이 이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줄여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의미가 있다. 한미 양국은 분명 이에 실패해 왔고, 북한은 핵무기 전력 확대가 정권에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통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인식토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위협과 함께 상당 수준의 대핵무기 전력을 배치하여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을 격퇴시키고 정권을 확실히 꺾어버릴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들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정보전도 수행해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핵무기가 초래할 위협을 인식하고 핵무기에 대한 자신들의 투자가 낭비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¹⁷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강력한 한미연합방어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쓸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¹⁸

앞선 장들에서 설명했듯이, 북한은 분명 많은 수의 핵무기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며, 한국을 강압하여 통일하거나 정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지속 능력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이 적절한 미사일 방어를 보유하는 것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

16. Kim, J.J., Kim, C. W., Kim, S., & Ham, G.H. Assessing South Korea's Civil Defense Emergency Evacuation Facilities. Seoul, South Korea: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pril 3, 2018.

17. 이후 섹션에서 필요한 정보 작전 캠페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다룬다.

18. Korea Herald, Park Pledges Strong Defense to Render N. Korean Nukes Useless. October 1, 2013.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31001001097>.

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러시아나 중국의 ICBM 위협을 상정하여 확대되어야 했으나, 이란과 북한이라는 소규모 ICBM 위협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전략적 역제가 불안정하게 되었다. 북한 ICBM 위협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 수준을 계속 확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미국이 보다 진지하게 공세적 역량을 개발할 경우, 이후 논의될 바와 같이 북한으로 하여금 ICBM 전력 증강을 제한하게 할 수도 있으며,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ICBM 증강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가 쓸모가 없고 정권에 실제로 위협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좌절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핵전쟁을 위한 한미 전략 준비 및 개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어느 쪽이든 핵무기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며 핵무기 사용이 한미연합사(CFC)의 재래식 전투 계획에는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상정해 왔다. 한미연합사(CFC) 인원들이 핵전쟁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핵 계획은 다른 기관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하고, 특히 이 위협이 본 연구에서 제시했듯이 2027년까지 북한의 핵 전력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할 때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기 사용은 기존의 재래식 군사 작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군의 통합지휘(unity of command) 개념에 입각하여 핵전쟁까지 포함한 작전이 한미연합사(CFC)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위해 우리는 핵 및 재래식 연합작전을 계획하는 데 있어 한미연합사(CFC)를 지원하는 연합 “전략자문단(Team of Strategic Advisers)”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한미 양국은 전쟁 계획, 훈련 및 그 외 기능에 있어서 한미연합사(CFC)를 돕기 위해 많은 자문 전문가들을 이용한다. 약 15~20명의 한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러한 자문단은 한미연합사(CFC) 인원들에게 핵무기와 그것의 잠재적 영향, 그리고 핵무기가 어떻게 양측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자문단은 정부 관료, 학자 및 군 장교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문단은 냉전 시기 핵 및 재래식 전투를 계획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 측 인사들을 포함할 것이므로 냉전 시기의 교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단은 한미연합사(CFC)에 적합한 전략 옵션을 개발하고 북한의 통합된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는 초기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합사령관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문단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증가하는 시기에 미국의 핵우산의 실행 가능성을 한국에게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분쟁에서 계획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한미연합사(CFC) 인원들이 긴급 표적(time-urgent target)들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

킬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미국 핵무기 정보가 한국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므로, 자문단은 전작권(OPCON) 전환 이후 한국 측이 이러한 계획을 주도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군과 국가안보 기관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 및 정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개의 한미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특히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가 몇 가지 유용한 연합 개념들을 준비하였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전작권(OPCON) 전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 한미연합사(F-CFC) 사령관인 한국군 장성이 미군 부사령관으로 하여금 핵무기 사용 조정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미래연합사(F-CFC)의 한국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전략을 개발하고, 핵 표적을 지정하며, 미국의 핵무기를 불출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 대통령과 상의하기를 원할 것이다.¹⁹ 실제로 2017년 서울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이미 한국의 자체 핵전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핵무기 사용 및 억제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부족에 의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렇지 못할 경우 분쟁 종료 이후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략자문단은 이 모든 작업이 수행되도록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²⁰ 실제로 이 기본 개념은 수년 전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고려하였으며, 그가 이러한 전문성과 계획을 한국군에 가져오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승인되었지만, 미국 측은 이러한 개념을 완성하지 않았다.

19. 비유로, 2010년 북한이 한국 군함을 폭침시키고 한국 섬을 포격한 이후, 한국은 자신만의 “적극적 억제 전략”을 개발하고, 종종 미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제한적 협의 없이, 새로운 개념들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보강했다. 아울러, 한국군의 연합사(CFC) 종속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직면할 경우 “한국군은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군과 협의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국회에 말했다 (Ser, M. Park Tells Military to Strike Back If Attacked, JoongAng Daily, April 1, 2013,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69490>).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은 자위권 행사의 문제이며, 서울은 워싱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Ser, 2013).

20. 일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비미국인 인력을 NATO의 핵 기획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1966년 시작된, NATO 핵기획그룹과 상응하는 것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Sayle, T.A. (2020). A Nuclear Education: The Origins of NATO’s Nuclear Planning Group,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3, No. 6–7 참조.

한미 양국은 어떤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공격을 격퇴시키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이러한 준비의 상당수는 핵전쟁까지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처하기에 한미 역량이 부족한 분야도 있다. 한미 양국은 강력한 억제에 필요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서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강화된 역량의 상당수는 제한된 비용으로도 달성될 수 있는데, 전략 및 작전 개념의 조정 영역에서 특히 그러하며, 이러한 변경들이 명백한 우선순위이다. 다른 변경 사항은, 특히 새로운 장비의 획득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한미 양국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표적 정보

효과적인 대전력 및 대지도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북한 지도부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예상보다 쉬울 수 있다.

북한에서 핵탄두는 평시에 탄도미사일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발사를 위해서는 확인과 검증(check and verification)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은 제조된 탄두와 그것의 핵분열 핵심부(fissile core)를 위한 단일 저장고를 운영한다: 미국이 파악한 이곳은 평안북도 구성시 동북부 용덕동의 지하 시설이다.²¹

김정은은 그의 군을 신뢰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중앙집권화된 통제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택했을 것이며, 이는 핵무기가 김정은 자신을 향해 사용될 가능성을 줄인다.²² 홍콩계도,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이러한 접근을 취했다.²³

물론, 북한은 언제든지 이 접근방식을 바꿀 수 있는데, 이는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다수의 북한 핵 저장고와 탄도미사일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 정권의 주요 인물, 핵무기, 그리고 운반 플랫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표적화하는 것을 북한이 거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특히 어렵다.

21. Panda (2020, pp. 244-245).

22. 2017년 3월 인터뷰에서, 북한군 최고위 탈북자와 다른 탈북자는 김정은이 스스로 모든 군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의 포 사격 범위 내에 화학 무기를 저장하지 않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23. Stokes, M.A. (2010). *China's Nuclear Warhead Storage and Handling System*, Arlington, Va.: Project 2049 Institute, March 12, 2010.

위성, 항공기 및 드론을 통한 한미의 정보 수집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의 한 옵션은 정보자산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고, 또 다른 옵션은 고성능 자산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정권에 불만을 품은 북한 장교들이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특정 지역에서 목격되었거나 김정은이 특정 날짜에 특정 시설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이나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 탈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 정보전을 통하여 일부 북한인들에게 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HUMINT)는 또한 북한이 핵전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를 파악하여 선제적, 혹은 적어도 긴급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보안기관들이 허위 정보를 보내려고 시도하겠지만, 일부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식별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정상적인 부분이다.

한미 연합 정보체계는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지나친 노출이 민감한 정보출처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정보가 항상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선제적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을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조율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정보조율을 향상시키는 값싼 방법은 북한에 대한 대전력 공격을 모의하는 정기적인 지휘소훈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정보 격차를 식별하고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보수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후속 노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미 간 일치된 상황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과 판단에 있어서의 조율 또한 필요하다.

북한의 핵전쟁 격퇴 준비

한미 재래 전력의 우월성은 북한이 자신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쟁에서 패배할 것을 분명하게 한다. 한미 양국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이 주요 재래식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량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추구하는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이 핵전쟁 고려까지는 억제하지 못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제안한 전략자문단은 미국으로 하여금 모든 대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격퇴시키고 한국과 다른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해야 한다. 그 옵션들은 (1) 북한을 전담할 미국의 전략 핵무기나 핵 플랫폼, 혹은 둘 모두를 지정;²⁴ (2)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한국 내 혹은 주변에 배치;²⁵

24. 비유로,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400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포세이돈 전략잠수함을 NATO에 헌정했다 [Leitenberg, M. (1984). *Studies of Military R&D and Weapons Development*.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University of Maryland, p. 17].

(3)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한미가 재래식 전쟁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핵전쟁에는 방호가 어려운 군사 시설을 한국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한국 내에 전투비행장이 십여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더욱이, 핵무기에 대한 대피소와 기타 방호 시설을 포함하여 한국 전력을 지속적으로 산개시키는 군사 기지가 한국 내에는 거의 없다.²⁶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적정 수준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한미가 핵전쟁에서 북한을 격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북한에게 인식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핵전쟁을 분명하게 계획하며 훈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자신이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것이며, 이는 억제력을 훼손할 것이다. 핵무기와 이것이 한국에서의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군 장교들은 많지 않다. 앞에서 제안된 전략자문단은 선별된 한미 인력에게 핵 사용 계획과 관련되어 보다 발전된 계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필요에 따라 이들 인력들에게 기본 핵무기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의 핵전쟁 계획은 미국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기존의 핵 모호성보다는 계획된 미국의 핵 대응을 명확하게 하는 핵 명료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핵분쟁에 대해 한미는 광범위한 분석과 게임을 통해 한미연합사(CFC)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역량을 확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 증가와 한국군의 규모 감소로 인해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는 더 중요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전력 및 시설 제공자(force and facility provid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엔사는 북한의 기습 핵무기 공격과 연계해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의 시설에 가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면, 한반도 밖에 소재한 유엔사 시설을 대체 작전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비록 많은 유엔 참전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기지와 전력을 제공하기 꺼려할 수 있지만, 참전국들은 핵무기 공격으로 상실하게 된 한미 인력을 대체하는 전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는 훈련 및 한반도 역외 활동에 이들 참전국들의 더 많은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핵보유 참전국의 군대나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이들로 하여금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하기를 원하도록 만들 것이다.²⁷

25. 예를 들어, Mitchell, E. Pentagon Chief says US Looking to Put Intermediate-Range Missiles in Asia. The Hill, August 3, 2019 참조.

26. 사실, 한국에 있는 미군은 효율적이고 인력-친화적인 환경을 모색하며 군 기지들을 강화했다. 심각한 북한 핵무기 위협의 시대에서 이들 환경과 군 보호 간 긴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27. 한국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5,980명의 프랑스 시민과 7,550명의 영국 시민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더 나은 방어 역량

한미 양국은 핵무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력(戰力)과 도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²⁸ 한미 양국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항공기 산개 옵션을 개발하고 잠재적 손실을 고려하여 지휘, 통제 및 군수의 중첩 구성을 강화하여 복원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생화학 무기 및 재래식 공격에 대한 방어 역시 향상될 수 있다. 북한은 한미 방어의 어떠한 틈이라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미사일 방어는 지금보다 더 방호력과 전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통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 분쟁 기간과 그 이전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상당한 사이버전 역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하며, 그러한 침투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아마도 한미 양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인프라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수단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이미 감시하고 있을 것이며, 그러한 수단들의 대부분을 식별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오래 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한국 침공이 있을 경우, 추후의 공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한미가 북한을 함락하고 한국에 흡수시키는 쪽으로 종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감안할 때, 북한 지역에서 한미 작전기간 동안 이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국방개혁상 계획된 한국군 현역 인력의 감축은 미래에 한국군이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군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군 예비군의 상당수가 연간 3일 이상을 훈련하여 북한 점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지 못한다면, 미래 그러한 작전을 위한 적절한 역량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대전력 및 대지도부 타격 역량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일정 수를 넘어가면 한국과 미국의 방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부적절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전략 핵무기의 안정성(strategic nuclear weapons st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 억제력이 완전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한된 핵 위협에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토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왔다. 한미 양국은 한미 방어의 유효성을 상실시키는 북한 핵 및 운반 수단의 수량을 파악해야 하며, 북한에게 이 방어 임계점을 넘는다면 한미가 대전력 및 대지도부 공격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야 한다. 처음에 북한은 한미 양국이 설정한 이 임계점이 정말 적용될 것이라고

28. 한국은 자신들의 지하철 시스템이 민간인들을 위한 적절한 은신처가 될 것이라고 가정해 왔으며, 이는 재래식 포나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사실이다. 하지만, 핵무기에 대해서는, 지하철은 방폭 문이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은 거의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 임계점에 접근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대전력 및 대지도부 공격 역량을 확대 구축하는 노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도 이 임계점을 둘러싼 한미 역량 증가에 예민할 것이며, 한미 역량이 크게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게 이 임계점 이하에 머물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미 대전력 및 대지도부 역량 구축은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북한이 증가하는 핵무기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지렛대를 가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필요하다. 킬 체인을 위한 한국의 계획은 한미 양국의 대전력 및 대지도부 표적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포함한다. 북한의 핵 및 지도부 표적의 상당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한미 양국은 공격 첫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에 의존해야 한다.²⁹ 미국은 한반도와 그 인근에 배치한 전구급 탄도미사일에서 현저한 부족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투발체계를 이제서야 구축하기 시작했다.³⁰ 또한, 한미 양국은 비교적 깊이 않은 지하에 위치한 북한 표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재래식 정밀 폭탄이 필요하며, 확실히 식별할 수 없는 모든 잠재적 표적, 그리고 첫 공격 단계에서 제거되지 않은 남은 표적을 재타격하기 위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이동하는 타격을 찾고 발견 즉시 신속하게 타격하기 위해 전투기나 드론, 혹은 둘 모두가 필요하다.³¹

북한의 일부 표적들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면서 부수적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공세적인 사이버전과 특수부대가 이상적일 수 있다. 북한이 대체로 폐쇄적인 전산망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한미 양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지휘 및 통제 체제에 침투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며, 적어도 한미의 대전력 타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부 발사 명령이 전달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북한 내 표적들을 공격하도록 지정된 자신의 핵무기 대부분을 아마도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의 형태로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지하 깊숙이 존재하는 북한의 시설에 최적인 미국의 무기가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하 침투 능력을 가진 저위력 B61-12 핵탄두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과 재래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갖춘 항공기 일부가 핵무기 운반을 위해 한국 비행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³²

29. 김상협. 韓美, 북한 핵·미사일 5단계 정밀타격 구축. 문화일보, 2012년 10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1001070123029002>.

30. See Mitchell (2019) 참조.

31. 이 작동 모드를 무장 정찰이라고 칭한다.

32.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5, p. 2). 예를 들어, 신형 B61-12 전술 핵무기는 50KT의 위력을 갖다고 알려져 있지만, 폭발하기 전에 지상의 약 3m를 관통하면 “지상 표적에 대한 B61-12의 최대 파괴 잠재력은, 750KT에서 1,250KT의 위력을 갖는, 표면 파열 무기의 역량과 동일하다”(Kristensen, H.M., & McKinzie, M. Video Shows Earth-Penetrating Capability of B61-12 Nuclear Bomb.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January 14, 2016). 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북한의 핵무기 수가 증가할수록 북한은 한미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격퇴하는 것은 더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한미 양국이 군사작전 초기에 대전력 및 대지도부 표적 확보에 더욱 전념하도록 만들 것이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은 80~100개 핵무기와 15~25개 ICBM을 임계점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이 두 가지를 실행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미국이 지하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한국에 소수의 (아마도 8~10개) B61-12 전술 핵폭탄을 배치하고, 그것들을 운반하기 위해 4개 정도의 재래-핵전 이중용도 전투기를 배치할 것이다.³³
2. 미국은 대전력 및 대지도부 표적 확보를 위해 선제적 작전 개념으로 전환할 것이다.³⁴

비록 두 번째 권고 사항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 합참차장 존 하이튼(John E. Hyten)의 최근 경고와 부합한다. “미사일 방어와 미사일 격퇴를 보면, 킬 체인 전체의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종말단계에서 작동하는 국지 방어체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사 원편 단계(left of launch)’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격퇴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³⁵ ‘발사 원편 단계’는 북한이 발사하기 전을 의미하며, 이는 선제공격 작전이 될 것이다.

B61-12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위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정권 궤멸 위협을 더욱 즉각적이고 우려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북한에게 이와 같은 심각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동결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제적 대전력 및 대지도부 표적 확보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록 이러한 전환이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북한을 더욱 큰 위협으로 빠뜨려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생산 동결을 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한미 양국의 조치는 북한의 적대감을 유지 혹은 심지어 증폭시킬 위험

33.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김정은에 대한 참수 공격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려 할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핵무기는 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와 이중용도전투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8~10개의 B61-12를 주둔시키는 것만으로도 시급한 참수 공격에 충분할 것이며,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장기간의 대지도부 표적 확보를 위해 나머지 무기를 배치하는 동시에 미국의 나머지 무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34.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미사일 방어와 공세적인 대전력 역량과 함께,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할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35. Hyten, J. E. (2021). Missile Defense and Defeat: A Conversation with the Vice Chairman. Transcript of webinar on February 23, 2021.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p. 4.

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더 많은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핵무기 증강을 위해 현재 진행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노력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분노하게 만들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한미의 방어태세 강화와 북한의 도발 증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주요 정보전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미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적어도 동결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확립된 임계점 이하로 핵무기와 ICBM 수량을 되돌릴 경우,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들이 미국으로 복귀하게 할 것이며, 선제공격 계획은 종결될 것이다.

한미 전략에 대한 기타 권고 사항

비록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제안하든지 일정 수준의 핵무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무기의 증가를 멈추지 못한다면 최소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는 미국을 동북아시아의 악당으로 묘사하는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야 하며, 정보전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엘리트들이 북핵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며,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되돌리도록 압박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

김정은이 핵무기가 그에게 핵무기 이외의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유용성을 가져다준다고 인식하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를 달성하기보다는 북한을 핵 보유국이자 주요 국가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인식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더욱 어렵게 하였는데, 김정은에게 어떻게 그의 핵무기가 북한의 국력에 대한 대내외 인식 모두를 개선시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매우 원하는 것이다.

비록 협상이 조만간 북한 핵무기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한미 양국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³⁶ 이는 연구진의 평가와는 다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문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제한적 비핵화라도 할 수 있으며 진실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

36. Kim, T. H. Moon Urges Biden to Learn from Trump's N. Korea Diplomacy, January 18, 2020.

여줘야 한다고 김정은에게 말함으로써 ‘확실한 의지’를 검증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김정은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북한의 전능한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는데, 이는 3년이 지나고서도 당신이 어떠한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여론은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며, 당신이 비핵화에 대한 개인적인 권능의 상징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함께 하나 이상의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는 우리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김정은은 아마도 단 하나의 핵 탄두도 파괴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의 엘리트들 중 상당수가 그와 같은 조치를 미국에 대해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며, 김정은과 북한 군부 사이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김정은이 그 어떠한 핵무기도 파괴하지 못한다면 한국민들은 북한이 매우 위협적인 핵무기 위협을 건설 중이라고 깨닫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북한 핵무기 위협이 단순히 몇몇 양보를 더 해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한국 내 믿음을 깨뜨릴 것이다.³⁷ 하지만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그의 핵무기가 정말 치명적인 부담이라고 인식한다면 핵무기 제한에 대한 협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이 김정은과 보다 넓게는 북한을 핵무기로 진지하게 겨냥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의 핵무기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거나 북한이 지역강국으로 도약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김정은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의 안보 공약이 확실하다는 점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시 북한 정권을 반드시 궤멸시킬 것이라는 단호한 결의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핵무기와 기타 노력이 결코 그가 바라는 한미동맹의 이간을 초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 김정은은 분명히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확고하고 진지한 정보전, 능력 개발 및 결의 없이는 김정은은 이 관점을 결코 가질 수 없다. 그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기 전까지 김정은은 동북아시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20

37.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진보층 지지자들은…조건 요구 없이 북한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요 양보를 허용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Kim, D. Washington and Seoul Must Heal Their Alliance: Confronting North Korean and Chinese Aggression Requires It, Foreign Affairs, January 26, 2021).

년 10월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했던 연설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소한 핵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다.”³⁸ 만일 김정은의 핵무기 억제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군사 위협에도 대응하기에 충분하다면,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제재라는 부담을 안고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 어떤 진전을 위해서라면 한미 양국은 평시부터 시작되는 포괄적인 정치전(political warfare)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 내에서, 미국은 “당근과 채찍” 접근을 취해야 한다. “당근” 측면에서, 미국은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대하여 미국은 특정한 제재 완화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은 김정은이 핵무기 하나를 폐기하는 대가로 20여 명의 북한 대학원생들을 미국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³⁹ 2019년 12월, 김정은은 “차세대 지도자 육성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일성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지시했다.⁴⁰ 동시에 김정은은 김일성 대학을 방문, 교수들에게 해외 저널에 논문을 출판할 것을 지시하였다.⁴¹ 일부 대학원생들을 미국 대학으로 보내서 그들이 대학원 과정의 일부로 논문을 출판하고 다시 북한으로 귀환해서 교수가 되게 하는 것보다 북한에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러한 지원은 미국에게는 안보 위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회과학, 경영학 및 인문학으로 이들 학생들의 전공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대부분의 북한 대학원생들은 고위 엘리트 가정의 일원이다. 그들의 유학 경험을 가족 구성원과 공유하게 만들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북한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교류도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서명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대북 정보전” 부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채찍” 측면에서,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제재가 시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이 호의적으로 변한다면 제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즉 북한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제2장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김정은이 이미 2018년 판문점 선언과⁴² 2019년 신년사에서⁴³ 그러한 동결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38. Kim, J. Apologies, Tears and a ‘War Deterrent’: Top Quotes from Kim Jong Un’s Speech. NK News, October 12, 2020.

39.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들이 내게 대부분의 고위급 엘리트 가족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정은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에게 매우 화가 날 것이다.

40. Kim, J. H. Kim Il Sung University Graduates Ordered into Doctoral Programs. Daily NK, December 23, 2019.

41. 2019년 12월 한국 통일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약속에 대한 김정은의 위반은 추가 제재 조치를 가능케 하는데, 여기에는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는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군 함정을 한국의 서해 북부에 들여오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을 화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먼저 중국에게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도록 제안하고, 중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식별하고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권고하는 한미 실무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중국과 국제사회에게 문제는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외교적 협상은 그대로 열어두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전작권(OPCON) 전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몇 가지 준비된 공격 옵션 중 하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쟁 초기에 북한의 핵전력과 지휘부 위치 및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기존 핵 공격 옵션의 중요하고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수정은 연합사령관의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군 장성이 맡게 될 미래 연합사령관이 미군 연합사령관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방어를 위해 미 전략 자산들을 통제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재래식 분쟁과 달리 핵 분쟁에서 한국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 맞서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북한이 전작권(OPCON) 전환을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흔들리는 신호로 해석하게 만드는 핵심 약점이다. 한국에서의 핵전쟁을 생각하는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핵무기 지원을 분명히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 지휘구조가 앞으로 몇 년 더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일본과의 협력

미국은 한국 내 비행장과 그 외 시설들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일본이 한국에 배치될 미군 전력과 대북 전투 작전을 위해 자국 기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북한을 격퇴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안했다. 이러한 접근 없이는 한국에 대한 많은 미군의 배치가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일본 기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일본을 한국 방위에 있어 협력자로서 대해야 한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일본에게 핵공격

4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 (2018).

43.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국내외에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고 시험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하거나 확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김정은 2019년 신년사.

을 포함한 중대한 강압을 가할 것이며, 일본은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으므로 한미 양국의 전략을 일본도 알아야 한다. 또한,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전에 전구 미사일들로 일본을 타격하는 등 일본을 먼저 강압하고자 한다면, 한미 양국은 공격에 대한 보복을 포함하여, 일본을 지원하고 방위하는 데 있어서 단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한미 양국에 대한 자국의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대북 정보전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전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다. 북한은 외부 정보가 김정은의 권력과 성공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의 많은 실패로 인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외부 정보가 인민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전 및 영향력 행사 활동이 북한보다 더 적합한 국가는 없지만, 이는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최고위 엘리트 및 중간 간부들, 그리고 인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김정은은 사실과는 달리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하노이 회담은 제재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김정은의 또 다른 실패였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제안했던 조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그들이 자신의 영원한 적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문제들이 미국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끊임없는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기적으로 주장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선동에 대응하는 것에 실패함에 따라 국제사회와 한국인들은 한반도 현실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한미의 적극적인 정보전은 이러한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기타 위협을 완화하도록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미국은 미국의 적대감에 대한 북한 설명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의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 한국은 북한 엘리트들에게 득이 될 한국 통일의 개념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일부 북한 엘리트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주요 정보를 한국에게 제공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북한에 대한 대지도부 및 대전력 공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1950~1953년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합의를 원한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는데, 이러한 합의는 한미동맹을 폐기시키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종결시키는 것이다.⁴⁴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행위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1953년 이래 벌여온 냉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하는, 적극적인 정보전 대응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북 관계의 심각한 적대감은 북한으로부터 나온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미국은 자신들의 영원한 적이라는 사상 주입을 끝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것의 종식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적대감의 종식을 입증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취해야 한다고 우리가 제안한 행동의 대부분 혹은 모두를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강대국이며 북한이 미국에 대해 그 어떠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고자 북한의 “위협”을 이용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한미 양국이 한국에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THAAD 배치가 실제로는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에 있다고 확신했다. 중국은 사거리가 200km뿐인 THAAD 미사일이 중국의 영공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⁴⁵ 사실 THAAD가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중국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뿐이었고, 결국엔 중국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강하게 반대하며, 자신은 한국을 커버하는 유사한 레이더들을 이미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THAAD와 연계된 초지평선 레이더 배치를 반대함으로써 THAAD와 관련된 반한(反韓) 행위들을 정당화하였다.⁴⁶ 한국과 미국의 조치에 분노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 보복을 가했으며,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무역보복으로 인해 한국은 2017년 한 해에만 최소 156억불의 피해를 입었고,⁴⁷ 롯데그룹의 경우 중국에 있는 72억불의 자산 손실을 입었다.⁴⁸

한미 양국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규모 정보전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이 이러한 위협을 간과하도록 만들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전략을 바꿔야 하

44. 우리의 동료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

45. Klingner, B. (2015).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No. 3024.

46. GlobalSecurity.org. Project 2319 Tianbo [Sky Wave]: Over-the-Horizon Backscatter Radar [OTH-B]. undated.

47. Volodzko, D.J. China Wins Its War Against South Korea's US THAAD Missile Shield—Without Firing a Shot.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8, 2017.

48. Kim, D. Lotte Seeks to Exit China After Investing \$7.2b. *Korea Herald*, March 13, 2019.

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특히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전략자문단의 업무와 권고안은 중국에게 한미 양국이 진지하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국이 싫어할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중국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심리전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한미 양국의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다수의 중국 도시와 그 외 표적들에 미칠 수 있는 피해와 이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⁴⁹ 지난 70여 년간 북한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해왔으나, 중국이 북한을 위해 해준 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 세기 동안 중국을 적으로 간주해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관련 행동이 미국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에서 미국이 지정한 임계점을 넘을 경우, 미국이 소수의 B61-12 전술 핵폭탄과 이의 운반을 위한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위협에 대해 분노할 것인데, 이는 이 행위가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게 핵무기 생산 동결을 압박할 것을 바라며 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미국의 B61-12 전술 핵폭탄 배치와 관련해 설정한 임계점을 초과하면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고, 핵무기 재고를 임계점 이하로 줄인다면 B61-12와 관련한 항공기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북한이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북한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인내심으로 북한을 대한다면, 북한이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고, 중국의 영향력에 호응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2049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일치한다.⁵⁰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대단히 독립적이다: “평양은 베이징의 우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전혀 없다.”⁵¹ 예를 들어, 중국이 김정은에게 그의 이복형을 헤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은은 말레이시아에서 금지된 신경작용제로 그를 살해했다.⁵² 살해 5일 만에 중국은 북한의 주요 외화 소득원인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는 등 이 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에게는 불행하게도 만일 북한이 더 많은

49. 2012년에서 2019년까지를 커버하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중국 글의 조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역제를 이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결론지었다 [Fang, H. (2020). Sino-DPRK Relations and Chinese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s Nuclear Issue: Meta-Analysis on Chinese Literature Since 2012.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2, No. 4, p. 625]. 즉, 중국은 자국 안보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 Brands (2020).

51. Lankov, A., & Ward, P. No, You're the Puppet: Why North Korea Isn't a Chinese Satellite. *NK News*, May 14, 2020.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들은 더욱 더 자신감에 차고 공격적이 될 것이다. 공격적인 북한은 다른 국가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보여줄 것이다. 즉,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영향에 도전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장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친구가 아니며, 미국의 목적만큼이나 중국의 목적을 위해서도 억제되어야 한다.

52. Denyer, S. China Suspends North Korean Coal Imports, Striking at Regime's Financial Lifeline. *Washington Post*. February 18, 2017.

참고문헌

- 김당. [단독] 대북 차관 1조617억원…北, 한푼도 안값아. UPI 뉴스. 2020년 6월 19일.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6190071>.
- 김동현. 미 전문가들, 주한미군 관련 육군대학원 보고서에 엇갈린 반응.
미국의 소리(VOA). 2020년 7월 31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fk-review>.
- 김상협. 韓美, 북한 核·미사일 5단계 정밀타격 구축. 문화일보. 2012년 10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1001070123029002>.
- 문관현. 北통신 “핵무력, 동족 겨냥 아니다…철저히 미국 겨냥”. 연합뉴스. 2018년 2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4054300014>.
- 백성원. [단독]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하노이 회담 앞서 군부에 핵개발 지침.
미국의 소리(VOA). 2019년 6월 18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4961300>.
- 법무부. 2019.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유코리아뉴스. 김정일 유서 전문. 2012년 11월 23일.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
- 이정은. 통일비용, 천문학적이라고?…전문가들 “분단비용 고려해야”. 한국일보. 2018년 5월 2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021274628429>.
- 조상진. 미 전문가들 “북한의 군축협상 시도 일축해야”. 미국의 소리(VOA). 2019년 10월 5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5109659>.
- 최강.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려한다. 조선일보. 2021년 1월 19일.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1/19/YRRGBFG4WJEYFIZHOTOAZGOLPY/.
- 최현정. 김정일, ‘2012년 핵보유국 지위 획득’. 동아일보. 2009년 5월 11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90511/8730463/9>.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 사회주의 강성국가”. 2016년 12월 31일.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957&mid=SM00000536&limit=10&eqViewYn=true>.

황주호. (2019). 핵비확산·핵안보 측면의 주변국 핵 위협 위기관리 대응방안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연구보고서, 1-485.

https://nsrm.kofons.or.kr/uss/guide/report/formReport.do#AC=/uss/guide/report/retrieve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5&VA=content_body&menuNo=9000006000.

“2013 Plenary Meeting of WPK Central Committee and 7th Session of Supreme People’s Assembly,” North Korean Economy Watch, April 1, 2013. As of February 16, 2021:

<https://www.nkeconwatch.com/2013/04/01/>

2013-plenary-meeting-of-wpk-central-committee-and-supreme-peoples-assembly/

Acton, James M., Jeffrey Lewis, and David Wright, “Video Analysis of the Reentry of North Korea’s July 28, 2017 Missile Tes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ovember 9, 2018. As of February 17, 2021:

<https://carnegieendowment.org/2018/11/09/video-analysis-of-reentry-of-north-korea-s-july-28-2017-missile-test-pub-78269>

Akulov, Andrei, “South Korea Forms Special Unit to Kill North Korean Leader,” Strategic Culture Foundation, January 18, 2017.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strategic-culture.org/news/2017/01/18/south-korea-forms-special-unit-kill-north-korean-leader/>

Albert, Eleanor,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ember 5, 2017.

Albright, David,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presentation slid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April 22, 2017. As of February 17, 2021:

https://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North_Korea_Talk_April_28_2017_Final.pdf

Albright, David, and Robert Avagyan, *Recent Doubling of Floor Space at North Korean Gas Centrifuge Plant: Is North Korea Doubling Its Enrichment Capacity at*

- Yongby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magery Brief, August 7, 2013.
- Albright, David,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August 16, 2012. As of February 17, 2021: https://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dprk_fissile_material_production_16Aug2012.pdf
- Allard, Léonie, Mathieu Duchâtel, and François Godement, "Pre-Emptying Defeat: In Search of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London, United Kingdom: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CFR/237, 2017. As of February 18, 2021: http://www.ecfr.eu/publications/summary/pre_emptying_defeat_in_search_of_north_koreas_nuclear_doctrine
- Allison, Graham T., Jr., "North Korea's Lesson: Nukes for Sale," *New York Times*, February 12, 2013.
- Baek, Jieun, "Why Foreign Information in North Korea Is Such a Big Deal," NK News, October 19, 2016.
- Baik Sung-won, "Leaked N. Korean Document Shows Internal Policy Against Denuclearization," Voice of America, June 17, 2019a.
- , "Experts: Step-by-Step Approach Needed in Denuclearization Deal with North Korea," Voice of America, June 25, 2019b.
- Barrie, Douglass, and Joseph Dempsey, "What North Korea's Latest Missile Parade Tells Us, and What It Does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October 12, 2020.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iiss.org/blogs/analysis/2020/10/north-korea-missile-parade>
- Bechtol, Bruce E., Jr., *North Korean Military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Enabling Violence and Instability*,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8.
- , "North Korea, China, and Iran: The Axis of Missiles?" *National Interest*, October 25, 2020.
- Bennett, Bruce W.,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 Korean 'Christmas Present,'" *RAND Blog*, December 24, 2019.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rand.org/blog/2019/12/stability-in-northeast-asia-and-the-north-korean-christmas.html>

- Bennett, Dashiell, “North Korea Is Now Threatening a Preemptive Nuclear Attack,” *The Atlantic*, March 7, 2013.
- Bermudez, Joseph S., Jr., “New Hovercraft Base at Sasŭlp’o,” *KPA Journal*, Vol. 2, No. 2, February 2011, pp. 1-10.
- , “Sil-li Ballistic Missile Support Facility,” *Beyond Parallel*,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y 5, 2020. As of February 17, 2021:
<https://beyondparallel.csis.org/sil-li-ballistic-missile-support-facility/>
- Biden, Joe, “Hope for Our Better Future,” *Yonhap News Agency*, October 29, 2020.
- Bistline, John E., David M. Blum, Chris Rinaldi, Gabriel Shields-Estrada, Siegfried S. Hecker, and M. Elisabeth Paté-Cornell, “A Bayesian Model to Assess the Size of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Program,” *Science & Global Security*, Vol. 23, No. 2, 2015, pp. 71-100.
- Brands, Hal, “What Does China Really Want? To Dominate the World,” *Japan Times*, May 22, 2020.
- Brumfiel, Geoff, “North Korea’s Newest Missile Appears Similar to Advanced Russian Design,” *NPR*, May 8, 2019.
-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The Secretary’s Morning Intelligence Summary,”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29, 1994. As of February 17, 2021: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421/docs/19940329.pdf>
- Carlin, Robert, and Robert Jervis, *Nuclear North Korea: How Will It Behave?*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October 2015.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38north.org/wp-content/uploads/2015/10/CarlinJervis-final.pdf>
- Cheng Xiaohu, “The Evolution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1960s,” *Asian Perspective*, Vol. 34, No. 2, 2010, pp. 173-199.
- Choe Sang-Hun, “North Korea Threatens to Attack U.S. with ‘Lighter and Smaller Nukes,’” *New York Times*, March 5, 2013a.
- , “N. Korea Threatens to Attak S. Korean Presidential Office,” *Dong-A Ilbo*, November 23, 2013b. As of February 17, 2021: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code=050000&biid=2013112374388>
- , “North Korea Unveils What Appears to Be New ICBM During Military Parade,” *New York Times*, last updated January 13, 2021.
- , “Kim Jong-un Vows to Boos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s Leverage with Biden,” *New York Times*, last updated January 15, 2021.

- Choi Ha-young and John G. Grisafi, "North Korea's Nuclear Force Reshuffles Its Politics, Economy," NK News, February 11, 2016.
- Choi Kang and Kim Gibum, "A Thought on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9, No. 4, December 2017, pp. 495-511. As of February 25, 2021:
<https://kida.re.kr/cmm/viewBoardImageFile.do?idx=23651>
- Choi Soo-hyang, "Kim Calls U.S. 'Principal Enemy,' Vows to Continue Nuclear Development," Yonhap News Agency, January 9, 2021.
- Chung Kyung-young, "Realities and Strategies in Managing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2, No. 4, 2016, pp. 465-484.
- Chung, Minn, "Seoul Will Become a Sea of Fir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 26, No. 1-2, 1994, pp. 132-135.
- Chung Won-shik, Republic of Korea, and Yon Hyong-mu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anuary 20, 1992. As of February 18, 2021:
https://peacemaker.un.org/sites/peacemaker.un.org/files/KR%20KP_920120_JointDeclarationDenuclearizationKoreanPeninsula.pdf
- Chun, In-Bum, "The Future of the UN Command," 38 North, September 12, 2017.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38north.org/2017/09/ibchun091217/>
- Clapper, James, "Ending the Dead End in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y 19, 2018.
- Coats, Daniel 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statement presented before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n January 29, 2019, Washington, D.C.: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019.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2019-ATA-SFR---SSCI.pdf>
- David, Jack, "Address: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U.S. Military Pre-Eminence and Why It Matters," Hudson Institute, March 8, 2014.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hudson.org/research/10155-address-if-you-want-peace-prepare-for-war-u-s-military-pre-eminence-and-why-it-matters>
- Denyer, Simon, "China Suspends North Korean Coal Imports, Striking at Regime's Financial Lifeline," *Washington Post*, February 18, 2017.

- Dong-Ki Sung, "North Korea Announces It Has No Intention of Developing Nuke Weapons," *Dong-A Ilbo*, January 22, 2003.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030122/226952/1/North-Korea-Announces-It-Has-No-Intention-of-Developing-Nuke-Weapons>
- Dr. Strangelove*, dir. Stanley Kubrick, Columbia Pictures, 1964.
- Eberstadt, Nicholas, "A Skeptical View,"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1, 2005.
- "[Editorial] S. Korea-US Joint Exercises Need to Be Delayed to Enable Bold Change in Inter-Korean Dialogue," *Hankyoreh*, July 22, 2020. As of February 18, 2021: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954774.html
- Elleman, Michael, "The New Hwasong-15 ICBM: A Significant Improvement That May Be Ready as Early as 2018," *38 North*, November 30, 2017.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38north.org/2017/11/melleman113017/>
- Fang, Haofan, "Sino-DPRK Relations and Chinese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s Nuclear Issue: Meta-Analysis on Chinese Literature Since 2012,"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2, No. 4, December 2020, pp. 625-653.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Yongbyon [Nyongbyon] N39 0 48' E125 0 48'," webpage, last updated March 4, 2000. As of February 17, 2021: <https://fas.org/nuke/guide/dprk/facility/yongbyon.htm>
- Fifield, Anna, "In Drills, U.S., South Korea Practice Striking North's Nuclear Plants, Leaders," *Washington Post*, March 7, 2016a.
- , "North Korea's Making a Lot of Threats These Days. How Worried Should We Be?" *Washington Post*, March 10, 2016b.
- , "North Korea'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rump's," *Washington Post*, April 9, 2018.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Advisory on North Korea's Us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FIN-2017-A00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ovember 2, 2017. As of February 16, 2021: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advisory/2017-11-02/DPRK%20Financing%20Advisory%20FINAL%2011022017.pdf>
- Fisher, Max, "Here's North Korea's Official Declaration of 'War,'" *Washington Post*, March 29, 2013.
- Fitzpatrick, Mark, *North Korean Proliferation Challenges: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Stockholm, Sweden: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Non-Proliferation Paper No. 18, June 2012. As of February 18, 2021:
<http://www.sipri.org/research/disarmament/eu-consortium/publications/nonproliferation-paper-18>
- Freier, Nathan, John Schaus, and William Braun,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US Army Theater Design*,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nd US Army War College Press, 2020.
- Gentile, Gian, Yvonne K. Crane, Dan Madden, Timothy M. Bonds, Bruce W. Bennett, Michael J. Mazarr, and Andrew Scobell, *Four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Capabilities Drive a Complex Set of Problem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TL-271-A, 2019.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rand.org/pubs/tools/TL271.html>
- Gertz, Bill, "Report: N. Korea Has Nuclear Warheads for Missiles," *Washington Free Beacon*, May 5, 2014.
- Grover, John Dale, "Engagement First: Why Some Koreans See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as the Solution to North Korea," *National Interest*, May 11, 2020.
- Ha, Mathew, "Amended North Korean Constitution Reaffirms Kim Jong Un's Steadfast Faith in His Nuclear Arsenal,"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July 15, 2019.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fdd.org/analysis/2019/07/15/amended-north-korean-constitution-reaffirms-kim-jong-uns-steadfast-faith-in-his-nuclear-arsenal/>
- Haggard, Stephan, "Nuclear Doctrine: What the North Koreans Are Actually Sayin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ugust 16, 2017. As of February 19, 2021:
<https://www.piie.com/blogs/north-korea-witness-transformation/nuclear-doctrine-what-north-koreans-are-actually-saying>
- Haggard, Stephan, and Tai Ming Cheu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an Diego, Calif.: UC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 Policy Brief, July 2020.
- Hamedy, Saba, "President Trump Showed Kim Jong Un This Hollywood-Style Video to Pitch Him on Peace," CNN, June 12, 2018.
- Hansen, Nick, Robert Kelley, and Allison Puccioni, "North Korean Nuclear Programme Advances," *Janes*, March 30, 2016.
- Harris, Bryan, "North Korea Threatens Nuclear Destruction of Japan," *Financial Times*,

- September 14, 2017.
- Hecker, Siegfried S.,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NAPSNet Special Reports, November 22, 2010. As of February 19, 2021: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a-return-trip-to-north-koreas-yongbyon-nuclear-complex/>
- , *Ca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 Resolved?* Stanford, Calif.: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March 21, 2012. As of February 19, 2021:
https://cisac.fsi.stanford.edu/publications/can_north_korea_nuclear_crisis_be_resolved
- Hecker, Siegfried S., Chaim Braun, and Chris Lawrence, “North Korea’s Stockpiles of Fissile Material,” *Korea Observer*, Vol. 47, No. 4, Winter 2016, pp. 721-749.
- Hecker, Siegfried S., and Robert L. Carlin, “We Are Teetering on the Edge of a Hinge Point with North Korea,” Berggruen Institute, August 5, 2019.
- Hulina, Jake, “Nothing If Not Persistent: North Korean Exploitation of Fijian and Cambodian Flags at Sea,” *Arms Control Wonk*, blog, August 11, 2020.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armscontrolwonk.com/archive/1209892/nothing-if-not-persistent-north-korean-exploitation-of-fijian-and-cambodian-flags-at-sea/>
- Hyten, John E., “Missile Defense and Defeat: A Conversation with the Vice Chairman,” transcript of webinar on February 23, 2021,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1. As of March 2, 2021:
<https://www.csis.org/events/missile-defense-and-defeat-conversation-vice-chairman>
- International Crisis Group, *The Korean Peninsula Crisis (II): From Fire and Fury to Freeze-for-Freeze*, Brussels, Belgium, Asia Report No. 294, January 23, 2018. As of February 17, 2021:
at <https://www.crisisgroup.org/asia/north-east-asia/korean-peninsula/294-korean-peninsula-crisis-ii-fire-and-fury-freeze-freeze>
- “Iranian Nuke Chief Was in N. Korea for Atomic Test,” *Times of Israel*, February 17, 2013.
- Jackson, Van, “Preventing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What to Do After the Test,” *Foreign Affairs*, September 11, 2016.

- Jeong Yong-soo, "Kim Jong-il's Final Orders: Build More Weapons," *JoongAng Daily*, January 29, 2013.
- Jeong Yong-Soo, Baek Min-Jeong, and Shim Kyu-Seok, "Secret Enrichment Plant Is Right Next to Yongbyon: Sources," *JoongAng Daily*, March 5, 2019.
- Jeong Yong-soo and Ser Myo-ja, "Kim Jong-un Ordered a Plan for a 7-Day Asymmetric War: Officials," *JoongAng Daily*, January 7, 2015.
- , "North Shrank Its Nukes Pre-2014," *JoongAng Daily*, August 11, 2017.
- jin0619@donga.com, "NK Has Built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Dong-A Ilbo*, February 18, 2009. As of February 18, 2021:
<http://www.donga.com/en/article/all/20090218/261399/1/%C2%91NK-Has-Built-Uranium-Enrichment-Facilities%C2%92>
- Johnson, Jesse, "NHK Video Casts Doubt on North Korean ICBM Re-Entry Capabilities and Effectiveness," *Japan Times*, August 1, 2017.
- julesyi@yna.co.kr, "New Satellite Images Show N. Korea's Hidden Submarine Capable of Firing Ballistic Missiles," Yonhap News Agency, January 6, 2020.
- Jung In-hwan, "Is N. Korea Raising Peninsula Tensions in Bid for US Negotiations?" *Hankyoreh*, August 11, 2017. As of February 18, 2021: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orthkorea/806473.html
- Kang Jin-kyu and Kang Chan-su,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Strongest Yet," *JoongAng Daily*, September 9, 2016.
- Keating, Joshua, "Kim and Trump Don't Mean the Same Thing When They Talk About 'Denuclearization,'" *Slate*, March 28, 2018.
- Kerry, John F., "Breaking the Cy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opening statement presented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n March 1, 201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pp. 1-4.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foreign.senate.gov/imo/media/doc/030111_Transcript_Breaking%20The%20Cycle%20of%20North%20Korean%20Provocations.pdf
- Kim, Christine, and Soyoung Kim, "North Korea Says Seriously Considering Plan to Strike Guam: KCNA," Yahoo News, August 8, 2017.
- Kim Da-sol, "Lotte Seeks to Exit China After Investing \$7.2b," *Korea Herald*, March 13, 2019.
- Kim, Duyeon, "Washington and Seoul Must Heal Their Alliance: Confronting North

- Korean and Chinese Aggression Requires It,” *Foreign Affairs*, January 26, 2021, As of February 25,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1-26/washington-and-seoul-must-heal-their-alliance>
- Kim, Hyung-jin, “North Korea Says Underwater-Launched Missile Test Succeeded,” Associated Press, October 3, 2019.
- Kim Hyun Sik, “The Secret History of Kim Jong Il,” *Foreign Policy*, October 6, 2009.
- Kim, J. James, Kim Chong Woo, Kim Seonkyung, and Ham Geon Hee, *Assessing South Korea’s Civil Defense Emergency Evacuation Facilities*, Seoul, South Korea: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pril 3, 2018. As of February 18, 2021:
<http://en.asaninst.org/contents/assessing-south-koreas-civil-defense-emergency-evacuation-facilities/>
- Kim, Jack, “North Korea Says Missile Test Simulated Attack on South’s Airfields,” Reuters, July 19, 2016.
- Kim Jeong Hun, “Kim Il Sung University Graduates Ordered into Doctoral Programs,” Daily NK, December 23, 2019.
- Kim, Jeongmin, “Apologies, Tears and a ‘War Deterrent’: Top Quotes from Kim Jong Un’s Speech,” NK News, October 12, 2020.
- Kim, Jeongmin, and Kelly Kasulis, “South Korea Revokes Corporate License for Two Defector-Led Activist Groups,” NK News, July 17, 2020.
- Kim Jong-un, “New Year Address of Supreme Leader Kim Jong Un for 2019,” trans. *Rodong Sinmun*,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January 1, 2019.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kimjongun_2019_newyearaddress.pdf/file_view
- “Kim Jong Un Observes and Guides Ballistic Missile Drill,”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July 19, 2016. As of February 16, 2021: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6/07/19/kim-jong-un-observes-and-guides-ballistic-missile-drill/>
- “Kim Jong Un Observes and Guides Mobile Ballistic Missile Drill and Watches KPA Tank Competition,”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March 10, 2016. As of February 16, 2021: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6/03/10/>

- kim-jong-un-observes-and-guides-mobile-ballistic-drill-and-watches-kpa-tank-competition/
- “Kim Jong Un Supervises Missile Drill,”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March 6, 2017. As of February 16, 2021: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7/03/06/kim-jong-un-supervises-missile-drill/>
- Kim Myong Chol, “Farewell to 1994 Agreed Framework!”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Policy Forum Online, November 24, 1998.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eb.archive.org/web/20000817005713/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23C_Kim.html
- Kim, Sarah, “Trump Tells Fox About 5 Nuclear Sites in North,” *JoongAng Daily*, May 21, 2019.
- Kim Tong-Hyung, “Moon Urges Biden to Learn from Trump’s N. Korea Diplomacy,” Associated Press, January 18, 2020.
- Kim, Yongho, “North Korea’s Use of Terror and Coercive Diplomacy: Looking for Their Circumstantial Variant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4, No. 1, 2002, pp. 45-67.
- Klingner, Bruce,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No. 3024, June 12, 2015.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heritage.org/defense/report/south-korea-needs-thaad-missile-defense>
- Klug, Foster, and Kim Tong-Hyung, “Rhetoric or Real? N. Korea Nuclear Test May Be a Bit of Both,” Associated Press, September 10, 2016.
- “KPA Supreme Command Issues Statement,”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February 23, 2016. As of February 16, 2021: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6/02/23/kpa-supreme-command-issues-statement-2/>
- Krepon, Michael, and Chris Gagne, eds.,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Nuclear Weapons and Brinkmanship in South Asia*, Washington, D.C.: Stimson, No. 38, June 2001.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stimson.org/2001/stability-instability-paradox-nuclear-weapons-and-brinkmanship-south-asia/>

Kristensen, Hans M., and Matthew McKinzie, "Video Shows Earth-Penetrating Capability of B61-12 Nuclear Bomb,"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January 14, 2016. As of February 18, 2021:

https://fas.org/blogs/security/2016/01/b61-12_earth-penetration/

Kristensen, Hans M., and Robert S. Norris,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3, No. 6, 2017, pp. 349-357.

Kube, Courtney, Ken Dilanian, and Carol E. Lee, "North Korea Has Increased Nuclear Production at Secret Sites, Say U.S. Officials," NBC News, last updated June 30, 2018.

Lankov, Andrei, and Wang Son-taek, "Is the Dream of Korean Reunification Dead?" NK News Podcast Ep. 162, December 24, 2020.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nknews.org/category/north-korea-news-podcast/latest/is-the-dream-of-korean-reunification-dead-nknews-podcast-ep-162/896421/>

Lankov, Andrei, and Peter Ward, "No, You're the Puppet: Why North Korea Isn't a Chinese Satellite," NK News, May 14, 2020.

"Law on Consolidating Position of Nuclear Weapons State Adopted," KCNA Watch, January 4, 2013. As of February 16, 2021:

<https://knawatch.org/newstream/1451896124-739013370/law-on-consolidating-position-of-/>

Leitenberg, Milton, *Studies of Military R&D and Weapons Development*,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University of Maryland, 1984. As of March 2, 2021:

<https://fas.org/man/eprint/leitenberg/>

Levy, Jack S.,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Mass.: Unwin Hyman, 1989, pp. 259-288.

Lewis, Jeffrey, "North Korean Targeting," *Arms Control Wonk*, blog, April 8, 2013.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armscontrolwonk.com/archive/206515/north-korean-targeting/>

———,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Great Miniaturization Debate," 38 North, February 5, 2015a. As of February 18, 2021:

<http://38north.org/2015/02/jlewis020515/>

———, "Revisiting the Agreed Framework," 38 North, May 15, 2015b. As of February 18, 2021:

- <https://www.38north.org/2015/05/jlewis051415/>
- Malus, Katherine, and Hilary Huaici, “How North Korea Got a Seat at the Nuclear Table,” Center for Nuclear Studies, July 13, 2018. As of February 18, 2021:
<https://k1project.columbia.edu/content/how-north-korea-got-seat-nuclear-table>
- Manyin, Mark E.,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e Normalization Talks and the Compensation/Reparations Issue*,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RS20526, 2002. As of February 18, 2021:
<https://digital.library.unt.edu/ark:/67531/metacrs3109/>
- Military-Today.com, “Iskander,” webpage, undated. As of February 16, 2021:
<http://www.military-today.com/missiles/iskander.htm>
-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Korean Peninsula,” in *Defense of Japan 2014*, Tokyo, Japan, 2014, pp. 15-31. As of February 25, 2021: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91426/www.mod.go.jp/e/publ/w_paper/pdf/2014/DOJ2014_1-1-2_web_1031.pdf
-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North Korea,” webpage, March 2019. As of February 23, 2021:
<https://missiledefenseadvocacy.org/missile-threat-and-proliferation/todays-missile-threat/north-korea/>
- Missile Defense Project, “Missiles of North Korea,” webpage, *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last updated November 30, 2020. As of February 23, 2021: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 Mitchell, Ellen, “Pentagon Chief Says US Looking to Put Intermediate-Range Missiles in Asia,” *The Hill*, August 3, 2019.
- Moon Jae-in and Kim Jong-un, Panmunjom Declaration on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anmunjom, South Korea, April 27, 2018. As of February 18, 2021:
<http://english1.president.go.kr/BriefingSpeeches/Speeches/32>
- Moon Sung-hwi, “North Korea Moves Its Wartime Command Center to Nampo Taesan,” *Liberty Korea Post*, July 7, 2018. As of February 18, 2021: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4808>
- Morris, Lyle J., Michael J. Mazarr, Jeffrey W. Hornung, Stephanie Pezard, Anika Binnendijk, and Marta Kepe,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 Response Op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RR-2942-OSD, 2019.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942.html
- Mount, Adam, *Conventional Deterrence of North Korea*, Washington, D.C.: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9. As of February 17, 2021:
<https://fas.org/wp-content/uploads/2019/12/FAS-CDNK.pdf>
- Mugford, William, and Jack Liu,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Facility: New Activity at the Plutonium Production Complex," 38 North, September 8, 2015. As of February 16, 2021:
<http://38north.org/2015/09/yongbyon090815/>
- Mullen, Mike, Sam Nunn, and Adam Mount,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2016. As of February 18, 2021:
https://cdn.cfr.org/sites/default/files/pdf/2016/09/TFR74_North%20Korea.pdf
- "N. Korea Calls Itself 'Nuclear-Armed State' in Revised Constitution," Yonhap News Agency, May 30, 2012. As of February 18, 2021:
<https://en.yna.co.kr/view/AEN20120530005200315>
- "N. Korea Digging New Tunnel at Its Nuke Test Site: Official," Yonhap News Agency, October 30, 2015.
- "N. Korean FM Claims U.S. Nuclear Threats Result in Pyongyang's Nuclear Development," *Korea Times*, April 21, 2016.
- "N. Korea Puts Nuclear Arms in Constitution," *Chosun Ilbo*, May 31, 2012. As of February 16, 2021: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1/2012053100646.html
- "N. Korea Resumes Tests for Smaller Missile Warheads," *Chosun Ilbo*, February 26, 2015. As of February 15, 2021: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6/2015022601825.html
- "N. Korea Says No Plans to Give Up Nuclear Capabilities," Yonhap News Agency, May 28, 2013.
- "N. Korea Threatens to Turn Japan into 'Nuclear Sea of Flames,'" Yonhap News Agency, September 29, 2004. As of February 24, 2021:
<https://en.yna.co.kr/view/AEN20040929000200325>

- “N. Korea Warns of ‘Precision Strike’ on U.S. Bases,” CBS News, April 5, 2013.
- Nakashima, Ellen, and Joby Warrick, “North Korea Working to Conceal Key Aspects of Its Nuclear Program, U.S. Officials Say,” *Washington Post*, June 30, 2018.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National Defense Commission, Foreign Ministry Issues Statements on Foal Eagle, Key Resolve,”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March 6, 2016. As of February 16, 2021:
<https://nkleadershipwatch.wordpress.com/2016/03/06/national-defense-commission-foreign-ministry-issues-statements-on-foal-eagle-key-resolve/>
- National Research Council, *Effects of Nuclear Earth-Penetrator and Other Weapon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5.
- Neely, Bill, “North Korea Warns It Would Use Nuclear Weapons First If Threatened,” NBC News, October 16, 2016.
- Niksi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3590, January 5, 2010. As of February 18, 2021:
<https://fas.org/sgp/crs/nuke/RL33590.pdf>
- NK News, “North Korea Military Parade 2020—Livestream & Analysis,” video, YouTube, October 10, 2020.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w8dZl9f3faY&t=6740s>
- Noh Ji-won, “Defense Ministry Changes Terminology for ‘Three-Axis System’ of Military Response,” *Hankyoreh*, January 13, 2019. As of February 18, 2021: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78208.html
- “North Korean Missile Proliferation,”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Proliferation, and Federal Services of th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U.S. Senate on October 21, 199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7. As of February 16, 2021:
www.gpo.gov/fdsys/pkg/CHRG-105shrg44649/pdf/CHRG-105shrg44649.pdf
-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CIA estimate for Congress, November 19, 2002. As of February 16, 2021:
<http://www.fas.org/nuke/guide/dprk/nuke/cia111902.html>
- “North Korea Pledges Not to Abandon Nukes,” AsiaOne, February 21, 2010. As of February

- 16, 2021:
<https://www.asiaone.com/News/Latest%2BNews/Asia/Story/A1Story20100221-199951.html>
- “North Korea Ramps Up Threat to Test Hydrogen Bomb over Pacific,” *The Guardian*, October 25, 2017.
-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How Advanced Is It?” BBC, last updated August 10, 2017. As of February 16, 2021:
<https://www.bbc.com/news/world-asia-pacific-11813699>
- “No Sign North Korea Reprocessed Plutonium in Past Year, Still Enriching Uranium, IAEA Says,” Reuters, September 2, 2020.
- Nuclear Threat Initiativ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 October 16, 2020. As of February 25, 2021:
<https://www.nti.org/analysis/articles/cns-north-korea-missile-test-database/>
- , “Module 4: Case Study: North Korea’s Scud Story,” webpage, undated. As of February 16, 2021:
<https://tutorials.nti.org/delivery-system/case-study-north-koreas-scud-story/>
- Nye, Joseph S., Jr., “North Korea’s Powerful Weakness,” *Project Syndicate*, July 11, 2013.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97.
- Pabian, Frank V., Joseph S. Bermudez, Jr., and Jack Liu, “North Korea’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Satellite Imagery Shows Post-Test Effects and New Activity in Alternate Tunnel Portal Areas,” 38 North, September 12, 2017.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38north.org/2017/09/punggye091217/>
- Page, Jeremy, “China Prepares for a Crisis Along North Korea Border,” *Wall Street Journal*, July 24, 2017.
- Panda, Ankit, “US Intelligence: North Korea May Already Be Annually Accruing Enough Fissile Material for 12 Nuclear Weapons,” *The Diplomat*, August 9, 2017.
- , *Kim Jong Un and the Bomb: Survival and Deterrence in North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Park Pledges Strong Defense to Render N. Korean Nukes Useless,” *Korea Herald*, October 1, 2013.
- Park Won Gon,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USFK Relocation to Pyeongtaek*, Seoul,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No. 164, October 20, 2017. As of

- February 18, 2021:
<https://www.kida.re.kr/frt/board/frtPermBoardDetail.do?sidx=366&idx=2518&depth=3&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7&lang=kr>
- pbr@yna.co.kr, "N. Korea Threatens Ultra-Harsh Action on U.S. Soil over Hacking Allegation," Yonhap News Agency, December 21, 2014.
- Pearson, James, "North Korea Nuclear Blast Shows 'Uncanny Resemblance' to Last Test—Analyst," Reuters, January 8, 2016.
- Perlangeli, Sara, "Flagging Down North Korea on the High Seas,"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March 29, 2018. As of February 18, 2021:
<https://rusi.org/commentary/flagging-down-north-korea-high-seas>
- Photo of Kim Jong-Un observing a missile test launch, distributed by Yonhap News Agency, 2016. As of February 24, 2021: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EN/2016/07/20/AEN20160720001252315_04_i.jpg
- Posto, Theodore A.,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nd US Missile Defense," *Physics & Society*, Vol. 47, No. 2, April 2018, pp. 4-27.
- Pritchard, Charles L., "A Guarantee to Bring Kim into Lin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10, 2003.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brookings.edu/opinions/a-guarantee-to-bring-kim-into-line/>
- "Project 2319 Tianbo [Sky Wave]: Over-the-Horizon Backscatter Radar [OTH-B]," GlobalSecurity.org, undated. As of August 18, 2020:
<http://www.globalsecurity.org/wmd/world/china/oth-b.htm>
- Ramani, Samuel, "The Long History of the Pakistan-North Korea Nexus," *The Diplomat*, August 30, 2016.
- "Residents of N. Korea's Embattled Cities Face Starvation amid Continuing Coronavirus Blockade," *Rimjin-gang*, December 16, 2020. As of February 17, 2021:
<http://www.asiapress.org/rimjin-gang/2020/12/society-economy/starvation/>
- Ridgell, Clynt, "North Korea Threatened Guam Numerous Times in the Past," Pacific News Center, August 9, 2017.
- Roh Suk-jo, "N.Korea 'Could Have 30-40 Nukes Next Year,'" *Chosun Ilbo*, September 17, 2019. As of February 22, 2021: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1515.html
- Roy, Edward, "Bush Administration Unmoved by North Korea's Nuclear Statements," ABC,

- June 10, 2003.
- Samuels, David, “How Osama Bin Laden Outsmarted the U.S. and Got What He Wanted,” *Tablet*, January 22, 2014.
- Sanger, David E., and Choe Sang-Hun, “Two Years After Trump-Kim Meeting, Little to Show for Personal Diplomacy,” *New York Times*, June 12, 2020.
- Sayle, Timothy Andrews, “A Nuclear Education: The Origins of NATO’s Nuclear Planning Group,”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3, No. 6-7, 2020, pp. 920-956.
- “Senior N. Korean Official Says Its Nuke Program Targets No Country But U.S.,” Yonhap News Agency, November 26, 2017.
- Ser Myo-ja, “Park Tells Military to Strike Back If Attacked,” *JoongAng Daily*, April 1, 2013.
- Shalal, Andrea, David Brunnstrom, and Jonathan Landay, “North Korea Nuclear Test Did Not Increase Technical Capability: U.S.,” Reuters, January 19, 2016.
- Sharp, Andy, “North Korea Threatens to Use Nuclear Weapon to ‘Sink’ Japan,” NDTV, last updated September 14, 2017.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ndtv.com/world-news/north-korea-threatens-to-use-nuclear-weapon-to-sink-japan-1750144>
- Shim Kyu-seok, “North Korea Scoffs at Another Summit with Trump,” *JoongAng Daily*, July 5, 2020. As of February 19, 2021: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7/05/national/northKorea/north-korea-choe-sonhui-refusal/20200705171100439.html>
- Shin Hyon-hee, “NK Says Missile Test Aimed at Ports, Airfields in South Korea,” *Korea Herald*, July 20, 2016. As of February 15, 202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720000876>
- Smith, Alexander, “North Korea Launched No Missiles in 2018. But That Isn’t Necessarily Due to Trump,” NBC News, last updated December 31, 2018.
- Smith, Josh, “‘Treasured Sword’: North Korea Seen as Reliant as Ever on Nuclear Arsenal as Talks Stall,” Reuters, November 13, 2018.
- , “N.Korea Nuclear Reactor Site Threatened by Recent Flooding, U.S. Think-Tank Says,” Reuters, August 12, 2020.
- Smith, Shane,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August 2015a. As of February 19, 2021:
<https://www.38north.org/wp-content/uploads/2015/09/>

- NKNF_Evolving-Nuclear-Strategy_Smith.pdf
- , *Implications for US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in East Asia*,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November 2015b. As of February 19, 2021: <https://www.38north.org/wp-content/uploads/2015/11/NKNF-Smith-Extended-Deterrence-Assurance.pdf>
- , “Renewing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gainst North Korea,” 38 North, May 13, 2020. As of February 19, 2021: <https://www.38north.org/2020/05/ssmith051320/>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9: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Stokes, Mark A., *China’s Nuclear Warhead Storage and Handling System*, Arlington, Va.: Project 2049 Institute, March 12, 2010. As of February 18, 2021: <https://project2049.net/2010/03/12/chinas-nuclear-warhead-storage-and-handling-system/>
- Tertrais, Bruno, “Destruction Assuré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French Nuclear Strategy, 1945–81,” in Henry D. Sokolski, ed., *Getting MAD: Nuclear Mutual Assured Destruction, Its Origins and Practic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4, pp. 51–122. As of February 17, 2021: <https://ssi.armywarcollege.edu/getting-mad-nuclear-mutual-assured-destruction-its-origins-and-practice/>
- Thae Yong-H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 National Security,” virtual address to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CAS Winter Symposium, December 17, 2020.
- UN—See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64*, New York, S/2020/151, March 2, 2020. As of February 19, 2021: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 U.S. Department of Defense, *Deterrence Operations: Joint Operating Concept*, Version 2.0, Washington, D.C., December 2006. As of February 18, 2021: <https://www.jcs.mil/Portals/36/Documents/Doctrine/concepts/>

- joc_deterrence.pdf?ver=2017-12-28-162015-337
- ,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Washington, D.C., 2018a. As of February 18, 2021: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 ,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February 2018b. As of February 18, 2021: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86/-1/-1/1/2018-Nuclear-Posture-Review-Final-Report.pdf>
-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ranium Enrichment," webpage, last updated December 2, 2020.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nrc.gov/materials/fuel-cycle-fac/ur-enrichment.html>
- Vartabedian, Ralph, "North Korea Has Made a Nuclear Weapon Small Enough to Fit on a Missile. How Worried Should the World Be?" *Los Angeles Times*, August 9, 2017.
- Vick, Charles, "Nodong,"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October 20, 2016. As of February 17, 2021:
<https://fas.org/nuke/guide/dprk/missile/nd-1.htm>
- Volodzko, David Josef, "China Wins Its War Against South Korea's US THAAD Missile Shield —Without Firing a Shot,"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8, 2017.
- , "North Korea Dangerous But Not Unpredictable, Says US Intelligence Official," *NK News*, January 22, 2021.
- Waltz, Kenneth,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tter*, London,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delphi Papers*, No. 171, 1981.
- Wellerstein, Alex, NUKEMAP 2.7, tool, last updated 2020. As of February 23, 2021:
<https://nuclearsecrecy.com/nukemap/>
- Wertz, Daniel,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Washington, D.C.: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December 2017. As of February 17, 2021:
<https://www.ncnk.org/resources/briefing-papers/all-briefing-papers/north-koreas-ballistic-missile-program>
- Wolf, Jim, "N.Korea Closer to Nuclear-Tipped Missile: U.S. Expert," *Reuters*, December 27, 2011.

저자 소개

브루스 W. 베넷은 RAND 연구소의 국제 및 국방 겸임연구원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전략, 무력 계획, 반확산 등이며, 미래의 한국 군사력 요구 사항, 핵무기 위기 이해 및 배경, 한반도 통일, 핵 위협 억제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베넷 연구원은 정책분석학 박사이다.

최강은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이다. 최 부원장의 주요 연구로는 한·미 동맹, 북한 군사문제, 남북관계, 위기관리, 다자간 안보협력이 있다. 최 부원장은 정치학 박사이다.

고명현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고 위원의 주요 연구로는 북한의 경제, 대북제재, 정권의 장기적 지속성이며 전통 및 비전통 안보 문제에 정량적 관점을 적용한다. 북한과 동북아 안보 관련해 국제 언론에 수차례 인용된 고 위원은 정책분석학 박사이다.

브루스 E. 벡톨 Jr.는 안젤로 주립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다.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군사 전략과 전술, 제재, 반확산 등이 있으며,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치, 한국을 공격하고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확산활동을 연구한다. 벡톨 교수는 국가안보연구 박사이다.

박지영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박 위원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 안보 정책이며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정책 및 관리 문제, 신형 기술의 안보 문제 및 증거 기반 과학 기술 정책을 연구한다. 박 위원은 원자력 공학 및 방사선 과학 박사이다.

브루스 클링너는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으로 한국과 일본을 전문 분야로 다룬다. 클링너 위원은 CIA와 국방정보국(DIA)에서 미국 고위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정보 분석 업무를 맡아 20년간 재직하였다. 클링너 위원은 국가안보전략 및 전략정보 석사이다.

차두현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이다. 차 위원은 북한 정치와 군사 문제, 한미 동맹, 국가 위기 관리를 연구하는 북한 전문가이며 국방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했다. 차 위원은 비교정치학 박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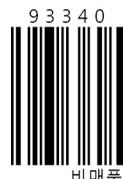
북 북

한 지도자들은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직후부터 한반도를 지배하려 했다. 그러나 한반도 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재래 군사 수단이 부족했던 북한은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에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중 몇 개라도 한국이나 미국의 도시에서 폭발할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미 양국의 주요 전략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한미 양국의 핵대응 능력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응 능력을 개발하는 데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동맹은 2020년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예상되는 북핵 위협 수준에 맞춰 대응할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자들은 핵무기 사용이 북한 정권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즉 자신에게 핵무기는 부담이지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이 알게 될 때 북한은 최대로 억제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ISBN 979-11-5570-223-9



비매품